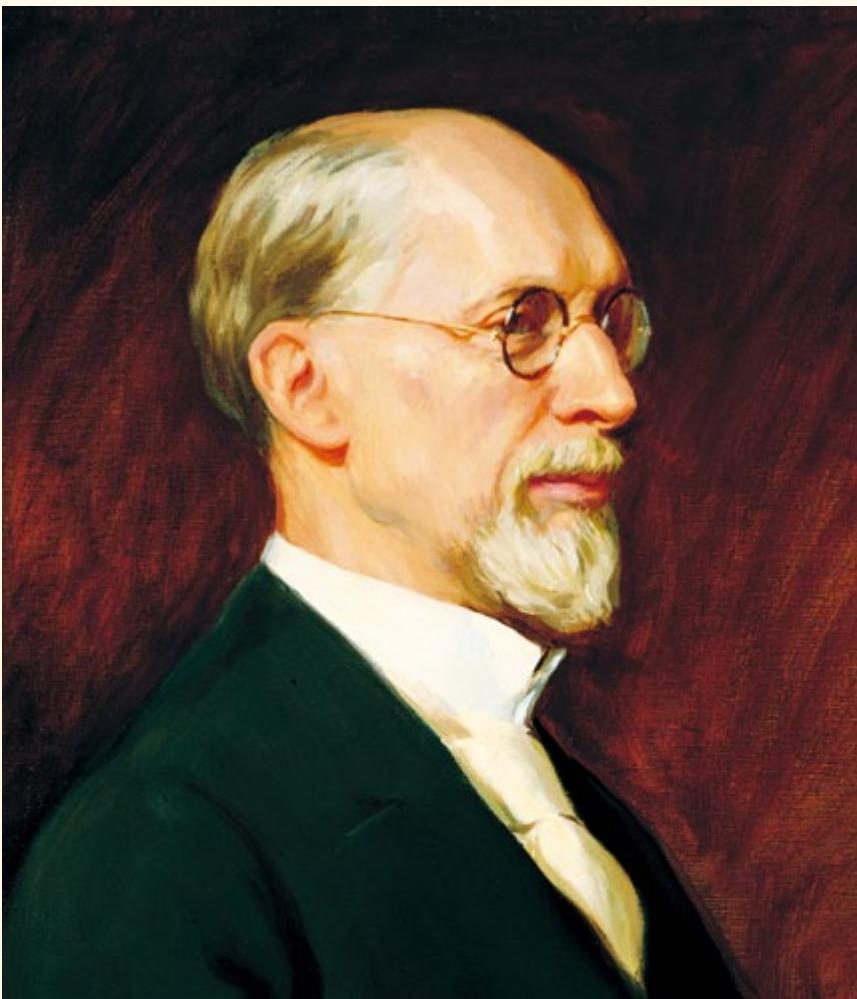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앤버트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KOREAN



4 02367 86320 3
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앤버트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36315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애프 스미스(35744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35970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앤버트 스미스(36786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364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35892 32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펠서 더블유 김볼(36500 320)

이 책들을 주문하시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과에 가시거나 stor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이 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0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을 이메일 주소 cur-development@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반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8/02

번역 승인: 8/02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George Albert Smith*의 번역

Korean

36786 320



목차

제목	쪽
소개	v
역사적 사건 요약	viii
조지 앤더스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	xii
1 믿는 바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1
2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11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	21
4 선지자 조셉 스미스, 진리 회복에 쓰인 하나님의 도구	33
5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신권	45
6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지지함	57
7 영혼의 불멸성	67
8 우리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성전 축복	81
9 온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93
10 경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	103
11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	111
12 복음을 나누려는 열렬한 소망	123
13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일	135
14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	147
15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다	157
16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169
17 강건하게 만드는 신앙의 힘	179
18 주님 쪽 선 안에 머무십시오	191
19 지혜의 말씀이 주는 현세적 축복과 영적 축복	201
20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현세적 구원	211
21 친절의 힘	223
22 빛과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233
23 “너희에게는 ……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247
24 위험한 시기에도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255
시각 자료 목록	266
색인	267



George Albert Smith



소개

제1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돋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되면서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 것이다. 이 총서에 포함된 책들은 개인 학습과 일요일 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에는 1945년 5월 21일부터 1951년 4월 4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개인 학습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들은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그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으로 가르치기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공부한다. 스미스 회장

소개

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은 더 진지하고 힘있게 가르칠 것이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친다면, 이 책을 제쳐 놓거나 다른 자료에서 공과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에서 선택한다. 어떤 장에는 공과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모든 가르침을 다루겠다는 의도 때문에 훌륭하게 진행되는 토론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반원들에게 공과 전에 본문을 공부하고 이 책을 공과 시간에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하면 반원들이 더 잘 준비하여 참여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이끌 것이다.

공과를 소개한다

장을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공과 시간 내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공과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가르침에 집중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노력 할 수 있다.

- 각 장 맨 앞에 나오는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 각 장에 나오는 사진이나 성구를 토론한다.
- 관련된 찬송가를 부른다.
- 주제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짤막하게 나눈다.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도록 이끈다

이 책을 가르칠 때 반원들이 생각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서로 가르치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은 활발하게 참여할 때 가장 잘 배운다. 이것은 또한 반원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돋는 길이다.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한다.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써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참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반원들을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도 좋다. 예를 들면, 반원들에게 부모 또

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어볼 수 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 제언을 고려해 본다.

- 반원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며 배운 내용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주중에 반원 두세 명에게 연락하여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면 도움이 된다.
- 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조로 나누어) 각 장 끝에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읽도록 지명한다. 본문에서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라고 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부탁한다.
- 본문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 일부를 골라 함께 읽는다. 반원들에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경전 구절이나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 반원들에게 흥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짹을 지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하게 한다.

토론을 마무리한다

신속하게 공과를 요약하거나 반원 한두 명에게 공과 요약을 부탁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격려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할 수도 있다.

이 책에 실린 인용 자료 안내

이 책에 실린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은 다양한 자료에서 직접 인용했다. 발췌한 내용은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편집 또는 인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문에 사용된 구두법, 철자,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는 미미하나마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문 *gospel*(복음)은 어떤 인용문에는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곳에는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소개

또한 스미스 회장은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he*(그), *his*(그의), 그리고 *him*(그를) 같은 대명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스미스 회장 시대에는 이런 어법이 통용되었다. 과거와 현재에 사용되는 언어 관습에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본서에 실린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게 스미스 회장의 일대기를 요약한다.

1870년 4월 4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존 헨리 스미스와 사라 파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나다.
1874~1875년	부친인 존 헨리 스미스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 부친이 떠날 당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네 살이었다.
1880년 10월 27일	존 헨리 스미스가 사도로 성임되다.
1882~1885년	존 헨리 스미스가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다.
1883년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열세 살 나이에 의류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다.
1888년	철도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다. 일하는 동안 눈에 영구적 손상을 입다.
1891년 9~11월	유타 주 남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청남 상호 향상회를 위해 봉사하다.
1892년 5월 25일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루시 에밀리 우드럽과 결혼하다.
1892~1894년	결혼 후 몇 주 되지 않아 미국 남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4개월 후 루시도 선교부에 합류하다.
1903년 10월 8일	조셉 애프 스미스 회장에게 사도 성임을 받다.

1904년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지침으로 11개 조항이 담긴 “개인 신조”를 작성하다.(본서 1~2쪽 참조)
1909~1912년	전강이 나빠져 심각하게 앓다.
1919~1921년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다.
1921~1935년	본부 청남 상호 향상회 회장으로 봉사하다.
1922년	미국독립혁명 전국 후계자협회[National Society of the So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부회장으로 선출되다. 1925년까지 이 직에서 봉사한 뒤 1944년과 1946년에 다시 이 직을 맡다.
1930년 9월	교회 유적지를 찾고 표지판을 남기기 위해 유타 개척자 유적 협회를 조직하는 데 관여하다. 이 조직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다.
1933년 7월 27일	시각 장애인 구호 협회[Society for the Aid of the Sightless] 유타 주 회장이 되다.
1934년 5월 31일	미국 보이스카우트 최고 영예인 실버 베팔로 상을 받다.
1935~1936년	점자 몰몬경 인쇄를 감독하다.
1937년 11월 5일	루시가 오랜 투병 끝에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다.
1938년 1월~7월	하와이, 사모아, 통가, 타히티,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에 있는 교회 선교부를 방문하다.
1943년 7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다.
1945년 5월 21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다.
1945년 9월 23일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을 현납하다.

1945년 11월 2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에 구호품을 보낼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미합중국 해리 에스 트루먼 대통령을 면담하다.
1946년 5월	교회 회장으로서는 최초로 멕시코 성도들을 방문하다. 마뉴엘 카마초 멕시코 대통령에게 몰몬경을 선물하다.
1947년 7월 24일	바로 이곳이다[This Is the Place] 기념비를 헌납하고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밸리 도착 100주년을 기념하다.
1947년	교회 회원수가 백만 명을 돌파하다.
1949년 9월 30일~10월 2일	텔레비전으로 처음 중계된 연차 대회에 참석하다.
1951년 4월 4일	81세 생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서거하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어느 날,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쪽지를 받았다. “이 사진에 우리가 아는 회장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보내 드립니다.” 그 사진에는 스미스 회장이 한 어머니와 어린 네 자녀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스미스 회장은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고 있던 중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악수를 해 보았으면 하고 바라던 이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이 그 장면을 사진에 담은 것이다.

이어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이 사진]을 아끼는 이유는 회장님처럼 바쁘신 분이 급하게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출발을 앞둔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시는 도중에도 짬을 내어 그 집 아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¹

이 경우처럼 친절한 행위는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와 성역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신앙 때문에 시련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는 일이든,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해 광범위한 복지 사업을 조직하는 일이든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는 구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어린 시절, 1870~1890년



네 살 무렵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1870년 4월 4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존 헨리 스미스와 사라 파 스미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에게는 하나님 왕국을 위해 봉사해 온 위대한 유산이 있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아버지는 훗날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조부이자 그에게 이름을 물려준 조지 에이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촌이었으며, 1847년 솔트레이크밸리로 들어온 첫 번째 후기 성도 개척자 중 한 사람이다. 또한 조지 애이 스미스는 사도이자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였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증조부인 존 스미스는 교회 축복사이자 솔트레이크시티 초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외조부인 로린 파는 유타주 옥든 시의 초대 시장이자 초대 스테이크 회장이었다.



존 헨리 스미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는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가르친 아버지를 신뢰했으며², 복음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칭송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몹시 가난했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다섯 살 때 선교 사업을 나가셨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불평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처지를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돈을 알뜰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선교 사업으로 집을 비우시자 어머니께서 그 자리를 맡으셨으며 부재중인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축복했으며, 복음에 관한 의식을 믿는 신앙이 깊으신 어머니께서는 누군가가 아프면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심일조를 철저하게 바치셨으며, 제가 아는 바로는 ‘몰몬이즘’이 잘못되었거나 참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온 영혼을 다해 믿으셨습니다.”³



사라 파 스미스 특히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가르친 일을 떠올렸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머니께 제가 받은 영향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계단을 따라 이층으로 올라가시던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끊고 어머니 손을 잡은 채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복음의 영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소망을 품은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



존 헨리 스미스와 사라 파 스미스의 자녀들, 왼쪽이 조지 앤버트 스미스

드립니다. 기도를 배운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자라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 목조로 된 이층집에서 살았는데, 세찬 바람이 불면 집은 무너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침대는 작은 방에 덩그러니 있었는데, 저는 밤 중에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끓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집을 보살펴 주셔서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보호 받으리라는 확신을 느끼며 작은 침대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매우 초라한 환경에 사셨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저를 그분들의 가정으로 보내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소년 시절에 이 사업이 주님의 일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 영감을 향유하기에 합당하도록 살아온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저는 제가 타고난 권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⁵

어린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행복하고 쾌활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친구들은 그의 명랑한 천성을 좋아했으며, 스미스는 하모니카, 밴조, 기타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노래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스미스는 강한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여러 경험을 했는데, 어린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특출한 일들이었다. 열두 살 때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권고를 들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훌륭한 교회 학교를 최초로 세운 뛰어난 교육자인 칼 지 매서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 그곳에 있는 동안 들은 말씀들 중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지만 단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매서 박사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책임질 것입니다.’

생각을 조절하는 습관이 제대로 배어 있지 않던 소년으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자 저는 그분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말씀에 담긴 철학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불현듯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생을 마치는 날이 오면 제 삶은 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물일 것이므로, 저는 제 생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조언 한 마디는 평생 저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었으며, 부적절한 생각을 피하는 데 여러 차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살이를 마치는 날을 맞았을 때 저라는 존재는 바로 제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⁶

1882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2년째 봉사하던 부친이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자 어린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가정에서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존 헨리 스미스가 없는 동안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도와야 했다. 열세 살 때 그는 교회 소유인 제조공장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지원했는데 관리자는 아무도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스미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받게 되리라고 믿었지요.”⁷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그는 주급 2달러 50센트를 받는 공장 노동자 자리를 얻었으며, 자신이 지닌 철저한 직업윤리 덕분에 곧 더 나은 자리로 승진했다.

18세 때,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철로 측량 회사에서 일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그는 모래사막에 내리쬐는 태양광선 때문에 눈에 부상을 입었다. 이 일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생겨 글을 읽기 어려웠으며 평생 불편을 겪었다.

선교 사업과 결혼, 1891~1894년

1891년 9월,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조지 앤버트 스미스에게 유타 주 남부에서 단기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그는 특별히 그 지역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넉 달 동안 동반자와 함께 스테이크와 와드 내에 청소년 조직을 세우는 일을 도왔으며, 여러 모임에서 말씀하고, 청소년들이 교회 표준에 따라 살도록 독려했다.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연모해 온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손녀인 루시 우드럽에게 구애를 계속했다. 두 사람은 이웃으로 성장했으며, 루시는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성품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루시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일지에 기록했다. “오늘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귀가했다. …… 나는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청년들 중 한 명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그의 사랑을 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그는 정말 선하고 친절해서 눈물이 난다.”⁸



루시 애밀리 우드럽 스미스

그러나 루시 주변에는 구애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부유해서 값비싼 선물을 주기도 했다. 반면에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루시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루시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이 돈을 위해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런 상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 전부터 제 자신과 제 삶과 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바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사는 그분 자녀들을 돋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⁹

루시는 마음을 정했고, 1892년 5월 25일에 유타 주 맨타이 성전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와 결혼했다. 인봉의식은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부친이 집행했다. 그날 루시는 자신의 사진을 담은 작은 사진 갑을 남편에게 주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그 사진 갑을 주머니 시계줄에 묶어서 짐장에 가까운 곳에 달고 다녔으며 온 생애 동안 거의 매일 지니고 다녔다.¹⁰

신혼부부가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또다시 선교 사업을 떠났다. 이번에는 미합중국 남부에서 전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부름장이 결혼 3주 전에 도착했기에 이미 출발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별은 여전히 힘들었다. 4개월이 된 무렵,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선교부 서기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루시 역시 남편과 함께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날아갈 듯 기뻐했다.

당시 남부 주 선교부 회장은 칠십인 정원회 일원이었던 제이 골든 킴볼이었다. 킴볼 회장은 스미스 장로가 봉사하는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두 차례나 선교부를 비워야 했다. 한 번은 스미스 장로가 선교부 서기가 된 직후였고, 다른 한 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다. 이 두 기간 동안 킴볼 회장은 스미스 장로에게 선교부를 이끌고 관



남부 주 선교부 선교사들. 신혼부부인 루시(왼쪽에서 세 번째)와 조지 엘버트 스미스(루시 옆에 앉은 사람)는 선교 본부에서 함께 봉사했다.

리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겼으며, 서신을 통해 술한 지원과 권고를 주었다. 합산하면 스미스 장로는 16개월 가량 선교부 회장 대리로 봉사했다. 그 토록 오랫동안 선교부를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킴볼 회장은 젊은 보조를 신뢰했다. 한 편지에서 킴볼 회장은 스미스 장로에게 이렇게 썼다. “분별력과 식견이 부족한 저이지만 장로님의 고결성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¹¹ 다른 편지에서 킴볼 회장은 이렇게 썼다. “제가 장로님의 수고와 열정과 선한 영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¹²

김볼 회장은 여러 차례 스미스 장로의 열정과 선한 영을 목격했다. 한번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작은 통나무집에서 하룻밤을 묵도록 초대받은 일이 있었다. 훗날 조지 엘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회상했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고함소리에 잠을 깼다. 상황을 살피려고 침대에 걸터앉자 천박한 말들이 들려왔다. 그날 밤에는 달빛이 환해서 바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킴볼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고 상스러운 말을 하며 몰몬은 나오라고 호통쳤다. 나오기만 하면 쏘아 죽일 심산이었다. 킴볼 회장님은 나에게 일어나서 옷을 입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싫습니다. 이대로 누워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방안에는 금세 총탄이 빗발쳤다. 폭도들은 네 무리로 나누어 집 모퉁이로 총을 쏘아 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무 파편 조각이 머리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사격이 가해지고 더욱 많은 파편이 날아다녔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무척 담담했으며, 내 생애 가장 무시무시한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믿었고, 그분은 그렇게 해 주셨다.

폭도들은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 보니 폭도들이 남부에 있는 선교사들을 혼내 주려고 사용하던 것과 같은 묵직한 나무 봉동이가 한 무더기나 있었다.”¹³

세월이 흐른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손자 손녀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칠 때 이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너희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구나. 주님께서는 위험이 닥칠 때 너희를 돌보아 주실 거란다. 너희가 주님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말이야.”¹⁴

가정생활

1894년 6월, 조지 앤버트 스미스와 루시는 선교 사업에서 해임되었다. 몇 달 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루시는 할아버지인 윌포드 우드럽 회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자녀를 갖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1895년 11월 19일, 루시는 에밀리라 이름 지은 딸을 낳았으며, 4년 후에는 둘째 딸 에디스를 낳았다. 막내인 조지 앤버트 이세는 1905년에 태어났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으며, 자녀들은 그를 흡모했다. 에디스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딸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든 품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모든 점을 채워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 감동을 받았다. 에디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께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두 분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 힘을 모아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 우리는 모두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려 깊고 다정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¹⁵

아버지로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자신이 복음에 따라 살 때 느끼는 기쁨을 자녀들도 경험하도록 돋기 위해 성심을 다했다. 어느 성탄절, 선물을 풀어 본 다음에 그는 어린 딸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난감 중 일부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딸들은 방금 새 장난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다정하게 “새 장난감도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겠니?” 하고 한 번 더 물었다.

딸들은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새 장난감 한두 개를 주기로 동의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마음에 두고 있던 아이들 집으로 딸들을 데려 가서 선물을 전했다. 그 경험으로 딸들은 한껏 고무되었고, 한 아이는 그곳을 나서며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얼른 나머지 장난감도 가져 와서 아이들한테 나눠 줘요!”¹⁶

십이사도 정원회, 1903~1945년

1903년 10월 6일 화요일,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 날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무실을 떠날 무렵에는 오후 총회 모임이 거의 끝나갈 때여서 그는 아이들을 박람회에 데려 갈 요량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당도하자 그는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따스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그가 묻자



1921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서 있는 사람: 조셉 필딩 스미스, 제임스 이 탈매지, 스티븐 엘리자즈, 리차드 알 라이먼, 멜빈 제이 벨라드, 존 에이 윗소.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앉은 사람: 루저 클로슨, 리드 스무트, 조지 앤버트 스미스, 조지 에프 리차즈, 올슨 에프 휘트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모르세요?” 하고 그 자매가 대답했다.

“무얼 모른단 말이죠?”

“형제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받으셨어요.” 방문객이 목청을 높이며 말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그럴 리가 없어요. 무언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자매가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하고 되받아 말했고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틀림없이 다른 스미스 형제 일 겁니다. 그 일에 대해 저는 한 마디도 들은 게 없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진 그 방문객은 혹 잘못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태버내클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 자매는 자신이 옳았으며,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¹⁷

딸 에밀리는 훗날 당시 광경을 이렇게 회상했다. “마치 태버내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께 입맞춤을 하며 아버지께서 사도가 되셨다고 말하길래,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확인한 뒤에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약속대로 딸들을 박람회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박람회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는 이렇게 회상했다. “벽 쪽에 서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시간을 다 보내셨거든요.”¹⁸

이틀 후인 1903년 10월 8일,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위층 어느 방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조지 앤버트 스미스를 사도로 성임했다. 의식을 마친 후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소감을 말해 달라는 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연륜이 쌓인 분들에 비해 연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바른 마음을 지녔으며 주님의 일을 진척하기를 열렬히 소망합니다. …… 제게는 이 사업이 신성하다는 살아 있는 간증이 있으며, 복음이 주님의 지시와 인도로 이 땅에 주어졌고, 과거와 현재에 감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순수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여 온 생애 동안 영으로부터 오는 속삭임과 권고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¹⁹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한 2년을 포함하여 거의 42년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이 기간에 그는 여러 임무를 수행했으며 수많은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축복했다.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 친구를 사귀다

스미스 장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지역 사업가 한 명은 스미스 장로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하고 싶어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건네는 친절한 웃음, 다정한 악수, 따스한 인사는 여러분과 이웃을 향한 그분의 진실한 우정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²⁰

교회가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의심을 받던 시기에 이런 재능은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한번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스미스는 시 공무원들이 몰몬이즘을 전파하는 사람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스미스 장로는 담당자인 잉글 씨를 만났다. 훗날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일지에 이렇게 썼다. “처음 잉글 씨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매우 날이 서 있었으며 그 도시에서는 우리를 받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 나는 그에게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하며,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 우리는 잠시 몰몬이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떠나기 전, 그는 눈에 띌 정도로 누그러지더니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건넸다. 나는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느끼며 자리를 떠났다.”²¹ 사흘 후 스미스 장로는 다시 잉글 씨를 만났으며 이번에는 몰몬경 한 권을 전달했다.²²

스미스 장로는 언제나 사람들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모색했다. 임무를 받고 여행을 떠날 때면 사람들에게 줄 몰몬경과 교회 잡지와 여러 교회 서적을 챙겼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스미스 장로는 몰몬경이 이상적인 성탄절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며, 몰몬경을 종교가 다른 친구들뿐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명인사들에게도 보냈다.²³ 그런 성탄절 선물과 함께 보낸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며칠 후면 기독교계에서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올 거야, 이 절기에는 친구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기도 하지. 나는 자네가 이 몰몬경을 받아 줄 것이라 믿네. …… 자네가 이 책을 기쁜 마음으로 서재에 비치해 두리라 믿으며 성탄절 선물로 보낸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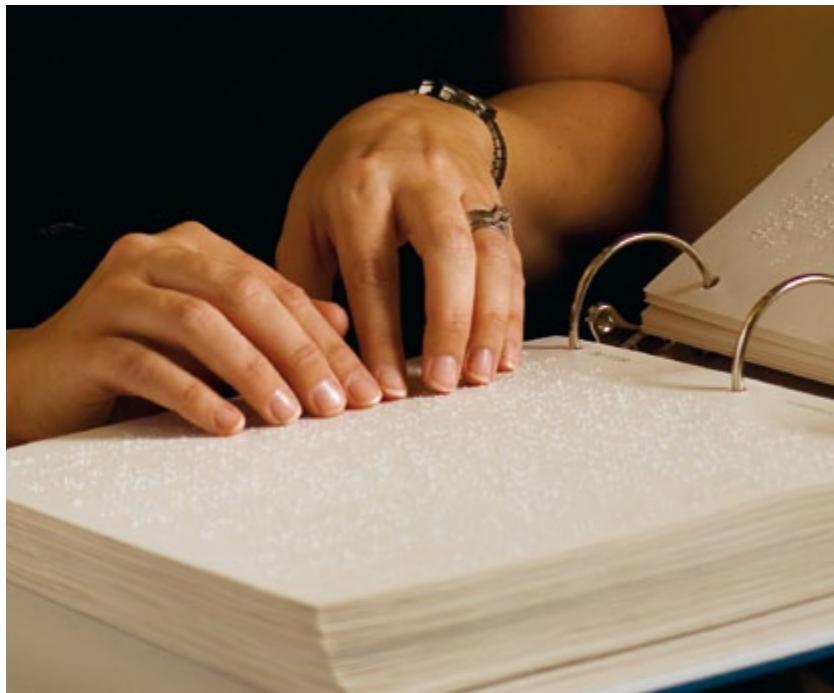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다. “나는 그 책을 선반 위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읽어 볼 셈이네. 그 책을 신중하게 읽어 본다면 누구라도 시야를 넓히고 관용 정신을 키울 수 있겠지.”²⁴

시정 참여

스미스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격려했다. 스미스 장로 자신도 총관리 역원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도 여러 시 조직에 관여했다. 그는 국제 관개 회의[International Irrigation Congress] 및 건조 농업 회의[Dry Farming Congress]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독립혁명 전국 후계자 협회[National Society of the So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부회장직에 여섯 번이나 선출되었다. 스미스 장로는 여러 곳을 방문하는 총관리 역원의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용할 항공 산업을 열렬히 지지했고, 웨스턴항공[Western Air Lines]에서 중역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보이스카우트[Boy Scouts of America]에도 적극 관여하여 1934년에는 스카우트에서 주는 최고 영예인 실버 베팔로상을 수상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 그는 아르메니아 및 시리아 구호 운동 유태주 의장으로 봉사했으며,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찾아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주택총회[International Housing Convention] 주 대표를 역임했다.²⁵

사도로 부름 받기 전에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정치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의나 후보를 위해 열성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총관리 역원이 된 후 정치 참여는 줄어들었지만 자신이 믿는 대의를 옹호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한 예로, 1923년에 그는 유태주 입법부에 한 가지 법안을 제출하는 일을 도왔는데 이 일을 계기로 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 건립되었다.²⁶

특히 스미스 장로는 1933년부터 1949년까지 맹인구호협회[Society for the Aid of the Sightless]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타인에 대한 크나큰 동정심을 발휘했다. 시각장애로 고통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스미스 장로는 맹인에 대해 특별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점자로 된 몰몬경 출판을 총괄했으며 맹인들이 점자를 배우고 여러 방법으로 장애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미스 장로가 펼친 봉사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노고를 높이 샀다. 맹인구호협회에 속한 한 여성 회원은 스미스 장로의 70번째 생일에,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헌시에 담았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 장로는 짐자로 된 몰몬경 출판을 총괄했다.

인생에 거센 폭풍 몰아치고,
쓰라린 눈물 떨굴 때.
고독한 겨울에 내 영혼이 애이고,
공허한 메아리 울릴 때—
나는 간절한 소망으로 발길을 돌린다,
느리고 힘겨운 걸음,
이해하는 가슴 찾아,
친절한 불꽃 피어 있고
온화한 지혜 거하는 곳으로,
상냥하고 친절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그 믿음은
눈면 이에게도 향하니.

온화하고 사랑이 깃든 그 얼굴
바라볼 수는 없어도,
친절한 지혜는 볼 수 있지
이해심 깊은 그 가슴에서.
그 영혼에 실린 평화를 느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스민다.
그가 드리는 고요한 기도 소리
우린 혼자가 아니라 말하지.
우리 향한 그의 믿음에 힘을 얻는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끌어올리는 사람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서.²⁷

질병과 여러 시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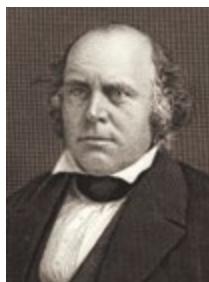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온 생애 동안 대체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수영과 승마, 기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즐겼지만 몸이 허약했고 가끔은 기력이 없었다. 만성적인 시력장애 외에도 스미스 장로는 위장병과 요통, 만성 피로, 심장병과 다른 여러 질병으로 늘 고생했다. 여러 책임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또한 건강에 타격을 주었지만, 처음부터 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업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내켜 하지 않았다. 결국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1909년부터 1912년까지 지독한 병마와 싸우느라 병석에 누워 지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소임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업무에 복귀하기를 필사적으로 바란 스미스 장로에게 이 기간은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다. 1911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생하면서 스미스 장로는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세월이 흐른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이 시기에 겪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수년 전 저는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를 포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는 너무 쇠약해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돌아누울 때조차 천천히 움직이며 숨을 혁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변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마치 저 세상에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고 멋진 호수를 등진 채 거대한 나무 숲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호수에는 제가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줄 만한 배나 다른 운송수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필멸의 기간 동안 할 일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다가 곧 숲으로 통하는 오솔길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은 듯 대부분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숲 속으로 얼마 동안 꽤 멀리 걸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체구가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둘러 그분께로 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할아버지인 [조지 에이 스미스]임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분은 체중이 136킬로그램이 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구셨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 성함을 따서 지어졌는데 저는 그 이름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할아버지께서는 몇 발자국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멈추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소년 소녀와 젊은이들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제가 한 모든 일이 활동사진처럼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있던 그 순간 생생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온 생애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존함으로 할아버지께서 수치스럽게 여기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팔로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의식이 돌아왔고 주변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없이 답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에 흘린 눈물로 베개는 물을 쏟은 듯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여러 차례 되새겨보았으며,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애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청남 청녀들과 교회와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명예롭게 하십시오.”²⁸

마침내 스미스 장로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음을 새롭게 감사드리며 이 고난에서 벗어났다. 그는 곧이어 개최된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 근처에 가 있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간증이 희미해진 적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 세상에 가까워질수록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남게 된 지금, 복음이 참됨을 안다고 간증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며 그 사실을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 온 영혼을 다해 감사드립니다.”²⁹

스미스 장로는 이후에도 몇 년에 걸쳐 여러 가지 신체 질환과 역경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마도 가장 힘든 시절은 1932년부터 1937년 사이에 아내 루시가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때였을 것이다. 루시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1937년이 되자 곁에서 항상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37년 4월에는 심장마비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그 일로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루시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았지만 스미스 장로는 자신이 맡은 소임에 계속 최선을 다했다. 1937년 11월 5일, 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씀한 후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는 쪽지를 전했다. 훗날 그는 일지에 이렇게 썼다. “장례식장을 떠나 한걸음에 달려갔으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장례식에서 말씀하는 동안 아내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헌신적인 배우자를 잃었으며, 이제 아내가 없어 외로울 것이다.”

루시와 조지 앤더스 스미스는 루시가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했다. 스미스 장로는 아내를 무척 그리워했지만 이별은 잠시뿐임을 알았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 너무나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가 충실하다면 루시와 재회할 수 있

다는 확신으로 위안을 얻었다. 루시는 헌신적인 조력자요, 사려 깊은 아내 이자 어머니였다. 어찌됐건 루시는 6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며, 나는 루시가 저 세상에서 먼저 가신 어머니와 정들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리라 믿는다. …… 주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시며, 죽음에 따른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셨다. 나는 이 점에 대해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유럽 선교부 회장

1919년,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지 얼마 안 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스미스 장로에게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직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약한 상태에 있던 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볼 때 제가 외국 땅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여길 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아니, 영예를 뛰어넘는 커다란 축복으로 여깁니다. ……

…… 다음 수요일이면 저는 기차를 타고 동부 해안가로 가서 대양을 건너 부름 받은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며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제 영혼에 자리 잡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³¹

당시 유럽은 몇 달 전에 종결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아직 복구 중인 상태였다. 전쟁으로 유럽 내 선교사 수는 얼마 되지 않았고, 스미스 장로가 맡은 소임 중 하나는 선교사 수를 늘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종전 후 경직된 유럽 경제 상황 때문에 정부는 선교사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꺼렸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후기 성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이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미스 장로는 수많은 정부 관리와 저명인사들을 만났다. 유럽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훌륭한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신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더해 주고 만족을 늘려 줄 무언가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십시오.”³² 스미스 회장 밑에서 봉사한 한 선교사는 이렇게 전했다. “회장님은 능수능란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우의를 구하여 선교사에 대해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양해를 얻어내셨습니다.”³³

임기 마지막 해인 1921년까지 스미스 장로는 유럽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수를 늘리고 후기 성도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그 후로도 수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했다.

교회 사적 보존

스미스 장로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회 역사상 위대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스미스 장로는 성역을 수행하는 내내 교회의 역사 유적지에 기념비나 표지판을 세워 역사를 보존하는 일에 기여했다. 스미스 장로의 동료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조상이 이룬 업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한다고 믿었습니다.”³⁴

젊은 사도로서 스미스 장로는 뉴욕 주 팔마이라에 가서 조셉 스미스 일 세의 농장을 교회 명의로 구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그는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았던 쿠모라 산 소유자인 플리니 섹스톤이라는 사람도 방문했다. 섹스톤 씨는 교회에 그 땅을 팔 의향이 없었음에도 스미스 장로와 친구가 되었다. 교회가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념비를 현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섹스톤 씨와 좋은 교분을 유지한 스미스 장로의 공이 컸다.

교회가 조직된 지 100주년이 된 1930년, 스미스 장로는 유타 개척자 유적 협회 설립을 도왔으며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협회는 100개가 넘는 기념비와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중 상당수는 솔트레이크밸리로 들어온 개척자들이 걸은 길을 기리는 것이었다. 스미스 장로는 기념비 현납식 대부분을 주관했다.³⁵

교회가 역사 유적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며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념비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집니다. 또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위대한 사건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영구히 자리 잡습니다. …… 세상에는 잊혀지는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적지들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후손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³⁶

개척자들과 함께 걸어서 유타로 들어간 할아버지를 둔 스미스 장로는 신앙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초창기 교회 회원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금관을 전해 준 쿠모라 산에 있는 기념비

느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말씀하는 한 모임에서 스미스 장로는 손수레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마틴 손수레 부대에 속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야영한 곳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부대 후손들이 표지판을 세우는 일을 돋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일 년 전에 임시 표지판을 세워 두었던 록 크릭에 도착했습니다. 유독 그때는 야생 봇꽃 같은 예쁜 야생화들이 지천에 피어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 꽃들을 모아 지난해에 쌓아 두었던 돌무더기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 이곳에는 배고픔과 추위로 목숨을 잃은 교회 회원 15명이 한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때와 장소에 있게 됩니다. 텔 듯 뜨거운 여름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뚫고 평원을 건너 개척자들의 후손인 우리는 월리 손수레 부대가 재난을 당한 록 크릭의 작

은 계곡에서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아 선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가 되풀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가 복음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듯했습니다.

삼사십 명 되는 우리 중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길을 가는 동안 그 조촐한 모임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는 가슴에 영을 느꼈으며, 그중 한 훌륭한 자매님은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스 형제님,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이 되렵니다.’ 이 자매님은 가장 훌륭한 여성 중 한 분이시지만, 저는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분께서는 우리 영혼이 도달해야 할 이상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화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묻히신 분들은 이 사업이 신성하다는 믿음을 증거하려고 살아갈 시간뿐 아니라 생명 자체를 바치셨습니다. ……

이 조직[상호부조회]에 속한 회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려움에 맞선 그분들, 이 평원에 묻혀 누워 계시는 이분들처럼 충실하다면 더 많은 업적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깃들 것입니다.”³⁷

교회 회장, 1945~1951년

1945년 5월 15일 새벽, 미 동부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스미스 장로는 철도 승무원이 전한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깼다. 그것은 당시 교회 회장이던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별세했다는 내용이었다. 스미스 장로는 속히 기차를 갈아타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갔다. 며칠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 선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8대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교회 회장이 된 뒤 열린 첫 번째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방금 자신을 지지해 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앞에 선 저만큼 자신을 연약하고 미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³⁸ 그는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말로 소감을 말했다. “나는 이 자리를 바라지 않았단다. 내가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스미스 회장과 그의 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왼쪽)와 데이비드 오 맥케이(오른쪽)

없단다. 하지만 이 자리가 내게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 수행할 거란다. 너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것은 [가정 복음] 교육에서부터 스테이크를 감리하는 일까지 너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 최선을 다한다면 너희 부름은 내 부름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³⁹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 회장이 이 부름에 꼭 맞는 재능을 지녔다고 느꼈다. 한 총관리 역원은 스미스 회장이 지지받고 얼마 후 이러한 확신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람들은 종종 주님께서 특정한 소명을 수행할 특정한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조지 앤더슨 스미스 회장님 앞에 어떤 특정한 소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이 점만은 확실히 압니다. 세계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만큼 형제들 사이에 사랑이 절실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조지 앤더슨 스미스 회장님만큼 인류 가족을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심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압니다.”⁴⁰

제2차 세계 대전 여파로 궁핍해진 사람들을 돋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교회 회장이 된 지 몇 달 안 되어 끝이 났다. 전쟁으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고 궁핍해 졌으며, 스미스 회장은 도움을 주기 위해 교회 복지 자원을 신속하게 가동했다.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 복지 광장에서 여러 날 동안 기차에 물자를 싣는 일을 도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식량은 항구로 운송되었고 그곳에서 바다 건너로 수송되었습니다. [1955년] 스위스 성전 현납식이 열리는 동안 독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성전에 왔는데 저는 그 중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삶을 연명하게 해 준 그 식량을 보내준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⁴¹

또한 스미스 회장은 전쟁이 남긴 황폐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크게 굽주려 있음을 알았다. 이에 응하고자 그는 전쟁으로 선교 사업이 중단된 나라에서 선교부를 재조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평화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북돋았다. 스미스 회장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 시기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슬픔에 찬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배려가 담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잊지 맙시다. 평화를 기뻐할 때에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잊은 사람들을 잊지 맙시다. ……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에 순종하여 분쟁과 파괴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 깃들기를 간구합니다.”⁴²

복음을 나눌 기회가 늘어나다

스미스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 했는데, 교회 회장이 되자 복음을 나눌 기회는 더 많아졌다. 1946년 5월,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 성도들을 방문했다. 회원들을 만나고 큰 대회에서 말씀하는 일 외에도 스미스 회장은 멕시코

고위관리들을 방문하고 회복된 복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뉴엘 카마초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하는 동안 스미스 회장 일행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대통령 각하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알려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약속의 땅, 다른 땅보다 뛰어난 땅’으로 알려진 이 위대한 미대륙에 온 훌륭한 선지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몰몬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륙을 방문하시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열두 제자를 택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후기 성도에 대해 경의와 찬사를 표한 카마초 대통령은 몰몬경에 대해 큰 호기심을 느끼고 이렇게 물었다. “몰몬경을 한 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에 대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미스 회장은 특별히 관심 있을 만한 구절 목록을 맨 앞에 첨부한 뒤 스페인어로 된 가죽 양장본 몰몬경을 건넸다. 카마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책 전체를 읽어 볼 것입니다. 이 책은 저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⁴³

개척자 도착 백 주년을 기념하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6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1947년, 교회가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밸리 도착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스미스 회장은 국민 전체가 주목한 기념행사를 감리했다. 이 행사는 개척자들이 최초로 도착한 계곡 근처에 세워진 기념비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This Is the Place] 기념비를 현납하면서 막을 내렸다. 1930년 이래로 스미스 회장은 개척자들이 남긴 업적과 신앙을 기리는 기념사업 계획에 관여했다. 그러나 그는 기념비가 초기 탐험가와 타 종파 선교사와 그 시대에 살았던 주요 아메리카 인디언 지도자들까지 기릴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This Is the Place] 기념비 현납식에 참석한 당시 동부 주 선교부 회장 조지 큐 모리스는 친선의 영이 임재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그 공을 스미스 회장에게 돌렸다. “스미스 회장님의 형제애와 관용을 위해 기울이신 노고가 현납식에 반영되었습니다. …… 기념비에는 인종이나 종교를 떠나 몰몬 개척자들에 앞서 서부 산간 지역에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의 조각상이 가능한 한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새겨졌습니다. 현



1947년에 스미스 회장은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밸리 도착을 기념하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This Is the Place*] 기념비를 현납하였다.

납식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스미스 회장님은 주, 카운티, 시 관리들과 더불어 모든 주요 종교 단체를 참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주요 연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유대교 랍비도 포함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부에서 온 한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보여진 관용 정신은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⁴⁴

높이가 18미터에 이르는 기념비도 인상 깊었지만 스미스 회장은 개척자들이 보여준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그들을 기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기념비 현납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 저희는 오늘 아침 이 고요한 산비탈에서 아버지께 나아와 아버지의 아들딸과 그들이 바친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 위대한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기를 바랐기에 이 계곡에 왔던 그

충실한 자들이 지녔던 똑같은 영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슴속에 예배와 감사의 영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⁴⁵

80세 때 인생을 회고하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대부분 동안 과거에 자신을 구속했던 육체적 병고 없이 회장직을 수행해냈다. 1950년 4 월, 80번째 생일 즈음에 발간된 기사에서 스미스 회장은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언급했다.

“80년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상을 다니며 사백만 리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과 여러 땅과 여러 나라를 가 보았으며, 교회 회원과 비회원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귀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 이 위대한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 받기에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고, 평생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만날 수 있었던 국내외 수많은 훌륭한 분들에게서 격려와 동료애를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봉사해 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했다.

“그런 분들과 교분을 나눈 것은 참으로 축복이며,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제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 온 영혼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의 평균 수명 이상으로 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순리에 따라 저세상에서 저를 부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합니다. 팔십 평생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받아 조직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한 신권과 똑같은 권능과 권세로 운영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이 사실을 알며, 이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저는 이 일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분 앞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을 향한 제 마음속 사랑과 친절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⁴⁶

일년 후, 81번째 생일인 1951년 4월 4일에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자택에서 아들과 딸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단순한 봉사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81년 생애 동안 교회와 지역 사회와 세계 전역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스미스 회장에 대한 기억으로 친절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단순하고 겸손한 행동들을 손꼽았다. 스미스 회장 장례식을 주관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은 진실로 고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가장 행복해하셨습니다.”⁴⁷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중대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경험한 일을 회상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님의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네와 자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각났다네. 위안과 축복이 될까 해서 왔지.’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 저는 결코 그 일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헤어졌고, 그분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 마음은 고양되었으며 더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이란 …… 단지 말이나 마음속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이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스미스 회장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⁴⁸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스미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자 스미스 회장과 가까운 친구였던 매튜 카울리 장로는 장례식에서 이런 헌사를 남겼다.

“고통 속에 있거나 질병이나 다른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오면 덕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서면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이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녔던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짧은 여행은 그가 방금 시작한 이 여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사랑입니다. 그는 경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분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말로써만 기릴 수는 없습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덕과 부드러운 성품, 그의 위대한 성품인 사랑을 기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

서로를 더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배려하고 서로의 감정에 관대해집시다.”⁴⁹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사랑에 찬 봉사로 일군 그의 삶을 적절하게 함축한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전파했으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서 비범했다. 친절하고 인내심 많고 지혜로우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선을 행했고 유타와 미국을 사랑했으나 편협하지 않았다.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에 힘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었다. 교회와 가족에 대한 끝없는 애정으로 그들을 열렬히 섬겼다. 이뿐 아니라 인종, 종교,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

1. D. Arthur Haycock, “A Day with the President”, *Improvement Era*, Apr. 1950, 288.
2.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Deseret News*, Feb. 16, 1946, Church section, 6 참조.
3. “Mothers of Our Leaders”, *Relief Society Magazine*, June 1919, 313 – 14.
4.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7 – 8.
5. “After Eighty Years”, *Improvement Era*, Apr. 1950, 263.
6.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1.
7. Merlo J. Pusey, *Builders of the Kingdom* (1981), 209.
8. Lucy Woodruff’s journal, Feb. 5, 1888,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138, book 1.
9. Emily Stewart Smith, “Some Notes about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 May 1948,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5, page 3.
10. Emily Stewart Smith, “Some Notes about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 5 참조.
11. J. Golden Kimball, letter dated Mar. 18, 1893,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2, folder 12.
12. J. Golden Kimball, letter dated June 30, 1893,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2, folder 15.
13. “How My Life Was Preserved”,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121, scrapbook 1, pages 43 – 44.
14. “How My Life Was Preserved”, 43.
15. Edith Smith Elliott, “No Wonder We Love Him”, *Relief Society Magazine*, June 1953, 366, 368.
16. *Builders of the Kingdom*, 240 참조.
17. *Builders of the Kingdom*, 224 – 25 참조.
18. Emily Smith Stewart, in “Pres. Smith Mementos At Y.” *Deseret News*, Oct. 14, 1967, Church section, 6 – 7.
19.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100, folder 23, page 11.
20. John F. Fitzpatrick,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72.
21. George Albert Smith’s journal, Oct. 27, 1906,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3, book 3, page 70.
22. George Albert Smith’s journal, Oct. 30, 1906,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3, book 3, page 72 참조.
23. Francis M. Gibbons, George Albert Smith: Kind and Caring Christian, Prophet of God (1990), 208 – 9 참조.
24. Glenn R. Stubbs, “A Biography of George Albert Smith, 1870 to 1951” (PhD diss., Brigham Young University, 1974), 295.
25. Bryant S. Hinckley, “Greatness in Men:

- Superintendent George Albert Smith”, *Improvement Era*, Mar. 1932, 270, 271 참조.
26. “A Biography of George Albert Smith”, 283 참조.
27. Irene Jones, “The Understanding Heart”, *Improvement Era*, July 1940, 423.
28. “Your Good Name”, *Improvement Era*, Mar. 1947, 139.
29. Conference Report, Oct. 1921, 42.
30. George Albert Smith’s journal, Nov. 5, 1937,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4, book 11, pages 83–84.
31. Conference Report, June 1919, 42, 44.
32. Conference Report, Oct. 1950, 8.
33. James Gunn McKay, in “A Biography of George Albert Smith”, 141.
34. George Q. Morris, “Perpetuating Our Ideals through Markers and Monuments”, *Improvement Era*, Apr. 1950, 284.
35. “Markers and Monuments”, 284 참조.
36. Letter to Leslie O. Loveridge, Mar. 15, 1937,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67, folder 25.
37.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5–6.
38. Conference Report, Oct. 1945, 18.
39. *Builders of the Kingdom*, 315–16.
40. Joseph F. Smith, in Conference Report, Oct. 1945, 31–32; 조셉 애프 스미스는 교회 축복사였으며, 제6대 교회 회장이었던 조셉 애프 스미스 회장의 손자다.
41. 고든 비 힙클리, 성도의 복, 1992년 4월호, 52쪽.
42. “Some Thoughts on War, and Sorrow, and Peace”, *Improvement Era*, Sept. 1945, 501.
43. Arwell L. Pierce,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12–13 참조.
44. “Markers and Monuments”, 284–85.
45. “Dedicatory Prayer”, *Improvement Era*, Sept. 1947, 571.
46. “After Eighty Years”, 263–64.
47.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3.
48. John A. Widtsoe,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99.
49. Matthew Cowl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68–69.



믿는 바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우리 종교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34세 때 스스로 “개인 신조”라 부른 결심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에는 그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로 마음 먹은 열한 가지 결심이 담겨 있다.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려 힘쓰는 데에서 기쁨을 찾겠다.

나는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나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갖도록 그들을 격려하겠다.

나는 진리를 가르쳐 온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고 축복을 받게 하겠다.

나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찾아 의롭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겠다.

나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 이상에 끼워 맞춰 살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대중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헤쳐 나가도록 그들을 도와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

나는 높은 지위로 세인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피하며 친구들이 경솔하게 아첨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친절을 베풀어 친구가 되도록 힘쓰겠다.

나는 이기심과 시기심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이루는 성공을 기뻐하겠다.

나는 살아 있는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겠다.

인류의 구속주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현세와 내세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유일한 계획을 세상에 주신 것을 알기에 나는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일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된 특권이라고 느낀다.”¹ [9쪽 제언 1 참조]

스미스 회장의 지인들은 그가 참으로 자신의 신조를 지키며 살았다고 말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있었던 한 경험을 들려주며, 스미스 회장이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나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갖도록 그들은 격려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집을 떠나] 보잘것없는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회장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특히 제 어린 딸이 죽음의 문턱 앞에 누워 있던 그 적막한 밤에 찾아와 주셨던 일에 감사드립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시간을 내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주셨으며, 오랜 시간 동안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어린 딸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온전히 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도울 시간, 특히 병자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돋고자 시간을 내셨습니다.”²

스펜서 더블유 킴볼은 스미스 회장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겠다는 굳은 신념을 실천한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스미스 회장님은] 누군가가 그분의 낡은 자동차에서 옷을 훔쳐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화를 내기는커녕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추위에 떨고 굶주렸을 그 사람에게 담요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텐데.’”³

또 다른 사람은 조지 앤더슨 스미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종교는 저온 창고에 고이 보관된 교리가 아니다. 그의 종교는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종교는 그저 감탄하며 바라볼 아름다운 계획보다 더 큰 것으로서 인생 철학 이상의 것이다. 실천을 중시하는 그에게 종교는 사람의 삶과 행동에 깃든 일이다. 비록 그것이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그에게 종교는 행위를 통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빛은 일상 속 세밀한 부분에까지 두루 미쳐야 한다.”⁴

제일회장단에서 스미스 회장의 보좌로 봉사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스미스 회장이 지닌 고결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다. “회장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생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⁵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교회 회원이라는 신분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성도라 불릴 자격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예배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곧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분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뜻합니다.⁶

우리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혹은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름이 교회 기록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도라 불리기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에 나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 특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혈통에 따라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요한복음 8:33~39 참조] 저는 우리가 후기 성도라 불리기에 합당하다면 이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방식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후기 성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대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에 참으로 오랫동안 대적에게 속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됩니다. 그러한 말은 단지 대적이 만든 속임수일 뿐입니다.⁷[9쪽 제언 2 참조]

이른바 “몰몬이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따라서 그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누가복음 6:46 참조]⁸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
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
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우리 가운데 아버지 뜻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존귀한 위상을 닮아 가고자 매일같이 그러한 기초를 닦고 세우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곧 성전이니라. 어떠한 성전이든지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교리와 성약 93:35]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예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후기 성도는 전세에 대한 지식, 곧 우리가 첫째 지체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으며, 둘째 지체를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는다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더 큰 기회에 걸맞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받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속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행한다면 영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입니다.⁹

여태껏 해 온 것보다 더 잘 하도록 합시다. 허울만이 아니라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구주께서 주신 가르침이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특히 이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기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뚫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태복음 22:1~3, 11~14 참조] ……

이 비유에는 혼인 잔치에 온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임금, 즉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다. 보아 하니 그는 예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가 무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아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은 채로 왔습니다. 누구나 잔치에 초대받았기에 그도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복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왜 그런 상태로 그곳에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대적은 준비 따위는 필요 없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믿도록 속여 왔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함께하던 이들에게 주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욱 귀중한 은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 이름은 부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 그들은 주님을 잊었으며, 주님께서 초대하신 잔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면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널리 퍼트려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기록에 이름이 있다 해도 해의 왕국에 자리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그 왕국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거할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때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제시하셨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축복을 두셨는데,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주님께서 제시하신 축복을 거절한 사람에게 오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¹¹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왕국에서 자리를 얻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악에 대해 언급하시며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31 참조] 교회에 속한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 복음과 영생을 얻는 기본 원칙을 소홀히 해도 원하는 자리를 얻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은 삼키기 힘든 약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정하십니다. 어떠한 축복을 바란다면 그 축복을 받을 유일한 길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¹² [9쪽 제언 3 참조]

**우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으로 증명될 것이다.**

작년에 저는 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교회 회원이 아닌 몇 분과 만나 복음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곳에서 20년을 사셨는데, 흄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시민이자 뛰어난 사업가였고, 교회 회원들에게도 우호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20년간 살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이웃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좋은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발전해야 할 만큼 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웃이 수년간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의무를 수행합니까?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기신 일을 합니까? 어깨에 놓인 책임을 느낍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 당연히 죄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며 안일하게 시류에 편승하여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는 않습니까?¹³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있다면 …… 이곳에서 행한 선행으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불리는[베드로전서 2:9 참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수준에 이른다면[교리와 성약 84:44 참조] 우리는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구속주께서 주신 간증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충실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영이 함께하기를, 선을 행하겠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놓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마태복음 5:16 참조]¹⁴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해야 할 만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서 더 잘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만큼 하고 있다면,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있다면,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행한 선행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며,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도록 주신 일을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믿는 우리 신앙을 드러냅시다. 결국 그것만이 이 사업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¹⁵ [9쪽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미스 회장의 신조(1~2쪽)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싶은 이상이나 원리를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개인 일지에 적는다.
2. 3쪽의 소제목 아래에 있는 처음 네 문단 전체를 읽는다.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3. 5쪽의 소제목 아래에 있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또한 마태복음 22:1~14 참조) 예를 들면, 혼인 잔치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갖추어야”(6쪽)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4. 본 장에 실린 마지막 문단(9쪽)을 읽고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본다. 그 사람의 간증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여러분의 간증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7:16~23; 야고보서 1:22~25; 2:15~18; 요한1서 2:3~6;
모로나이서 7:3~5; 교리와 성약 41:5

교사를 위한 도움말: “경전 및 후기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돋기 위해 교회에서는 공과 책과 기타 자료를 발행했다. 논평이나 기타 참조문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년], 52쪽)

주

1.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s Creed”, *Improvement Era*, Apr. 1950, 262.
2.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Apr. 1951, 46.
3. 스펠서 더블유 캠볼, 용서가 낳는 기적(1975년), 257쪽.
4. Bryant S. Hinckley, “Greatness in Men: Superintendent George Albert Smith”, *Improvement Era*, Mar. 1932, 270.
5. J. Reuben Clark Jr., in Doyle L. Green, “Tributes Paid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 *Improvement Era*, June 1951, 405.
6. Conference Report, Apr. 1949, 8.
7. “The Church with Divine Authority”, *Deseret News*, Sept. 28, 1946, Church section, 1, 6.
8. Conference Report, Apr. 1913, 28 – 29.
9. Conference Report, Oct. 1906, 47.
10. Conference Report, Apr. 1941, 27.
11. Conference Report, Oct. 1930, 66 – 68.
12. Seventies and stake missionary conference, Oct. 4, 1941, 6.
13. Conference Report, Oct. 1916, 49.
14. “Some Points of ‘Peculiarity’”, *Improvement Era*, Mar. 1949, 137.
15. Conference Report, Apr. 1914, 13.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다가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입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으로 잘 알려졌다. 제일회장단에서 스미스 회장을 보좌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스미스 회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의 실제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 회장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셨습니다. 만나 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분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¹

사람들을 향한 스미스 회장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서로 형제 자매라는 분명한 확신에서 자라났다. 생을 다할 무렵에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알기에 저와 원한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저는 세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평생 인류의 구속주께서 주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현명한 권고를 지키려 힘써 왔습니다. ……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²

스미스 회장은 수많은 온정 어린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스미스 회장을 지켜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스미스 회장님은 아프거나 낙담해 있거나, 따뜻한 격려가 절실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위안과 축복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전후에 병원 협관을 지나 병실을 돌며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축복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전네는 회장님의 모습은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위안을 주고 복돋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는 회장님을 사람들은 무척 고마워하며 반겼습니다. ……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것이 그분 특성이었습니다.”³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스미스 회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모범을 보인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길거리 청소부들이 배수로에서 커다란 얼음덩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절실한 일용직 근로자들도 정규 청소부들을 도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얇은 스웨터 한 장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리호리한 몸집에 멋지게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청소부 옆에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아침에는 그런 스웨터 하나로는 부족해요. 외투는 어디 있나요?’ 그 근로자는 외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당신 것입니다. 두툼한 모직이니 따뜻할 거예요. 저는 직장이 길 건너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은 바로 사우스 템플 가였습니다. 그날 일과를 보러 교회 관리 본부 건물로 걸어 들어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지 앤더슨 스미스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심 없고 너그러운 행동은 그분의 다정한 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참으로 그분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셨습니다.”⁴ [18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우리는 모든 남성을 우리 형제로, 모든 여성을 우리 자매로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불꽃을 밝게 타오르게 할 때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배타적인 삶을 산다고 추측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교회 회원들하고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

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형제 자매로 여깁니다. 지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유대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 왕국에서 얻는 행복도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⁵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곧 인류에 대한 제 관심과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제 혈육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일부 물려받은 듯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을 때, 허리를 숙여 끌어올리고 일으켜 세워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단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서 그 사람이 제 형제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⁶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웃을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⁷ [18쪽 제언 2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애롭게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조직될 때 지상에 전해진 그 훌륭한 은사가 완전히 실현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⁸ [18쪽 제언 3 참조]

우리가 베푸는 성역은 사랑의 성역입니다. 봉사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역을 베푸다면, 우리 삶은 나날이 하나님의 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으로 풍성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며, 우리 영혼은 부풀어 올라 하나님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행위로 …… 증명해 보입시다.”

의 모든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듯한 마음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싶다는 소망을 느낄 것입니다.⁹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사랑이 우리가 속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람의 자녀들에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¹⁰

구주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고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행위로, 친절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시다.¹¹

**우리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과 자애가 세상에 가져다줄 결과는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지부와 와드와 선교부에는 햇빛을 비추고, 행복을 키우고, 낙담한 사

람들을 격려하고, 괴로움에 빠진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줄 기회가 많습니다.¹²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탐하기를 그치라.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띠니라.”[교리와 성약 88:123, 125] ……

순수한 사랑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주신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있는 약점과 실패, 실수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¹³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점차 신앙을 잃어가는 남성이나 여성을 알게 된다면 외면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를 방문할 기회로 삼고 친절과 사랑으로 찾아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격려합시다. 개인적으로 선행을 행할 기회는 많습니다. 어디에나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이 속한 울타리 너머로 조금만 더 손을 뻗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친절한 말을 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할 남성과 여성은 이 교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에서 인정받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¹⁴

제 마음속에는 오직 인류를 향한 호의만 있을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살아 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행실을 좀 더 올바르게 했으면 하는 사람은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손실이지, 제 손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들을 엘싸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행복의 대로로 돌아오게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 옳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보여 주어 옳은 일을 하도록 이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이 사랑에서 나온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건네는 말이 진심임을 느낄 것입니다.¹⁵ [18쪽 제언 4 참조]



“나야가 햇빛을 비추고, 행복을 키우고,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괴로움에 빠진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고 이 세상 것들을 열망하더라도, 행복은 현세를 살아가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애롭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가에 비례하여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요한1서 4:20 참조]¹⁶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돋고 부족함을 채워 주는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은 생명을 키우는 위대한 샘물처럼 영원한 행복에 닿을 때까지 솟아오를 것입니다.¹⁷

현세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행한 모든 선행과 친절과 노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을 섬김으로써 증명해 보입시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마태복음 10:8 참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침내 본향으로 불려가 우리에 관한 기록을 마주할 그날까지 한결같이 힘써 나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소질을 향상시켰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자애롭고 너그러우며 우리가 어울린 모든 사람을 고양시키려 노력했다면, 우리가 받은 빛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빛을 나누려고 노력했다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다음과 같은 환영의 찬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 감사로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¹⁸ [19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미스 회장처럼 사랑을 나타내 보일 방법을 생각해 본다.(11~13쪽 참조) 예를 들어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의 첫 부분(13~14쪽)을 공부하면서 이웃, 직장 동료,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3. 14쪽 마지막 문단 전체를 읽는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경전 가르침이나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15쪽에서 시작하는 첫 두 문단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속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그러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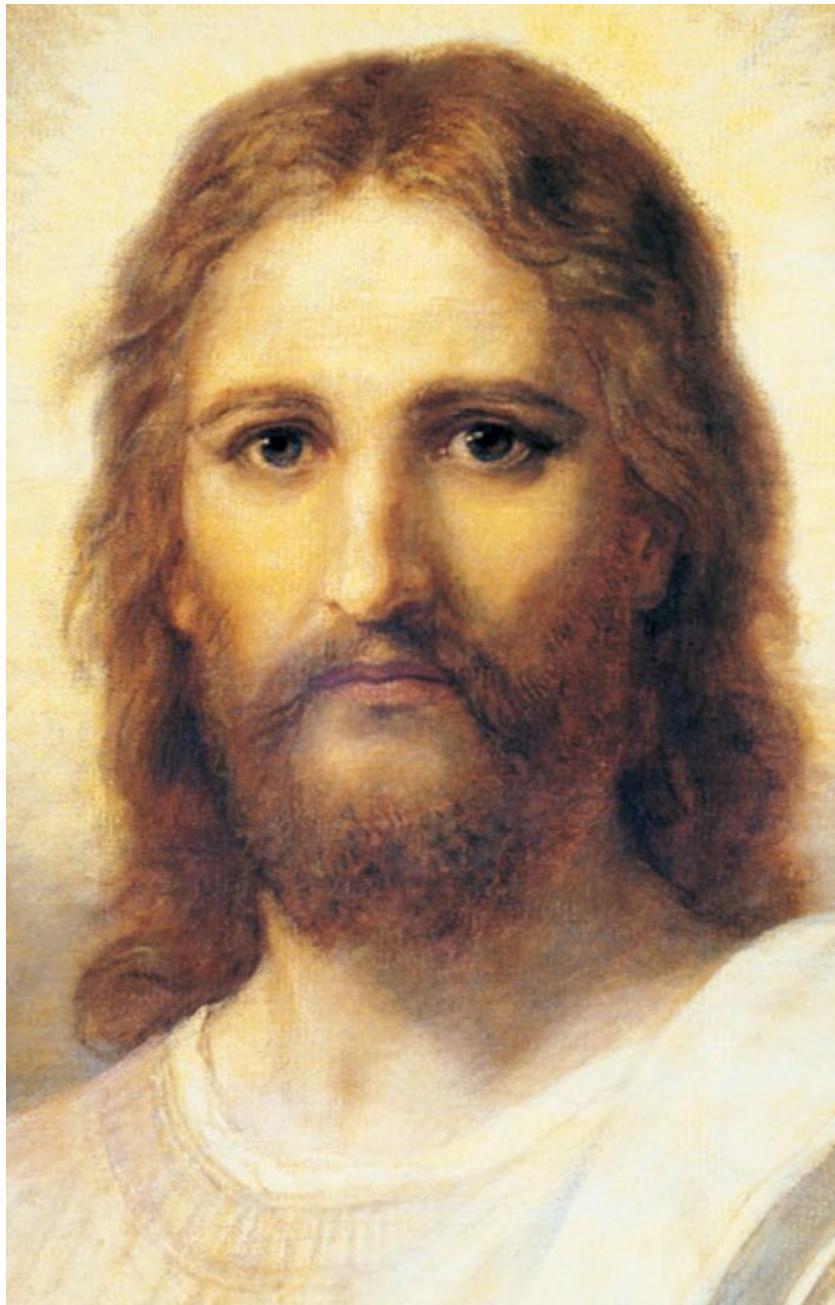
- 17~18쪽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운 경험이 있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5:43~44; 25:34~40; 누가복음 10:25~37; 요한복음 13:34~35; 요한1서 4:7~8; 니파이전서 11:16~25; 모로나이서 7:44~48

교사를 위한 도움말: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상당수의 공과는 너무도 딱딱하여, 강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하는 강연에 그다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이나 대회에서는 반응을 보입니다만, 공과 시간은 공과를 듣는 사람이 질문도 할 수 있는 양방향 의사 소통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폐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5쪽)

주

1. J. Reuben Clark Jr., “No Man Had Greater Love for Humanity Than He”, *Deseret News*, Apr. 11, 1951, Church section, 10, 12.
2. “After Eighty Years”, *Improvement Era*, Apr. 1950, 263.
3. Richard L. Evans, “Anniversary,” *Improvement Era*, Apr. 1946, 224.
4. Conference Report, Apr. 1990, 62; or *Ensign*, May 1990, 47.
5.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Deseret Evening News*, June 27, 1908, Church section, 2.
6.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Deseret News*, Feb. 16, 1946, 6.
7. Conference Report, Oct. 1946, 149.
8. Conference Report, Apr. 1922, 52.
9. Conference Report, Oct. 1929, 24.
10. Conference Report, Apr. 1905, 62.
11. Conference Report, Apr. 1949, 10.
12.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4.
13. “Saints Blessed”, *Deseret News*, Nov. 12, 1932, Church section, 5, 8.
14. Conference Report, Apr. 1914, 12–13.
15. Conference Report, Apr. 1946, 184–85.
16. “To the Relief Society”, 709.
17.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214;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18.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2.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며 기쁜 마음으로 미안하나마
제 노력을 더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

후기 성도는 회복된 복음에서 추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는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따금씩 후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스미스 회장은 이처럼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면 대단히 놀라고 염려했으며, 구주에 대해 개인적으로 증거함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한번은 캐나다 카드스톤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스미스 회장은 기차표를 사기 위해 역으로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인 매표소 역무원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성은 전날 밤에 후기 성도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역무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런, 정말 그 교회에 갔단 말인가요?”

“네, 그래요.” 여인이 말했다. “왜 안 되나요?”

역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아요.”

그러자 그 여성은 대답했다. “교회의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 바로 어젯밤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람보다 더 심오하게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어요.”¹ [30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에서 힘을 얻었고, 그 간증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기뻐했다. 사도 직분에서 봉사한 지 11년째 되던 44세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점차 활력과 확신을 얻고 제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며, 제 것이 아닌 권능을 받아 세상의 구속주께서 선포하신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빈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의 영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며 기쁜 마음으로, 미약하나마 제 노력을 더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언젠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지식으로 제 온 마음이 떨립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참으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압니다.”²

스미스 회장은 1951년 4월 4일, 여든한 번째 생일에 별세했다. 가족들이 곁에서 임종을 지킬 때, 아들은 스미스 회장에게 가족에게 특별히 남길 말이 있는지 물었다.

스미스 회장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평생토록 수없이 나눈 간증을 되풀이했다. “그래,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구나.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³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구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사명을 믿는다는 사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세상에서 후기 성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철저하게 믿으며, 현재 그분이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영화롭게 앉아 계심을 더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야 한다는 영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 오직 그분을 통해서 만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저는 압니다.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

든 사람은 현세에서 행복을 얻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인 해의 왕국에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⁵

인류의 구속주는 세상에 도덕만 가르치려 온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주는 평범한 지능이 아닌 그 이상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 사람들이 제각기 걸어가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 가운데 숨어든 그릇됨으로부터 돌이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의 물가로 내려가도록 촉구하셨습니다.⁶

구주 시대에 대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야.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우리와 다른 바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잖아.’ 사람들은 그 간교하고 사악한 자가 은밀히 퍼뜨리는 말을 듣고 인류의 구속주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⁷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악하게 여겨 내쳤습니다. ……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가져오신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고,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며, 손에 가짜 홀을 들리고, 잔혹하게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었으며,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⁸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상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다. 영적 존재나, 형체가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승영에 이르신 분으로서 믿습니다. 그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놓였던 바로 그 몸으로,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곳에 누인 바로 그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해진 몸으로 나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몸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사도행전 1:10~11 참조]

바로 이분이 후기 성도가 믿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 복음이 온 땅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 사람들이 더는 그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더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인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과 인류의 구속주께서 권능과 영광을 안고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지상에 거하러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해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러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⁹ [30쪽 제언 2 참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성경 속 증거를 믿는다.

나사렛 예수께서 물로 내려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분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3~17 참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경이로운 성경에는 그 모든 정보 외에도 훨씬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에 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하고 가르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믿습니다.¹⁰

우리는 인류의 구속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신약전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들의 간증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 에 그들의 간증은 너무도 명백해서 지각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뒤 무덤에 누였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와 꿀을 드셨으며,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 난 못 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9] 이처럼 논박



“우리는 인류의 구속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 간증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¹¹ [30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더 찾아볼 수 있다.

구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 구유에 누였던 사람이며,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요셉이라 알려진 목수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태생이 신성하다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후기 성도인 우리는 몰몬경 기록에서 그러한 것들이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서반구에 오셔서 이 대륙에 살던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는 증거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

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오시지 않고,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던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음성이 그분께서 강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분은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그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니파이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조직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침례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이들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제3니파이 11:1~27 참조] 이는 평범한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들이 이미 받은 것 외에도 또 다른 증거를 얻게 하시고자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말씀입니다.¹²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니파이인]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복음을 가르치신 일보다 더 직접적으로 부활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16] 바야흐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예언된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으로 성역을 베풀고자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에 ……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경이로운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마치 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려와 어린아이들을 에워싸자 그들은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은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제3니파이 17:6~24 참조]

그러한 것들은 환상이 아니라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실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는 이 기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¹³



부활하신 구주께서 나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려와 어린아이들을 에워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인물이 세워졌습니다. …… [조셉 스미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성경에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구름 속 영광 중에 서 계신 것과, 승영에 이르신 세상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 영광스러운 시현에 대한 간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높은 곳에서 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주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 불어나고 강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제 고대 역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를 받았기에 그들은 이 사실이 참됨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¹⁴

구주의 삶이 신성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 중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함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목숨을 내놓은 조셉 스미스의 간증입니다.¹⁵ [30쪽 제언 3 참조]

우리 각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요건을 준행할 때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증거는 앞서 말한 다른 것들보다도 더욱 온전하고 더 확실합니다. 이는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 영혼에 성신의 권능으로 새겨지는 간증입니다.¹⁶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이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은 그 약속을 받아들여, 이 약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 보기 위해 시험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험해 본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¹⁷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록에 나오는 증거와 …… 우리 시대를 살다 간 선한 사람들의 간증뿐 아니라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요건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침수로써 침례를 받고, 주님께 권세를 받은 종들의 손 아래서 성신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주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지식이 각 영혼에 자리잡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 이 교회의 평범한 회원으로서 저는 제가 살아 있음을 알듯이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 또한 저는 사람의 자녀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무릎이 끓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임을 압니다.[교리와 성약 88:104 참조]¹⁸ [30쪽 제언 4 참조]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바를 나누는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구주의 신성에 관한 지식을 우리만큼 가진 사람들은 없다는 점을 후기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삶에 이러한 특권과 축복이 임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서 엄숙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말 아래 숨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을 이웃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성가시게 하지는 않되,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출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입니다.¹⁹

남녀를 불문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을 쫓아 사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합니다. ……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볼 때, 제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제 눈은 촉촉하게 젖어 듭니다. 저는 낙담한 사람, 어둠 속에 있던 사람, 자기 존재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가르치는 영화로운 진리를 배웠을 때 변화하는 모습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갈릴리를 다니시며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일에 열성을 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이러한 행복을 이해하도록 돋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본위나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관대함, 사랑이 담긴 친절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여러분 가운데 가장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삶에 찾아온 확신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제 영혼에 뜨겁게 새겨진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승영에 이를 또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이 후기에 지상에 오셔서 진리를 찾는 겸손한 소년에게 신성한 권세를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권능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²⁰

우리가 그분의 대의에 합당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²¹ [30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1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는다. 후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응대하겠는가?
2.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상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다.”(23쪽)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잠시 24~27쪽을 다시 살펴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경전 이야기나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니파이전서 10장 17절을 읽고 구주의 사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4. 28쪽을 읽고, 복음 원리와 의식에 순종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강화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자녀들이 이 간증을 얻도록 돋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5. 29~30쪽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간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본 일을 떠올려 본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16:15~17; 17:1~5; 니파이후서 25:26; 앤마서 5:45~48; 교리와 성약 76:22~24; 110:1~4

교사를 위한 도움말: “너무 많은 자료를 다루려는 유혹을 …… [피하십시오.] 우리는 공과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칩니다. …… 제가 여태껏 봐온 모든 공과 개요에는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 안에 다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제프리 알 훌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9쪽)

주

1. *Deseret News*, Dec. 27, 1924, Church section, 6; 또한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201 – 2 참조.
2. “Testimony of Elder George Albert Smith”, *Liahona: The Elders’ Journal*, Feb. 2, 1915, 502.
3. Robert L. Simpson,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iesthood*,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Mar. 31, 1964), 8.
4. *Deseret News*, Dec. 27, 1924, Church section, 6.
5. *Deseret News*, Jan. 15, 1927, Church section, 8.
6. Conference Report, Oct. 1921, 39.
7. Conference Report, Apr. 1918, 39.
8. Conference Report, Apr. 1904, 63.
9. *Deseret News*, Dec. 27, 1924, Church section, 6.
10. Conference Report, Oct. 1950, 156.
11. Conference Report, Apr. 1939, 120 – 21.
12. Conference Report, Apr. 1905, 61.
13. Conference Report, Apr. 1939, 121 – 22.
14. Conference Report, Apr. 1905, 61 – 62.
15. *Deseret News*, Jan. 15, 1927, Church section, 8.
16. *Deseret News*, Dec. 27, 1924, Church section, 6.
17.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206;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18. *Deseret News*, Dec. 27, 1924, Church section, 6.
19.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211, 214;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20. Conference Report, Oct. 1927, 48 – 50.
21. *Deseret News*, Jan. 12, 1907, 31.



1905년 12월 23일, 조지 앤더슨 스미스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출생지에서 열린 기념비 현납식에 참석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진리 회복에 쓰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원상태로 회복하셨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조지 앤버트 스미스 장로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며 선지자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들을 방문했다. 1905년 12월 23일 아침, 조셉 스미스의 출생지인 버몬트 주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헌납되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와 일행은 복음 회복에서 그토록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스미스 회장은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아 모두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기뻐했습니다.”¹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은 헌납식에서 지명을 받아 폐회 기도를 했다. 스미스 회장은 그날 일을 일지에 간략히 적은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내 생애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 저물었다. 방금 끝난 행사에 도움을 준 한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한다.”²

그들은 뒤이어 첫번째 시현이 있었던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숲으로 갔다.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조셉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여쭈었던 숲 속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찬송가인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를 부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³

일행은 쿠모라 산과 커틀랜드 성전, 그 밖에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장소들을 방문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일

행을 한 자리에 모았다. “시온에 관한 찬송가를 몇 곡 부른 뒤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⁴ [42쪽 제언 1 참조]

몇 년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때에 조셉 스미스를 혈뜯고자 쓰여진 책 몇 권이 출간되었다. 교회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이러한 말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해 간증하며 담대하게 옹호했다.

“제가 누리는 많은 유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그런 사람들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지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명이 남긴 악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여준 영광과 존귀, 위엄, 용기, 충성은 영원토록 그 이름과 함께할 것입니다.”⁵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말씀 내용을 오려 내어 지갑에 넣고 다녔으며,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⁶ 바라며 자주 인용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하늘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 하나님께서 팔마이라에 사는 한 소년이 드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자신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아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음을, 이로써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을 찾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신성한 사명과 기도의 실효성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이 어린 소년에

게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이 성구에 담긴 권고를 받아들여 숲 속으로 들어 갔을 때, 조셉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조셉 스미스는 믿었습니다.⁷

당시에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시가 성경에 들어 있고 하늘은 인간에게 닫혀 있다는 믿음이 만연했으나, 조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셉은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둘러싸인 아버지와 아들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셉은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처럼 성막, 곧 육신을 입은 인격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셉에게 말씀하셨고, 조셉은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⁸

[조셉이 드린 기도의] 결과로, 놀랍게도 또 사상 초유로, 그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경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주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일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일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닫혀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아모스 8:11~12 참조], 무엇보다도 빛이 가장 절실한 우리 시대에 이 소년이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선포하자 사람들은 [조셉]을 조롱했습니다. …… 그들은 조셉의 말을 무시했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그 시현이 악마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어떤 간증을 했을까요?

“……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팝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팝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팝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참조]⁹

이 교회가 조직된 1830년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한 교회 조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시리라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도록 영감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을 구원하려 노력하는 것은 혀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소년 선지자는 팔마이라에 있는 숲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고, 그분들이 참으로 인격체이시며,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상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사람의 자녀들이 그 터전 위에 신앙을 세울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늘과 땅 사이에 교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¹⁰ [42쪽 제언 2 참조]

조셉 스미스는 비록 어리고 미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조셉은 신앙에 힘입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들아, 모두가 좋은 교회이며,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단다.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승인한 사람들이란다. 어느 교회라도 상관없단다. 모든 교회는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줄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쩌면 소년은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응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셉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했으며, 주님께서 알려 주시리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를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초가 놓였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소년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하지 말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께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참조] 열네 살 난 소년이 집 근처 숲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일어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감히 그와 같은 일을 하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를 갖고서, 주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을 받고서, 감히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려는 소년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¹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했을 때, 조셉은 [나이 어린]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저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인류의 구속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교회는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조직하신 교회를 본떠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을 갑자기 떠오른 풋내기로 여겼으며, 지도자가 될 만한 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주제넘게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는 지상에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일을 수행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세상 일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식으로 조셉은 그가 받아 보지 못한 엄청난 세상적 기회를 누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면에서 대등하거나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¹²

학대받고 잘못 알려지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당시 지식인들과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셉 스미스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조셉을 파멸하기 위해 더욱 극성을 부렸지만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열쇠와 의식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조셉을 보호하셨습니다.¹³ [43쪽 제언 3 참조]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화평과 기쁨을 얻는다.**

열네 살 나이에 아버지와 아들을 본 그 소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며, 세상의 구주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때 세상이 알았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잊혀진 그것을 소년은 보았으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¹⁴

[1800년대 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인격체이심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 아직 열다섯 살도 채 안 된 소년에 불과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조셉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고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존재들이 조셉을 방문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조셉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정보를 더해 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기 식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앞서간 교회 회원들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지식을 전했습니다. …… 조셉이 묘사한 하늘 나라를 마음 속으로 그릴 때 우리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본향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부활과 천국, 지옥에 대한 설명은 너무도 생생하여 경전 속 표현을 빌리자면,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이사야 35:8 참조]¹⁵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성전 건립, 영원한 결혼 성약, 죽은 자를 위한 구원 등이 계시되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밝혀진 영원한 진리는 세계 만민에게로 나아가고 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화평과 만족을 얻습니다.¹⁶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후기에 복음을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배도가 만연하여 그들이 명백한 진리로부터 떠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이 후기 사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골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한 소년을 택하시어 영감을 주어 종교계를 혁신할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서 해매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빛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화합하지 않고서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었지만 오류와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사람의 교리와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을 회복하여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¹⁷

이 세상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본다면, 여러



“이 세상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 보십시오.”

분은 세상이 앓는 고통을 치유할 만병통치약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약을 찾는 다른 방법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¹⁸ [43쪽 제언 4 참조]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간증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했다.

주님께서 예전에 세우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분의 종이 피를 흘려 자신의 간증을 인봉할 필요가 있었던 듯합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 남긴 마지막 말처럼 가슴 아픈 기록은 세계 역사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일생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죽음과 직면하는 순간이 왔을 때,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나에 대하여 어느 때엔가는 -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하리라.”[교리와 성약 135:4 참조]

그는 심판대 앞에 즐겁게 서서 …… 육신을 입고 행한 행위에 대해 답하게 될 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불의하게 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쏟아진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과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종국에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으며 이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이해하도록 돋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¹⁹

이 젊은이는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모로나이에게서 몰몬경이 새겨진 판을 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조직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온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 그의 영혼은 스데반[사도행전 7:54~60 참조]과 구속주께서 아셨던 바로 그 지식,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향키를 잡고 계시며, 이 사업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그분의 사업이며 그분의 권능이 마침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이생은 영원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진실하게 사랑한 동반자와 맷은 관계를, 지상에서 살았고 현재 거하고 있으며 지구가 해의 왕국이 될 때 다시 지상에서 살게 될 선한 사람들과 나눈 우정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상에서 자신의 지상 생활 일부를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²⁰

조셉 스미스는 내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자신이 알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자신이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미래와 더 영광스러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 주려 한 것은 단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나 그분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뿐 아니라 영생을 찾으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6:25 참조] 선지자와 교회의 축복사[하이럼 스미스]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감옥에 투옥되고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자,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위해 줄 수 있는,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식 때문입니다.²¹

1830년에 교회는 회원 여섯 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의의 대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발전을 저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교회가 조직되고 나아가게 하려고 목숨을 바친 위대한 사람, 조셉 스미스가 세계 곳곳에 지부가 설립된 지금의 이 교회를 본다면, 자신이 순교한 그 날, 자신이 목숨을 내 주고 피로 자신의 간증을 인봉한 그때로부터 교회가 나날이 그 전날보다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²² [43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처음 세 문단에(33~34쪽) 기술된 스미스 회장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이 강화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이 장을 읽으면서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서 어떤 글이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는지 찾아보고, 그 내용을 가족이나 신권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와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2. 가르침 서두 부분을(34~36쪽) 다시 살펴보고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 대해 직접 기술한 내용을 읽어 본다.(조셉 스미스—역사 1:10~19 참조) 첫번째 시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이 보기에 첫번째 시현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36쪽의 소제목 아래에서 시작되는 서두 부분을 공부하고 교리와 성약 1편 17~19절을 읽는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해 조셉 스미스가 보인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께 임무 지명을 받았지만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 주셨는가?
4.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어떤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가? (이러한 진리의 몇 가지 예로, 38쪽 서두 부분을 본다.)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5. 가르침 마지막 문단을(42쪽)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더욱 강해지도록 돋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이사야 29:13~14; 고린도전서 1:26~27; 니파이후서 3:5~9, 11~15; 교리와 성약 135편

교사를 위한 도움말: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들을 한다. …… 반원들을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도 좋다. 예를 들면, 반원들에게 부모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어볼 수 있다.”(이 책 vi~vii쪽에서 발췌)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06, 54.
2. Journal entry dated Dec. 23, 1905,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73, book 2, page 160.
3. Conference Report, Apr. 1906, 56.
4. Conference Report, Apr. 1906, 57 – 58.
5. Conference Report, Apr. 1946, 181 – 82.
6. Harold B. Lee, in Conference Report, Oct. 1947, 67.
7. Conference Report, Oct. 1921, 158 – 59.
8. “The Latter-day Prophet”, *Millennial Star*, Dec. 7, 1905, 822.
9. Conference Report, Oct. 1921, 159 – 60.
10. Conference Report, Apr. 1917, 37.
11. Conference Report, Oct. 1921, 159 – 60.
12. Conference Report, Apr. 1927, 83.
13. “The Latter-day Prophet”, 823.
14. Conference Report, Oct. 1921, 160.
15. Conference Report, Apr. 1934, 26.
16. “The Latter-day Prophet”, 823.
17. Conference Report, Oct. 1916, 46 – 47.
18. Conference Report, Oct. 1931, 121.
19. Conference Report, Apr. 1904, 63 – 64.
20. Conference Report, Oct. 1927, 48.
21. Conference Report, Apr. 1905, 62 – 63.
22. Conference Report, Oct. 1945, 18.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신권

신권은 하나님의 권세이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합당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은 1948년 10월 2일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때때로 저는 집사가 될 때 받는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버지인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들이 집사 직분에 성임된 아들에게 이제 영원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존 텅기 형제님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집사로 성임하신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저는 집사 직분에 성임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 경험은 제게 축복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다른 성임들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¹

스미스 회장은 계속 이어진 말씀에서 신권에 성임될 때 따르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에 대한 일례로 스미스 회장은 청소년 시절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신권 소유자인 가정 복음 교사에 대해 들려주었다.

“로드니 배저 형제님은 수년간 저희 가족을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가정 복음 교사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형제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고,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저희에게 질문도 하고, 저희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들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배저 형제님



“아들이 집사 직분에 성임될 때, 이제 영원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도록 아버지들이 돋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희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주님의 영과 함께 오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이 가시고 나면 저희 가족은 주님의 종이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습니다.”²

스미스 회장은 신권 소유자들이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을 섬기며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도록 북돋아 주고 발전시키고 이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이 말씀을 마쳤다.³ [53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신성한 권세를 회복하셨다.

절정의 시기에 오신 구주께서는 큰 성 예루살렘에 악이 만연한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신성한 권세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신성한 권능을 보유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 구주의 시대에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 여전히 신권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구주께서 오셔서 신성한 권세를 회복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구주께서는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왕이나 통치자, 제사장, 세도가를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곁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신성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 주셨습니다. …… 구주께서는 신성한 권세가 있었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단지 선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분 교회의 의식들을 집행할 신성한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지상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

성역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주께서 감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신 십이사도 정원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스스로를 제자라 칭한 일단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성한 권세

를 소유하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열두 명으로 구성된 정원회인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 지도부가 되었습니다.⁴ [53쪽 제언 2 참조]

신권은 고대에 신권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시대에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상에 온갖 신조와 교파가 늘고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한 일이 하늘과 땅에 기록되고 알려졌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많은 종파가 있었습니다. 신성한 권세를 가진 체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

세상에서 그 권세, 즉 신권은 사라졌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는 한 겹손한 소년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며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때때로 다른 사자들과 하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그 교회에 신성한 권세가 부여되었습니다. ……

주님께서는 청년이 된 조셉 스미스에게 몰몬경을 번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 일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침례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거룩한 존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 신권을 가진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영화롭게 부활한 존재로서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조셉과 올리버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론 신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이 열려야 했으며, 아론 신권을 소유했었고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존재가 찾아와서 그것을 부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멜기세덱 신권을 가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그 신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회장과 보좌 두 명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축복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등 권세라는 측면에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교회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⁵



“예전에 신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 그 신권을 겸손한 사람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소유한 바로 그 권세가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의식들을 수행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어깨 위에 놓였던 책임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복음 의식들을 집행하며, 사람의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그 특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⁶

저는 주님께서 다시 복음을 이 시대에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고, 예전에 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 그 신권을 겸손한 사람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신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신권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⁷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의 사명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 의식들을 집행할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행할 권능을 성스럽게 위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것으로서, 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⁸ [54쪽 제언 3 참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물곤 했습니다. “당신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차이점을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이라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신성한 권세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교회든 서로 연합하여 교단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성한 권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 연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권세는 오직 그분 방식대로만 주어집니다. 과거에 그분의 방식은 사람들을 불러 성임하고 그 일을 위해 성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단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성한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직과 덕, 진리 등으로 이루어진 요건에 걸맞게 생활한다 하여 신성한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권세를 소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 교회가 초창기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은 이 교회에 있는 신성한 권세가 미치는 영향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들의 삶이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⁹ [54쪽 제언 4 참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수많은 선한 남성과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

우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확립하신 것 외에 그분께서 인정하실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¹⁰ [54쪽 제언 5 참조]

신권 의식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모든 종파와 같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본 덕목을 믿고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권의 권세가 없다면 해의 왕국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¹¹

인간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유일한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획입니다. 또한 인간이 여러 복음 의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집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권세입니다.¹²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 이세를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인 성 멜기세덱 신권을 그를 통해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이 신권을 통해 사람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 의식을 정당한 권세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¹³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결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그것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서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보도록 가르침 받아 온 가장 훌륭한 축복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 제게 목숨처럼 소중한 ……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해의 왕국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¹⁴

우리가 충실하다면, 신권은 해의 왕국에 이르는 여러 문을 열어 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축복이 됩니다. 더 없이 고귀한 이 [신권이라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¹⁵ [54쪽 제언 6 참조]

신권 소유자들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신권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합당한 남성이 신권을 받아 그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
게 축복이 될 많은 일을 행한다면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¹⁶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교회, 또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
신성한 권세를 지닌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십
시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과 동역자가 되게 하는 신성한 권세를 안
수례를 통해 받은, 선택된 남성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웃고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나에게는 성신권이 있
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거 몇
몇 사람들처럼 신성한 것들을 가볍게 여긴 사람으로 헤아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¹⁷

신권을 지극히 평범하게 여기고 부주의하게 다루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태도 때문에, 신권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¹⁸

어떤 사람들은 신권이 있다 하여 가정에서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아내와 가족을 존중하고 가르
치며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결코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¹⁹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지상에 있습니다. 그 권
세를 받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늘 기도하는 마
음으로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하여 하나
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올곧은 삶을 살아 모범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분의 권세는 존재합니다.²⁰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 회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근거를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팬찮을 것이

라 생각하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매우 귀중한 이 성신권을 합당하게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에 거할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²¹

형제 여러분 …… 여러분은 신성한 기회, 신성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신권으로 여러 축복을 받았고, 신성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권세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에 있는 다른 조직들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 책임도 받았습니다.²²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신권은 조셉 스미스나 브리검 영, 또는 국내나 해외에서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다른 어떤 사람의 신권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신권은 높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거룩한 이들이 수백 년간 지상에서 사라졌던 영화로운 축복들을 회복하기 위해 지상에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²³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며,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다.”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²⁴ [54쪽 제언 7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45~47쪽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 청남들이 신권 직분에 성임될 준비를 하도록 돋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청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신권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돋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신권에 대해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가?
2.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것 외에 “신성한 권세를 회복[하는]”(47쪽) 일은 왜 필요했을까?

3. 49쪽 두 번째 문단과 50쪽 첫 문단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왜 정식 교육을 받은 소수에 국한하지 않고 합당한 모든 남자들이 그분의 권세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4. 스미스 회장은 신권 때문에 “남성과 여성들의 삶이 발전[한다.]”고 말했다.(50쪽) 여러분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의 생활에서 신권의 권능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5. 50쪽의 소제목 아래에 있는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스미스 회장에게 던진 다음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본다. “당신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6. 51쪽의 소제목 아래에 있는 서두 부분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신권 때문에 받은 “더 없이 고귀한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7. 가르침 마지막 부분(52~53쪽)을 공부하면서, 스미스 회장이 신권과 함께 주어진다고 말한 책임들을 찾아본다. 신권 정원회 회원들이 서로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돋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 이 있을까? 여성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돋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신권 소유자들은 여성들이 그들의 신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돋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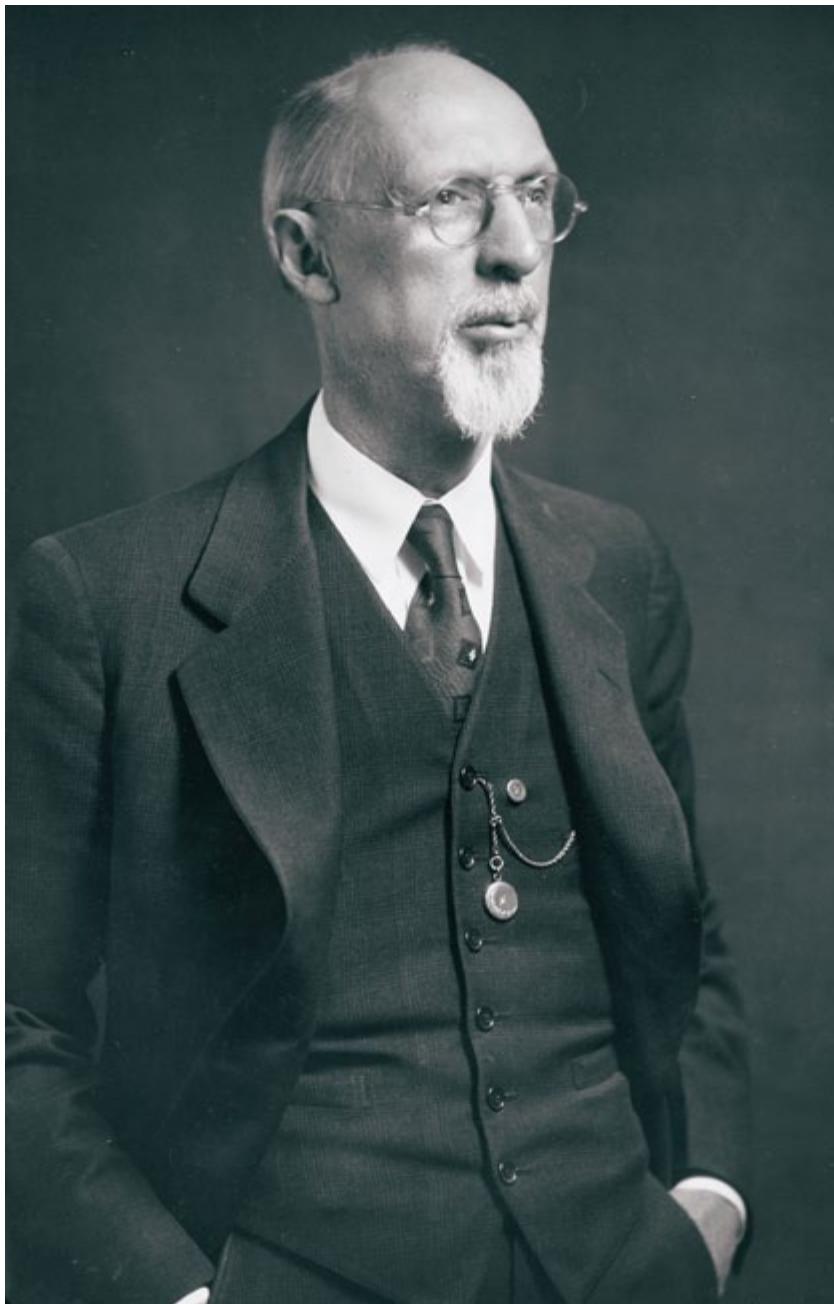
관련 성구: 요한복음 15:16; 앤마서 13:1~3, 6~10; 교리와 성약 84:19~22;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신앙개조 제5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각 공과를 마칠 때뿐만 아니라 성신이 간증을 나누라고 속삭일 때마다 간증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전할 기회를 준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45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48, 180–81.
2. Conference Report, Oct. 1948, 186.
3. Conference Report, Oct. 1948, 190.
4. “The Church with Divine Authority”, *Deseret News*, Sept. 28, 1946, Church section, 6.
5. “The Church with Divine Authority”, 6.
6. Conference Report, Apr. 1904, 64.
7. Conference Report, Apr. 1934, 28–29.
8. Conference Report, Apr. 1927, 83.

9. Conference Report, Apr. 1934, 28–29.
10. Conference Report, Apr. 1917, 37–38.
11. Conference Report, Oct. 1926, 106.
12. Conference Report, Apr. 1934, 30.
13. “Message to Sunday School Teachers”, *Instructor*, Nov. 1946, 501.
14. Conference Report, Apr. 1925, 65.
15.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1–92.
16. Conference Report, Oct. 1950, 6.
17. Seventies and stake missionary conference, Oct. 4, 1941, 7.
18. Conference Report, Apr. 1948, 184.
19. Conference Report, Apr. 1948, 184.
20. Conference Report, Oct. 1928, 94.
21. Conference Report, Apr. 1943, 91–92.
22. Conference Report, Oct. 1933, 25.
23.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8.
24. Conference Report, Oct. 1950, 182.



“저는 여러분 중에서 가장 불품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 이 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지지함

우리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말과 행동으로 지지하기를 바라신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194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대회가 끝나갈 즈음에,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보여 주신 여러분의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장 볼품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저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어린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제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받고, 더 나아가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¹

이 장에 나오는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교회 회장이 되기 전부터 제일회장단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제일회장단이 진 그 같은 짐이 성도들의 충성과 충실을 통해 가벼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고,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 원리를 모범으로 보였다.

1946년 연차 대회에서 한 모임의 사회를 보면서, 스미스 회장은 교회 역원 지지를 소개하고 역원 지지가 그저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님

을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대회에서 관례적으로 시행될 한 가지 절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역원 지지를 위해 교회 역원들을 호명하여 사람들이 손을 들어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스러운 특권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 역원 지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사업에서 여러분의 몫을 하겠다는 표시입니다.”² [65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택하고, 영감을 주어 인도하시는 분들이다.**

이 위대한 교회를 감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오를 때 그들 각자에게 부여된 높은 지위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고, 특별히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지혜 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른 사람들로 에워싸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 못지 않은 신앙이 있고, 지도자의 인격이나 교회 회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에게 굽실거리지는 않으나 교회 회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로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호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와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이 백성처럼 인도되는 백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리자들은 참으로 정의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통해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 오늘날 우리를 감리하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특출해서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막강한 지도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혼이 고결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나라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결심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높은 부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로서 감리합니다.³

오늘 저는 이 교회가 조직될 때부터 이 교회를 이끌어 온 겸손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 저는 [교회] 회장들 중에 [많은

분]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분의 교회를 감리하게 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⁴

[조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성도들은] 비밀회의를 열어 의장을 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십이사도 정원 회의 선임 사도인 브리검 영이었습니다. …… 교회는 하나가 되어 모든 모임에서 그를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좌들은 자신들이 회장이라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십이사도 정원회가 오랫동안 교회 일을 관장하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

저는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 알아보려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스스로 나서서 교회 회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교회 회장 지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오며, 지명된 사람은 수반된 모든 권능을 받습니다.⁵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나 무리에게도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참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하고 훌륭한 남자와 여자들 눈에 그들이 존귀해 보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성역을 축복하시어 성공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서고 결점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대 행위에서 기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에 따른 결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⁶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가르치도록 날마다 영감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⁷ [65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는 종들을 통해 행복과 안전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담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종들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일 때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으며, 대대로 자녀들이 구할 경우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어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전하고, 인류를 기품 있고 풍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가르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⁸

저는 세상에 어떤 중대한 일도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조언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놓인 적이 없으며, 하려고만 한다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노아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주님께서는 닥쳐올 홍수에 대비하여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120년간 그 세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악하여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지로 의로움보다는 악을택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여덟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모세서 8:13~30 참조]⁹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주시고, 신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시고, 다양한 직책을 두셨으며, 이 모든 것이 질서 안에 놓여 있습니다. …… 주님과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도력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어둠으로 떨어지거나, 빛을 잃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오늘날 제가 보기에 안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이끌도록 지명하신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관해 제 자신의 판단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판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 주기 위해 보내 주신 분들

의 가르침과 상충될 때,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지하시는 지도자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¹¹ [66쪽 제언 3 참조]

겸손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을 지지하고 응호한다.

저는 이 위대한 교회의 일반 회원들, 여러 나라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을 압니다. …… [그들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아직 단 한 사람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

제가 이 사업의 신성함을 확신하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 스테이크 대회에서 자신들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지를 손을 들어 표시할 기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선택의지를 발휘하여) 지도자들을 계속 응호한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겸손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지지하도록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¹²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울 사람들을 택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머리 위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피로하여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로 흘러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용사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했고, 그가 맡은 소임을 다할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출애굽기 17:8~13 참조] 그가 백성들에게서 지지를 받았을 때, 백성들 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감리했던 주님의 모든 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 고대의 아론이나 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손을 붙들어 올려야 합니다.

[회장이] 이 교회를 감리하는 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감리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힘과 권능과 지혜와 판단력과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의 지휘를 따르는 데에서 고대의 아론이나 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의 손을 붙들어 올려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우리와 이 백성에게 부으시도록 해야 합니다.¹³

저는 이 [총관리 역원들]이 주님의 종이며, 인류를 축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 신앙과 기도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나 그들의 태도가 왜곡되게 알려진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나서서 그들을 응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 그들을 응호해 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은 그들을 잊지 않았으며, 저는 악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악하게 말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이들의 부름이 신성하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¹⁴ [66쪽 제언 4 참조]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그들이 준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어 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

우리 가운데 …… 인간의 철학과 어리석음으로 눈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분들이 주는 조언과 권고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다지 정보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여, “이것이 길이다” 또는 “저것이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조언과는 상충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그것을 시도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안전한 조언을 주셨으며, 교회 회장이 그 조언을 해석하도록 지명하셨습니다. 교회 회장이 주는 조언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¹⁵

교회 회장단은 ……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분들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들도 사람이어서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대하듯이 그들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덕성을 발견하듯 그들에게서도 덕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를 이끌도록 부르신 분들에 관한 비판이나 불친절한 말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대적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이끌려 진리의 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값진 진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과 우매함 때문에 길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장막 저편에서 슬퍼할 것입니다.¹⁶ [66쪽 제언 5 참조]

대적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합니다. …… 세상에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기도록 끌어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결점을 찾고, 우리를 축복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 주

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교회 회원들이 그러한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사들 가운데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안전할까?” 하고 자문해 보기만 한다면, 올바른 길을 찾고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분들을 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¹⁷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고 우리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회장은 정직한 남녀 수천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는 의미로 손을 들어, 이 위대한 교회의 회장으로 부름 받은 자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 힘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 맺는 의무는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제 갈 길을 조용히 가면서 주님의 선지자가 이 사업을 이끄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맺는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선한 이름을 옹호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도록 지시하신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¹⁸

이 교회의 회장과 보좌들이 짊어진 짐을 생각하며 그들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을 인식할 때, 저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돋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부름 받은 위치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¹⁹ [66쪽 제언 4 참조]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온 우리가 우리를 감리하는 주님의 종의 손을 붙잡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기도로써 도울 뿐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과 친절로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후기에 그를 주님의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으로 계속 지지하시는 동안, 그가 높이 든 깃발 아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²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리하도록 세우신 분들을 지지합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으로써 그들을 축복합시다. ……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웁시다.²¹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지도자들을 지지한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마지막 문단(57~58쪽)을 읽는다. “이 사업에서 여러분의 몫”은 무엇인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첫 번째 부분(58~59쪽), 특히 둘째 문단과 넷째 문단을 살펴본다. 지도자를 택하는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주님께서 우리 지도자를 택하신다는 신앙을 확고하게 해 준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60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교리와 성약 21편 4~7절을 읽는다. 주님께서는 현임 교회 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주셨는가? 현임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을 통해서는? 현임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통해서는? 이 권고를 따를 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4. 61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64쪽의 소제목 아래에 있는 첫 두 문단 전체를 읽는다. 여러분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5. 63쪽 마지막 문단 전체를 읽는다.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어떤 사람이 지역 지도자 중 한 사람을 혐담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

관련 성구: 아모스 3:7; 에베소서 4:11~14; 히브리서 5:4; 교리와 성약 84:109~110; 107:22; 112:20

교사를 위한 도움말: 부지런히 배우도록 장려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종종 희생이 따른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6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45, 174–75.
2. Conference Report, Oct. 1946, 153–54.
3. Conference Report, Apr. 1927, 86–87.
4. Conference Report, Apr. 1931, 31.
5. “The Church with Divine Authority”, *Deseret News*, Sept. 28, 1946, Church section, 6, 9.
6. Conference Report, Apr. 1934, 29.
7. Conference Report, Oct. 1917, 45.
8. Conference Report, Oct. 1917, 40.
9. Conference Report, Apr. 1945, 136.
10.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2.
11. Conference Report, Apr. 1937, 33.
12. Conference Report, Apr. 1931, 32.
13. Conference Report, Apr. 1942, 14.
14. Conference Report, Oct. 1933, 29.
15. Conference Report, Oct. 1936, 75.
16. Conference Report, Apr. 1937, 34.
17. Conference Report, Apr. 1937, 33.
18. Conference Report, June 1919, 40.
19. Conference Report, Oct. 1929, 24.
20. Conference Report, Apr. 1930, 68–69.
21. Conference Report, Oct. 1930, 69.



영혼의 불멸성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통에 빠졌을 때 위안이 된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었다. 그는 자주 성도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상기시키며, 영원은 이생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필멸의 삶이 영원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일깨웠다.” 때때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행복 또는 영원한 실망의 시작이다.’”¹

스미스 회장은 아내와 여덟 아이들을 남겨 두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교회 축복사, 하이럼 지 스미스의 장례식에서 이러한 진리를 증거했다.

“이 장례식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후로 저는 줄곧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주체할 수가 없었지만, 이 건물에 들어서자 제 영혼에 아름답고 감미로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

저는 비통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시대에 새롭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삶이 영원하다는 지식과, 이 선한 형제가 삶의 목적으로 삼아 온 축복들이 영원토록 그의 것이 되리라는 지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가 살아 온 필멸의 삶은 끝났지만 이것은 영원한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깊고 튼튼



“이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한 부분임을 이 후기에 계시해
주시고 명백하게 알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기초를 놓았으며, 그 위에 지금껏 쌓아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쌓아 갈 것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경험한 기쁨이 그 위에 더해질 것입니다. ……

이러한 장례식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바를 생각해 볼 때면 저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한낮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저는 영생과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거나, 타국으로 이주하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오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여읜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기보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날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

……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어쩌면 눈물을 흘려야 할 이 순간에, 제 영혼은 충만한 위안과 만족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의 삶에도 그와 같은 위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² [77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 살았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은 계속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다시 말해 우리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도 살았으며, 예지 혹은 영이라고도 하는 것은 현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장막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영체가 이 세상에 보내졌고, 이곳에서 육의 장막, 즉 눈에 보이는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부분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것이지만[고린도전서 15:47 참조], 생명이 다할 때 몸을 떠나는 부분은 영적인 것이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의 장막은 무덤에 묻힙니다. 육체는 땅에서 난 부분이라 대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육의 장막 안에 두신 예지, 사유하고 생각하며, 노래하고, 말하는

힘이 있는 예지는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지는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인 지상 생활에서 벗어나, 육의 장막이 성결하게 되어 재결합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했다면 육의 장막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화로워진 것처럼 영화로워질 것입니다.³

시인의 입을 빌자면 “인생은 실재하고, 인생은 진지하며”, “무덤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헨리 워드워즈 롱펠로, “인생 예찬”] 육의 장막에 거하는 영은 불멸합니다. 영은 무덤을 초월하여 삽니다. 몸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계속 삽니다.⁴

저는 이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한 부분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특권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생은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후기에 계시해 주시고 명백하게 알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⁵ [77쪽 제언 2 참조]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상 생활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연이 빚어낸 작품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조직체와 완벽한 몸과 심장 박동, 유아기에서 성년기로의 성장 발달, 그 후 이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절진적인 쇠퇴 등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오로지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장하고, 노년기를 거치고,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있을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⁶

이생은 그저 오락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생을 주신 데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하여, 진보하고 영생을 얻읍시다.⁷

후기 성도는 지상 생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준비하고 발전하고 자격을 갖추고자 이곳에 있습니다.⁸

우리는 첫째 자체를 지켜서 지상에 올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보였던 충실함

에 대한 보상이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기울였던 노력의 열매들을 지상에서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곳을 떠나갈 때 거둘 추수의 씨앗을 오늘 뿌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전세와 현세와 불멸의 상태에서 연속되는 삶의 총합이며 끝없이 진보하고 증식할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인간처럼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셨고, 지금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Lorenzo Snow, “The Grand Destiny of Man”, *Deseret Evening News*, July 20, 1901, 22 참조]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기를 바라고, 충실하다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의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생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자연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법칙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놓인 기회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생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더욱 위대한 기회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시기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오류를 피하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며,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 그분을 좀 더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⁹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위대한 미래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는지, 만일 내일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지상에서 한 일들에 대해 보고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것 같은지 살펴봐야 합니다.¹⁰ [78쪽 제언 3 참조]

이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생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몇 가지 것들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각자가 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여 붙잡는 영원한 것들입니다.¹¹

세상이 태초부터 혈안이 되어 왔던 부나 권력과 같이, 사람을 안락하게 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질 좋고 풍부한 의복,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음식,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온갖 종류의 부로 넘쳐납니다. 우리의 집은 더욱 안락합니다. 복음이 지상에 온 이후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놀랄 만큼 증가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토록 갈망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최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가치 있다 여기며 태초부터 갈망해 온 모든 것이 오늘날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 안락을 주는 것과 사람의 명예를 추구해 왔고, 이기심이 우리 영혼에 심은 것을 추구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자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¹²

이 세상 좋은 것들이 풍족하게 있다 하여 안주하고 속지 맙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잊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마가 복음 8:36 참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간과하지 맙시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노력합시다.¹³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슬픈 장면 중 하나는 누군가가 대지에 묻히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더 큰 축복을 거절하고,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거품을 계속 불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게을리 하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슬픔을 느낍니다.¹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써 얻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예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진리, 여러분이 얻고 유익을 얻는 지식과 경험 말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¹⁵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찾게 될 보물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돌봄으로써 그곳에 쌓아 둔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영생을 얻을 기회입니다.”

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이웃을 섬길 때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¹⁶

얼마나 많은 귀중품을 지녔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등, 세상에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고, 지상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회입니다.¹⁷ [78쪽 제언 4 참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구주의 의로운 삶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모범이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도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인류에게 알리는 첫 번째 확증이었습니다.¹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하나님의 영혼에서 예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결하게 된 예수님의 지상 장막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영화로운 해의 왕국의 존재가 되시고, 신회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우편에 자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모든 율법을 따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권능이 있으셨으며, 죽음을 제압하고 길을 마련하셔서 온 인류가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따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영화롭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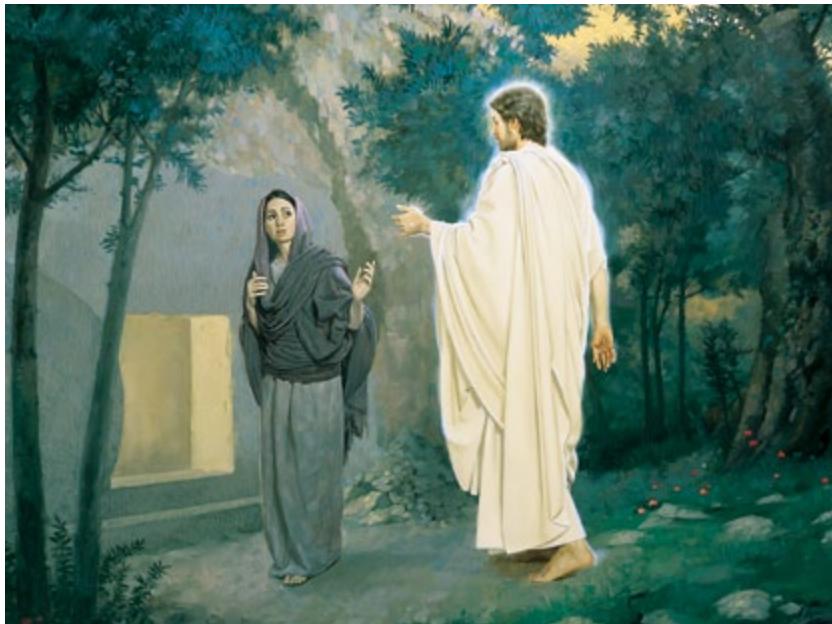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순수함과 의로움과 덕으로 감옥 문을 여시고, 죽음과 무덤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가기를 고대하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개척하셨습니다.²⁰

교리와 성약 88편을 펴고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주님께서는 구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 88편에서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현재 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영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불멸의 몸으로 거듭난 동일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배웁니다.[교리와 성약 88:14~17, 28~33 참조]²¹

세상에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르쳐 줍니까? …… [구주의] 부활은 복음을 이해하는 후기 성도들에게는 명백하지만, 세상에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의로운 자들이 그곳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자 입법자가 되실 때를 대비하여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²² [78쪽 제언 5 참조]

우리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지식에서 영감과 격려와 위안을 받는다.

욥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욥기 32:8] 그러한 숨결을 받지



“구주의 부활은 우리도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인류에게 알리는 첫 번째 확증이었습니다.”

못한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영이 몸을 떠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를 기다리며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²³

죽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슬프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 인생살이를 마쳤을 때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다면, 이곳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대로 살도록 격려해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는 모든 선과 모든 발전이 영원도록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²⁴

우리 모두는 저 세상으로 불려갈 시간을 향해 급속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영향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인생의 허무나 짜증스러움 외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무언가가 없었다면, 저는 현세에서

사는 동안 겪어야 할 시련 속에서 지쳐 버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²⁵

주님께서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육신을 지니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물의 본질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고유의 개체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영은 그분이 주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를 하도록 육의 장막을 주시고 지상에서 거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받은 증거를 받았고 제가 아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확증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세울 기초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혼신이란 확신,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위안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²⁶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보다는 저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저 또한 그곳으로 오라는 소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불안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필멸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행복과 장점을 증진시켜주리라는 희망과 확신으로 그때를 고대합니다.²⁷

죽음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사라지고 영생의 실재성을 직시하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이별을 고하라는 부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이별이 닥칠 때, 죽음은 우리가 허락하는 경우,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삶에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 위안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희망 없이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분의 조언과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는 모든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평범할 테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신성한 경전을 두셨습니다. ……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식을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비통해하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 것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안겨 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할 하늘에 보물을 계속 쌓을 것입니다.[마태복음 6:19~20 참조]

저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죽음에 의한 일시적인 이별은 영원한 진보의 여정에서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²⁸ [78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67~69쪽)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를 위안하려 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 스미스 회장은 어디에서 위안을 얻었는가?
2. 스미스 회장은 “이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한 부분”(70쪽)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3. 70쪽의 소제목 아래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공부한다. 이 부분에 나오는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목적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4. 71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히 72쪽의 끝에서 세 문단과 73쪽의 둘째 문단까지를 살펴본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거품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5. 74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언급했다. 88편 14~17절과 28~33절은 부활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칠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 74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77쪽까지 읽는다.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견디기 쉬운 인생의 시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5:12~26, 35~42, 53~58; 니파이후서 9:6~13; 앤마서 12:24; 28:12; 교리와 성약 93:19~20, 29~34; 130:18~19; 아브라함서 3:24~26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흥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마음속으로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부분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짹을 지어서 배운 내용을 토론하게 한다.”(이 책 vii쪽에서 발췌)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44, 94.
2. Deseret News, Feb. 13, 1932, Church section, 5, 7.
3.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Deseret Evening News, June 27, 1908, Church section, 2.
4. Conference Report, Apr. 1905, 62.
5. Conference Report, Oct. 1923, 70~71.
6. Conference Report, Apr. 1905, 59.
7. Conference Report, Oct. 1906, 48.
8. Conference Report, Oct. 1926, 102.
9.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2.
10. Conference Report, Apr. 1905, 63.
11. Conference Report, Oct. 1909, 78.
12. Conference Report, Apr. 1932, 44.
13. Conference Report, Oct. 1906, 50.
14. Conference Report, Oct. 1923, 70.

15.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2.
16. *Deseret News*, May 26, 1945, Church section, 6.
17.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3.
18. "President Smith Sends Greetings", *Deseret News*, Dec. 27, 1950, Church section, 3.
19. "Mormon View of Life's Mission", 2.
20. Conference Report, Apr. 1905, 60.
21. Conference Report, Apr. 1939, 122 – 23.
22. Conference Report, Apr. 1950, 187 – 88.
23. Conference Report, Apr. 1939, 121.
24. Conference Report, Oct. 1921, 41.
25. Conference Report, Oct. 1923, 71.
26. Conference Report, Oct. 1921, 39.
27. *Deseret News*, May 26, 1945, Church section, 4.
28. "Some Thoughts on War, and Sorrow, and Peace", *Improvement Era*, Sept. 1945, 501.



커틀랜드 성전 내부. 이곳에서 고대 선지자인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인봉하는 권능과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열쇠를 부여했다.



우리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성전 축복

성전의 목적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거룩한
의식들을 집행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1905년에 새로 사도로 부름 받은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조셉 애프 스미스 회장을 위시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과 함께 중요한 교회 사적지 몇 곳을 순례했다. 그들이 방문한 장소 중 한 곳은 이 경륜의 시대에 초기 성도들이 첫 번째 성전을 건립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였다. 스미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도시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맨 처음 반긴 것은 아름다운 커틀랜드 성전이었습니다. ……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신 구주를 보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열쇠를 맡겼고, 일라이 어스와 엘리야가 위대한 부름의 권능과 장엄함을 띠고 찾아와 자신들이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던 시대에 맡았던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일행과 함께 성전 안을 둘러보며 성전을 지은 헌신적인 성도들을 떠올렸다. “우리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낮에는 성전 기초를 놓고 벽을 세우며, 밤에는 건물이 결코 완공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지켜낸 이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이 바친 헌물을 받아 주시고, 지상에서 그들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¹

여러 해 뒤 교회 회장으로 성별된 스미스 회장은 아이다호 아이다호풀 성전을 현납했다. 그는 현납 기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성전에서 행해지는 구원 사업에 대해 감사드렸다.

“오 하나님,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맡은]’[교리와 성약 27:9] 고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종 조셉 스미스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열쇠와 권세를 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계획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사, 구원의 계획이 인간 가족 모두를 아우르고, 복음이 모두에게 두루 미치며, 당신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왕국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조상들의 계보를 찾는 일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쁜 일이 되게 하사 그들이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 당신의 성전에서 의식들을 집행함으로써 시온 산의 구주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엘리야의 영이 세계 각지의 모든 백성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조상들의 계보를 모으고 활용하도록 하시며,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영원한 승영과 관련된 모든 의식들을 행하는 데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스미스 회장은 또한 현납 기도에서 성전이 참으로 주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공언했다.

“저희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성전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당신께 현납하나이다. 이 성전이 당신 보시기에 거룩하여, 기도의 집, 찬양의 집, 예배의 집이 되며, 당신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고, 당신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거처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께 성스러운 모든 부분을 성결케 하고 성별하셔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이 집에 깃든 거룩함으로 감동 받게 하시옵소서. ……

하나님 아버지시여,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손님이며 이 성전이 당신의 집임을 느끼게 하시옵소서.”² [91쪽 제언 1 참조]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성전에서 우리는 가족을 영원토록 인봉하는
의식들을 포함한 성스러운 의식들을 받는다.**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 신성한 권세를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자녀들에게 특정한 의식들을 받고 수행해야 한다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해의 왕국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에 가서 축복을 받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그 왕국을 위해 준비할 기회를 받습니다.³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⁴

각 [성전]은 위대하고 영원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집으로서, 하늘과 땅에서 매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에 적합한, 성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이 의식은, 의식을 받고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가족의 보유 및 유대, 끝없는 세상,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서 가족과 함께 승영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⁵

우리는 결혼 성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19 참조] 우리가 이곳에서 맺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등과 같은 가족 관계가 하늘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이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세에서 상속하도록 정하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지닐 때 우리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⁶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가 만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들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을 다시 만나, 사랑이 넘치는 환영을 받으며, 그들이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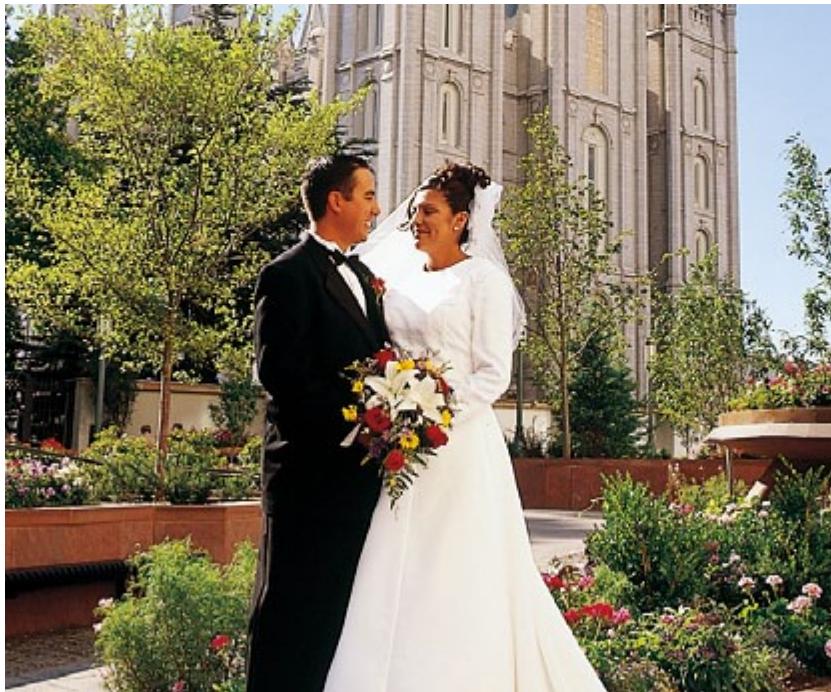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규정하신 특정한 의식들에 참여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현세와 영원토록 결합될 수 있으며,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⁷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결혼으로 맺어질 수 있는 곳은 몇 장소에 불과하며, 그러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합당하게 살면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 특권을 받아들여 그렇게 했을 사람들은, 잠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아무것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영원토록 결합될 수 있는 곳에 살며,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하러 갈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책임이 얼마나 더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축복을 감사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을 가르쳐, 그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그 성스러운 의식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합시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⁸

주님의 집에서 제가 받은 모든 의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각각의 의식은 저 하나만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꺼이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제공하시는 것들 중 일부를 제가 받도록 허락 받은 것뿐입니다.⁹

이미 건축되었거나 앞으로 현납될 모든 성전은 자신과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 성전을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합당하게 준비한 모든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¹⁰ [91쪽 제언 2 참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장소에
불과하며, 그러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성전 사업을 통해 도울 수 있다.**

계보 협회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 역사]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의 집으로 가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 받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서로에게 인봉되게 하며, 가족이 결합되게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성전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잃게 될 것이며, 끊어져 내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 일 중 하나는 성전을 완공하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행해야 합니다.¹¹

북부 유타에 있는 한 마을에 살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형인 헨리는 은행가이자 상인으로 부유했습니다. 동생인 조지는 농부로, 겨우 생활할 정도로 여력이 없었지만, 죽은 조상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계보를 조사하여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가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형도 성전에 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자 헨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내 사업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

일년쯤 지난 후에, 헨리가 조지 집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꿈을 꾸었는데, 걱정이 되는구나. 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조지가 물었습니다. “헨리 형,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래?”

헨리가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이생을 떠나 휘장 저편으로 간 꿈을 꾸었어. 길을 가다가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여러 곳에 서로 무리 지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와 악수하고 열씨안으며 너를 축복해 주었고 너를 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한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구나.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조지가 물었습니다. “형 생각엔 우리가 휘장 저편에 있는 것 같았어?”

“그래.”

“그렇다면 이건 내가 형한테 말해 온 것에 관한 꿈이야. 난 형이 휘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어.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해 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 …… 형도 서두르는 게 좋겠어. 형이 그들을 위해 이 사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갔을 때 무슨 일을 겪을지 맛보았잖아.”[91쪽 제언 3 참조]

저는 이 두 형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이 진지하고 신성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며, 영원한 결혼이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회원들 중에는 자신의 계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에 대



“남마다 이러한 성전에 가서 휘장 저편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현신과 충실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조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주님의 집에 갔다 왔다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 봅시다. 휘장 저편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환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반겨 맞으며 영원토록 축복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상에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버린 그 형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¹²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성전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전에 연결된 적이 없는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지상에서 뿐 아니라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성전에 가서 저편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헌신과 충실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저편에 계신 분들도 그에 못지 않게 우리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들은 우리와 우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후손들과 지상에 살고 있는 후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¹³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신 친족들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수년 전 시카고에서 진보의 세기라는 박람회가 열리던 어느 날, 저는 우리 교회 창구로 가서 선교사들에게 위대한 문화 및 과학 박람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담당자의 성이 도스라고 말하길래,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자 영국 대사이기도 했던 찰스 지 도스의 형제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와 친분이 있거든요.”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방문해 봐야겠어. 분명 헨리 도스일거야.” 헨리 도스와는 친분이 있었기에, 저는 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도스 씨에게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조지 앤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와서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자, 그는 비서에게 저를 들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리하여 비서는 순서를 기다리던 백여 명 뒤에 세우지 않고, 저를 옆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스입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지만,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는 도스 씨가 틀림없었고, 도스 대사의 형제인 것도 맞았지만, 그는 루푸스 도스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루푸스 도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람회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박람회가 열리도록 조직하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박람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된 것이

경이롭습니다. 도스 씨께서 바쁘신 분이란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리려고요.”

“매우 사려 깊으시군요.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백여 명이나 당신을 만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당신처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뜻밖에,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게 앉기를 청했을 때,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스 씨, 당신 가족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말인가요?”

“어느 곳이든 말입니다.”

“혹시 계보에 관심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계보 도서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실례한다고 말하고는 사무실을 걸어나가 오래된 가족 성경만 한 상자를 들고 돌아 왔습니다. 그는 칼을 집어 들어,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하얀 박엽지에 싸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박엽지를 벗기고 제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제본된 책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책은 인쇄가 훌륭했고 삽화가 풍부하게 들어 있었으며, 표지는 금박으로 고상하게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스 씨, 정말 멋진 책이군요.”

“그럴 수 밖에요. 이만 오천 불이나 들여 제작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갖게 된다면 분명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지세요!” 만난 지 5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이만 오천 달러 상당의 계보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잠시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책을

갖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하며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계보 도서관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나서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이건 제 모계인 게이트 가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제 부계인 도스 가의 계보를 준비 중입니다. 그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책이 완성되면, 당신에게 사본 한 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만 달리 상당의 계보! 그것은 단지 제가 어떤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려 했기 때문에 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를 돋고 계십니다. 길이 어떻게 열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보를 준비하도록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사업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교리와 성약 124:32 참조]이라고 매우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계보를 준비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 이생이 끝날 때까지 그 기회를 낭비한다면, 나중에 바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임무를 다하도록 이런 저런 방법으로 격려하고, 조언하고, 충고해 주십니다. 직접 이 일을 할 수 없는 가족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성전 계보 및 기록 사업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뜻을 다한다면, 우리의 계보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 뜻을 다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¹⁴ [91쪽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82~83쪽에 나오는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 현납 기도 발췌문을 읽고, 교리와 성약 109편 1~5절, 10~13절(커틀랜드 성전 현납 기도)

를 읽는다. 성전에 참석할 때 어떤 느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간증을 강화시킨 경험을 생각해 본다.

2. 스미스 회장은 성전을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83~84쪽 참조)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성전 결혼을 준비하라고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86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는다. 여러 가지 다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가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88쪽의 소제목 아래에서 시작하여 90쪽까지 살펴본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조상들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도우셨는가?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어떠한 축복들을 받았는가?

관련 성구: 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97:15~16; 110편; 124:39~41; 128:9, 15~24.

교사를 위한 도움말: 한 사람이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읽는 동안 다른 반원들에게 “특정한 원리나 개념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라고 권유한다. 구절에 낯설고 어려운 낱말이나 구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읽기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 반원들 중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돌아가면서 읽게 하지 말고 자진해서 읽어 줄 지원자를 찾는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56쪽)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06, 57.
2. “Dedicatory Prayer …… Idaho Falls Temple”, *Improvement Era*, Oct. 1945, 564 – 65.
3. *Deseret News*, Feb. 13, 1932, Church section, 7.
4. Conference Report, Oct. 1950, 159.
5. “The Tenth Temple”, *Improvement Era*, Oct. 1945, 561.
6. Conference Report, Oct. 1905, 29.
7. “Priceless Prospects”, *Improvement Era*, June 1950, 469.
8. “The Tenth Temple”, 561, 602.
9. Conference Report, Oct. 1929, 25.
10. “The Tenth Temple”, 602.
11. “The Tenth Temple”, 602.
12. “The Tenth Temple”, 561, 602.
13. Conference Report, Apr. 1937, 34 – 35.
14. “On Searching for Family Records”, *Improvement Era*, Aug. 1946, 491, 540.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온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자란 가정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 모두는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여러 증거를 통해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봐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¹

스미스 회장은 노년이 되어서도 어머니인 사라 파 스미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일을 애틋한 마음으로 회상했다.

“저는 후기 성도 어머니에게서 직접 훈육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이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층 방에는 침대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님께서 주무시는 침대였고, 맞은 편에는 작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각납니다. 이층 방으로 올라가자, 어머니께서는 제 작은 간이 침대 옆에 앉으셔서 저도 함께 무릎 끓고 앓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두 손을 포갠 다음 어머니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어머니께서 제 침대 옆에 앉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이 가득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정말 간단한 기도였지만 …… 그 기도는 제게 하늘로 닿는 창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제게 닿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린아이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를 160만 킬로미터 넘게 여행하면서 어디에서든 저

는 매일 밤낮으로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²

평생토록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방편으로서 기도에 의지했다. 한번은 태평양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수영하다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저는 수영을 꽤 잘하는 편이고, 즐겨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파도가 상당히 높고 물살이 셨는데, 그래도 저는 해안을 떠나 바다 쪽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부서지면서 제 쪽으로 밀려올 때면 저는 그 파도 속으로 잠수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쇄파(물결) 경 사진 해안으로 들어올 때 해저의 저항으로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깨지는 것-옮긴이)가 일기 시작하는 지점을 지나 위 아래로 크게 넘실대는 너울 위에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놀이에 열중해 있는데, 이전 파도 때 잠수하고 나서 미처 [다음 파도에] 대비하기도 전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부서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저를 덮쳐 바다 밑바닥 수면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저는 저류(바다 수면 아래에 표면 흐름과는 반대로 흐르는 역류-옮긴이)에 몸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때 파도가 빠르게 연속으로 여러 차례 몰려왔고, 저는 다음 파도에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기운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 파도의 꼭대기에서 가까운 부두에 있는 기초 보강 콘크리트 말뚝이 보였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있어 콘크리트 말뚝을 붙잡는다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목표한 곳에 닿을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콘크리트 말뚝을 팔 길이 정도 앞둔 곳으로 쓸려 갔을 때, 저는 팔을 뻗어 콘크리트 말뚝을 껴안았습니다. 팔다리로 콘크리트 말뚝을 꼭 껴안은 탓에, 콘크리트 말뚝을 뒤덮은 날카롭고 검푸른 따개비에 가슴이며 다리며 허벅지를 베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고통을 참아내며 콘크리트 말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너울이 제 쪽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거기에 몸을 맡겨서 좀 더 해변에 가까운 콘크리트 말뚝으로 옮겨갔습니다. 매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안전한 너울에 몸을 실어 이 말뚝에서 저 말뚝으로 옮겨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해안가로 다가갔고, 마침내는 얕은 곳에 이르러 해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모래밭에 닿자 저는 탈진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거의 익사할 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모래밭에 누워 방금 겪은 끔찍한 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은 주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고, 겸손해졌습니다.”³ [100쪽 제언 1 참조]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듯이 그분께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막연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⁴

수년 전에 ……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한 아홉 살 난 고아 소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가족이 되어 준 친구들과 함께 사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소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온 소년은 주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의사들은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술실로 실려 들어간 소년은 주위를 둘러 보다가 자신의 일로 의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이것이 심각한 수술임을 깨달았습니다. 의료진이 마취 준비를 하는 동안 소년은 그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의사는 당황한 듯 변명하며 “그건 좀 곤란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다른 의사들에게도 부탁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없다면,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의사들이 수술대 덮개를 벗기자 소년은 수술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많이 아파요. 아픈 곳이 낫게 해 주시겠어요? 수술을 하실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저를 낫게 해 주시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낫게 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소년은 기도를 마치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준비되었어요.”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린 소년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소년은 빠르게 완치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사연을 들은 한 남자가 [수술 현장에 있던] 한 의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한 어린 소년에게 집도한 수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술한 어린 소년만도 여러 명이 됩니다.”

그러자 남자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했던 소년 말입니다.”

의사는 매우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입에 담기에는 너무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 드린 이야기를 해 준 후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백 명 넘게 수술해 왔지만, 그 어린 소년 앞에 섰을 때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년은 하늘로 난 창을 열고, 마치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후,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⁵ [100쪽 제언 2 참조]

우리도 매일 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감사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하늘을 열 권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게 임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어 그분께서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시다.⁶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운 삶을 살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도록 영감 받을 것이다.**

저의 부친께서는 청년 시절에 프로보 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신 일이 있습니다. …… 당시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 무릎을 끓고 ……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로보에 있는 제 가족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없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

여림잡아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아버지가 강에 빠지신 그 시각에 할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와 바위들이 협곡으로 쏟아져 내렸고, 아버지는 속수무책이셨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보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격류가 너무 거세어 누구라도 휩쓸리면 살아남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면 위로 머리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위 아래로 내동댕이쳐지며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일어나 아버지를 들어 올려서 강가로 밀어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⁷

우리는 개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비록 구한 대로 허락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은 허락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⁸ [101쪽 제언 3 참조]

기도는 우리 생활과 가정과 지역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주님께서는 ……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기도를 할 때 실제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듯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서 곤경에서 벗어나고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할 절대적인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⁹

예수 그리스도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면서도 기도하라는 권유를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받는 보호를 잃게 됩니다.¹⁰ [101쪽 제언 4 참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저는 세상의 혼란과 서두름과 부산함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기도도 없이, 주님의 축복도 없이 내버려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기도의 영향력 아래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행복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에 삽니다.¹¹

하나님께 있는 힘을 벼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감사드릴 때 미치는 영향력이 가정에 머물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께 흘러가게 만듭시다.¹²

우리 가정이 늘 기도와 감사가 깃든 곳이 되게 합시다. ……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심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통치자나 시장과 같이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 ……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위정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기도에서 발휘되는 힘은 측정할 수 조차 없습니다.¹³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족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관점이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늘 아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아내도 마찬 가지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단합하려는 참된 소망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모든 중요한 일에서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한 광고판에서 다음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머문다.”이 광고판을 누가 그곳에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그 문구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강하게 권고하건대, [가족과]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의미가 없거나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주님께 온 마음을 열고 기도를 드리며, 아내와 아이들도 그렇게 함께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는, 그곳에 가면 느낄 수 있는 영향력이 깃들 것입니다.¹⁴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에 질서를 세우도록 촉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음과 기호에 이끌려 가지 마십시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기도의 영향력 아래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 영생에 이르는 길에 머물게 하고 해의 왕국으로 이끄는 기도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¹⁵ [101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생애에서”(93~95쪽)에서 스미스 회장이 어린 시절에 기도에 관해 경험한 일이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 한다. 자녀에게 기도의 힘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아홉 살 난 소년 이야기(95~96쪽)를 다시 살펴본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서 함께하시는 것을 더 자주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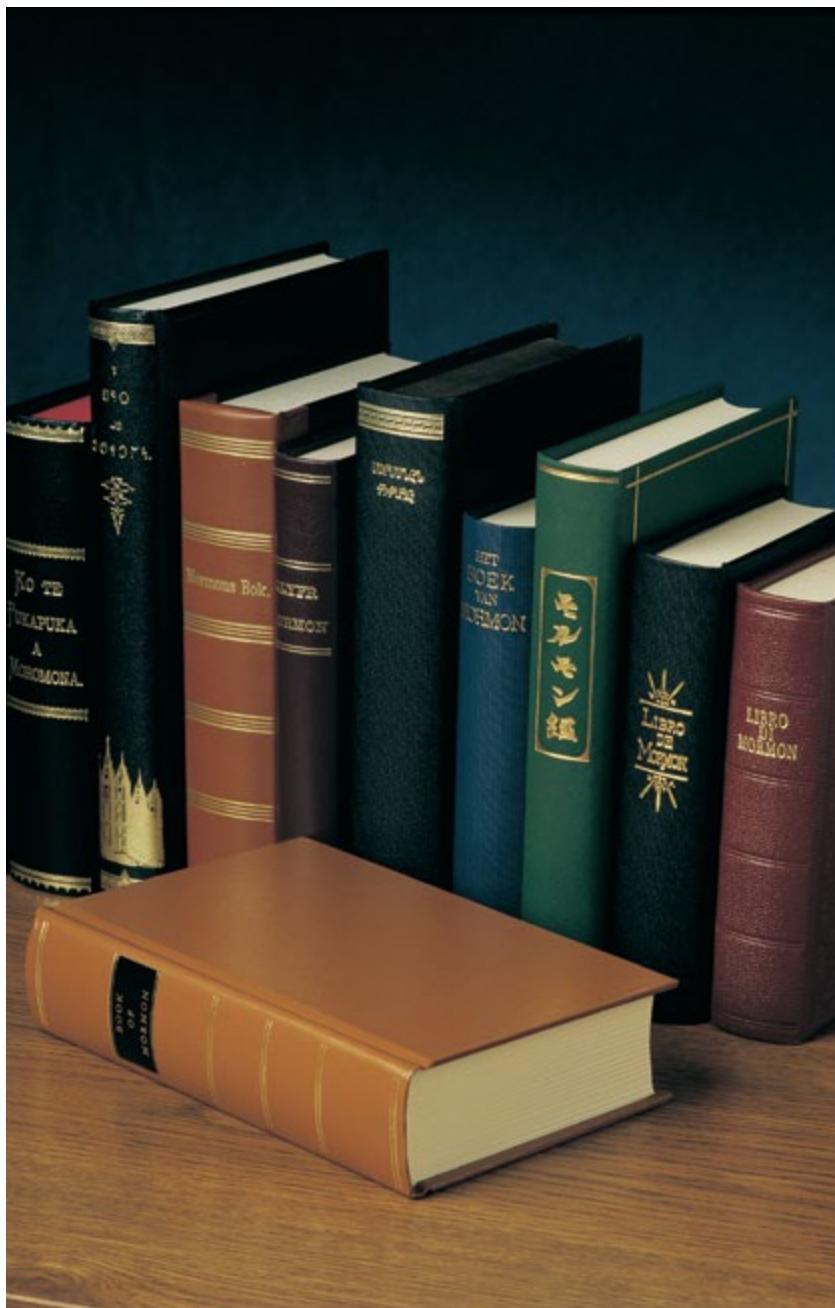
3. 97~98쪽에 나오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로 뭔가를 간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때를 떠올려 본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는가?
4.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받는 보호를 잃게 됩니다.” (98쪽)라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기도의 힘과 보호를 느꼈는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기도의 힘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5. 스미스 회장은 기도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머물게”(100쪽) 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가족 기도를 꾸준하게 하려면 가족들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개인 기도가 여러분 삶에 더 옥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6:7~13; 7:7~11; 니파이후서 4:35; 앤마서 34:18~27; 37:37; 제3니파이 18:20~21; 교리와 성약 88:63~64

교사를 위한 도움말: “행동을 해야 할 사람은 학생이다. 교사가 각광을 받거나 무대 주인공이 되거나 모든 말을 하거나 모든 활동을 이끈다면 이는 교사가 반원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애셀 디 우드립,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1쪽)

주

1. “Testimony of Elder George Albert Smith”, *Liahona: The Elders' Journal*, Feb. 2, 1915, 501.
2. Conference Report, Oct. 1946, 150 – 51.
3. “How My Life Was Preserved”,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121, scrapbook 1, pages 45 – 46.
4. Conference Report, Apr. 1931, 31.
5. “A Story of Two Boys”, *Improvement Era*, June 1949, 365.
6. Conference Report, Apr. 1942, 17.
7.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Deseret News*, Feb. 16, 1946, Church section, 1
8. Conference Report, Oct. 1934, 51.
9. “Saints Blessed”, *Deseret News*, Nov. 12, 1932, Church section, 5.
10. Conference Report, Apr. 1941, 25.
11. Priesthood meeting, Oct. 4, 194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2.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6.
13.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3 – 64.
14.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0.
15. Conference Report, Apr. 1933, 72.



“경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세상의 여러 언어로 접하게 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영생을
준비하도록 돋기 위해 거룩한 경전을 주셨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노년에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은 경전 한 구절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청소년 시절의 경험을 회상했다. “열네 살 무렵에 저는 주일학교 공과반에서 몰몬경에 나오는 앤마서 40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감동은 그 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을 때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영이 육신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말해 주는 경전 구절 중 하나입니다.[11~14절 참조] 그 후로 저는 줄곧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가기를 바라 왔습니다.”¹ [109쪽 제언 1 참조]

스미스 회장은 다른 사람들도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대중 앞에서 말씀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을 키우는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장했다.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며, 그는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훗날 스미스 회장은 그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 함께 복음 원리에 대해 토론하던 중에 그가 ‘매우 흥미롭군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제가 보기엔 아주 선해 보였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지신 확신을 저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 형제님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경전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이며, …… 형제님은 제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²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경전에 담긴 진리는 인간의 철학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성경과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는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아직 이러한 경전들이 없지만, 이러한 경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호메로스나 셰익스피어, 밀턴 등, 세계가 자랑하는 모든 위대한 작가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그들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가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문학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에 …… 필요한 모든 진리가 제가 이미 열거한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2, 3천 권 규모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을 갖지는 못할 지라도, 약간의 비용만 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한 값진 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³

이러한 책들만 갖추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훌륭한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 대영 도서관, 그 외 여러 국가에 있는 도서관에 비치된 수백만 권의 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 거할 곳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여 계시해 주시고 출판되게 하신 모든 내용은 이 성스러운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책들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온갖 최신 잡지가 꽂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가장 잘 팔린다고 광고되는 책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책을 버리고 오직 이 신성한 경전만을 간직한다 해도,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명하셨고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하신 내용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축복 중에서도 우리가 경전을 간직하고 누리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자녀

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그분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축복을 잊지 맙시다.⁴

경전을 읽으며, ……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경탄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 주어진 여러 시대의 모든 철학보다 이러한 성스러운 기록에서 더 큰 위안을 받습니다.⁵

우리는 인간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예쁜 그림인 양 떠받듭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거룩한 경전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철학은 결코 아무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거할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⁶

저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라고도 일컬어지는, 성경과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같은 다른 경전들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모든 사람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자신이 받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조언과 권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⁷ [109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는 시련을 극복하고 승영을 준비하도록 돋기 위해 경전을 주셨다.

이날은 시험의 날, 곧 우리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말이 올지 자문하는 날입니다. 영감 받은 몇몇 사람들은 어떤 종말이 올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훌륭한 책, 곧 [경전]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 삶을 바로잡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⁸

주님께서 이 후기에 대해 교리와 성약 1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하나님이고, 영은 증거하나니, 그 증거는 참되며, 참된 것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느니라, 아멘.”[교리와 성약 1:17, 37~39]

이 서문은 진지하게 숙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온유하신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담긴 조언입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제가 읽어 드린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땅의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⁹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바를 명심하지 않습니다. ……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친절을 베푸셔서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간청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실한 대변자들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경전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고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¹⁰

[경전]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경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세상의 여러 언어로 접하게 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은 지극히 중요하며 후기 성도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는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귀중한 진리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왕국에 거할 곳을 차지할 수 있게 준비시킬 목적으로 세상에 인쇄되고 출간된,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아주 귀중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우리가 그분의 권고와 조언을 읽을 수 있고, 경전이 아니었다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채로 남았을 일들이 설명된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¹¹ [109쪽 제언 3 참조]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가족의 신앙을 고취시킨다.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책에서 가족에게 뭔가를 읽어 주거나, 가족을 불러 모아 그들이 알아야 할 바를 가르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너무 바빴다고 시인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¹²

우리는 주님께서 성스러운 기록을 통해 주신 많은 축복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 시대까지 보존되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조언과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성스러운 기록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 이상합니다.¹³

만일 자녀들에게 이 신성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 주님께서 우리 손이 닿을 곳에 이런 거룩한 기록에 담긴 훌륭한 가르침을 두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겼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을 연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읽으십시오. 가정에서 경전을 가르치십시오. 가족을 불러 모아 계시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어넣으십시오. 경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합니다.¹⁴

이러한 책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자녀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소년 소녀들의 영원한 구원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 그들이 이 책에 담긴 내용에 흥미를 느끼도록 도



“가족을 불러 모아 계시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어 넣으십시오.”

을 수단과 방법을 찾고, 경전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도록 하십시오.¹⁵

제가 아이였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벽난로 옆에 앉아, 바닥에 앉아 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니와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니라”[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가족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알아내고, 예전에 읽은 적이 있다면 다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자주 읽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성경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영을 위해, 위안과 축복을 주기 위해 주신 다른 경전들을 읽어 주십시오.¹⁶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가정에서 경전을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족에게 가르치십시오. 중요하지 않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오늘날의 서적을 읽는 데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진리의 원천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¹⁷ [아래의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03쪽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경전 구절에서 이와 비슷한 감명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 본다. 경전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최근에 경전을 읽으며 경전이 참되다는 간증이 강화되는 경험을 한 일을 떠올려 본다.
2. 104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05쪽 첫 네 문단까지를 읽고 경전이 여러분의 개인 장서(여러분이 읽고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가정 및 개인 생활에서 경전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3. 105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07쪽 첫째 문단까지를 되돌아본다. 마지막 날에 닥칠 재앙을 맞는 데 경전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는 사람이 힘든 시련을 겪을 때 경전을 사용하여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4. 107~109쪽에서 스미스 회장이 가족에게 주는 권고를 깊이 생각해 본다. 경전을 함께 공부하는 가족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경전에 대한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과 함께 더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신명기 6:6~7; 여호수아 1:8; 로마서 15:4; 디모데후서 3:15~17; 니파이후서 4:15; 힐라맨서 3:29~30; 교리와 성약 33:16

교사를 위한 도움말: “모든 진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해 줌으로써 반원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 ‘좋은 예이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49, 83–84.
2.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5–66.
3. Conference Report, Oct. 1917, 43.
4.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4–65.
5. Conference Report, Oct. 1931, 120.
6. Conference Report, Apr. 1946, 125.
7. Conference Report, Oct. 1923, 70.
8. Conference Report, Apr. 1942, 14.
9. Conference Report, Oct. 1917, 42–43.
10. Conference Report, Oct. 1940, 107–9.
11.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4.
12. Conference Report, Oct. 1950, 179.
13. Conference Report, Apr. 1929, 30.
14. Conference Report, Oct. 1917, 43–44.
15.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5.
16. “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Deseret News*, Feb. 16, 1946, Church section, 6.
17. Conference Report, Oct. 1917, 41.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끄신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서 계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며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유타 주 밀포드 근처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정 말이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짙은 안개였습니다. 비행기 창 밖을 내다보았지만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분당 5킬로미터 속도로 산맥을 향해 접근하고 있으며, 그 산들을 통과해야만 솔트레이크밸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조종사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 나침반이 있다 한들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고도를 알려주는 계기가 있더라도 비행기가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솔트레이크밸리로 가는 길목에 솟아 있는 산들을 지나기 위해 아마도 고도를 충분히 높여 비행하다가 그곳에 가까웠을 때 활주로 불빛을 보고 착륙지점을 찾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길을 잊고 불빛과 공항을 찾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조종사가 어떻게 방향을 찾는지 알기 위해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 조종실로 갔습니다. 비행 고도가 30미터인지, 300미터인지,



조지 엘버트 스미스와 아내 루시 스미스 회장은 비행기에서 경험한 일을 토대로 계시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3,000미터인지 알 수 없었으며, 조종사가 대략적인 고도 외에 다른 내용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 기장은 전화국 교환원이 전화를 받을 때 쓰는 것과 유사한 작은 장치를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기장에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거나 길에서 벗어나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물었습니다. 부기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에는 무선전파로 안내를 받습니다.’

제가 ‘그게 뭔가요?’ 하고 묻자 그는 그 전파는 두 지점을 잇는, 즉 전기로 이어지는 비행로로 비유할 수 있으며 이번 비행에서 그 두 지점은 밀포드와 솔트레이크시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장이 귀에 착용한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전파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장치에서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계속 나지만 비행기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그 소리는 전신기에서 나는 딸각 소리로 바뀌어, 기장에게 경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 기장이 다시 전파 영역, 즉 비행로 안으로 방향을 돌려 안전한 길로 들어서면 딸각 소리가 멈추고 다시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계속 그 전파를 따라 비행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개와 어둠에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고 현 위치를 알 수 없어도, 기장이 올바른 길로 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우리가 곧 목적지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크게 안도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몇 분 후 저는 비행기가 하강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산꼭대기를 넘어 공항에 접근했습니다. 비행기가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우리는 착륙 지점을 알리는 불빛이 벌판 위에서 환히 비치는 광경을 보았으며, 귀중한 짐을 실은 비행기는 갈매기가 물 위에 내려앉듯 사뿐히 착륙하여 천천히 활주로에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

저는 비행기에서 배운 교훈을 여러 차례 되새기면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겪는 경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경전에 기록된 조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교회 회장으로 선택되고 성임받고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장이며, 어떤 음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

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지하시는 한, 그가 받은 직분을 기꺼이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스미스 회장은 비행기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우리가 합당하다면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아는 바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경고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고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음성은 ‘돌아오라, 너는 잘못을 범했노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무시 했노라.’ 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 키십시오. 올바른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영 길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

하나님의 영을 얻고, 그 영을 간직하십시오. 영과 계속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합당하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늘 인도될 것입니다.”¹ [119~120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대에 그려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자 우리 구속주이심을 알며,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께 축복을 받고자 스스로를 준비하면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아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능자의 숨결을 향유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그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되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상이 시작되어 그분의 첫 번째 자녀들이 지상에 내려온 아래로 계속 관심을 보여 오셨음을 압니다.²

이 위대한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와 시작부터 달랐던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계시를 믿으며, 아버지께서 아담 시대부터 해 오신 대로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뛰어넘는 신앙과 지식이 있습니다.³

우리가 유별난 사람들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 책들,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믿는 까닭도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과거 이 세상에 살던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지셨던 것과 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시며,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을 유별난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각 시대에도 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계시를 믿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도 이러한 양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수천, 아니 수백만 자녀들은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알려 주신 그분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계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⁴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이 달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고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달혀 있던 하늘 문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열렸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⁵ [120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는 교회 회장에게 계시를 내려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하여 조직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계시로 인도됩니다.⁶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는 회원의 교회에 속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교회 회장이 가르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바를 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회장이 전하는 가르침은 사람들이 하는 단순한 권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은 우리 영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의를 새로이 하게 합니다.⁷

교회 안에는 부지불식간에 그릇된 길로 들어가서 [교회 회장]의 권고에 반대하는 것이 주님께 맞서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나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해의 왕국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회장은 이 필멸의 생에서 하늘과 땅의 주님을 대리하기 위해 공식으로 임명된 교회의 기장임을 기억합시다.⁸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 개인 또는 무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 쪽 선 안에 있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꿈과 시현과 계시는 그분께서 적절하게 임명하신 종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위안이나 만족을 줄 꿈이나 시현을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⁹

저는 우리가 계속 교회 회원으로 남는다면 길을 아는 기장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의 지시를 따른다면 …… 세상이 처한 영적 재앙을 피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인류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것임을 압니다. 오늘날 제 영혼은 그러한 지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칩니다.¹⁰ [120쪽 제언 3 참조]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믿습니다. …… 여러분은 교회를 감리하시는 분과 같은 지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성임하여 세우신 분과 같은 영감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으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지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님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가에 비례해서 받는 주님의 영감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이 미치는 감미로운 영향력을 느껴 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가에 비례해서 받는 주님의 영감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¹¹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교회처럼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닌 집단을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간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주님의 일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조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간증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그 간증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고양하고 강화하며 만족을 줄 것입니다. ……

…… 저는 소년 시절에 이 사업이 주님의 일임을 배웠습니다.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 영감을 향유하

기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두 사람 또는 몇몇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¹²

여러분은 이 사업이 주님의 일임을 알기 위해 역사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 지식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기원이나 이생을 마친 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¹³

우리에게 간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¹⁴

저는 제가 받은 지식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빛과 진리 속에서 저를 북돋아 주고 의로운 삶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주이며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라는 지식에 대해 그중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제가 직접 아는 사실입니다.

……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안다고 간증드릴 수 있어서 기쁘며, 그 사실을 밝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 온 영혼을 다해 감사드립니다.¹⁵

제 생애에서 받은 모든 축복 중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이 사업은 그분의 일이라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제가 이 생 또는 다가올 생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다른 모든 축복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¹⁶ [120쪽 제언 4 참조]

성신은 필멸의 삶이라는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는 것은 …… 필멸의 삶이라는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내자를 얻고, 그분의 해의 왕국에 거할 처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¹⁷

우리는 읍기에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씀을 읽습니다.[읍기 32:8 참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러한 영감을 받을 자격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

히 살아야 할 바대로 산다면 그러한 영감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발전하며, 발전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¹⁸

주님의 영을 동반하는 것은 피로와 …… 두려움, 인생살이에서 종종 닥쳐오는 모든 일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¹⁹

구주와 함께 지낼 때에도 제자들은 실제로 구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는 채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권능이 임하고 불의 침례를 받자 그들은 어려움을 직시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박해를 겪었지만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으며, 충실함을 입증한다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무덤에서 영광과 불멸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 결과입니다. ……

저는 우리를 진리와 의의 길에 머물게 하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감에서 얻은 소망으로 우리 삶이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되기를 기도드립니다.²⁰

인생살이를 마칠 때, 우리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월음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의 왕국의 문을 열어 주어 …… 영원토록 행복하게 나아가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²¹ [120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생애에서”(111~114쪽)를 읽으면서 스미스 회장이 비유로 듣 이야기를 우리의 필멸의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안개, 무선전파, 땔각 소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머물도록 도와 주셨는가?

2. 114~115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오늘날에도 성경 시대처럼 계시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오늘날을 위한 계시는 경전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3. 115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16쪽 첫 다섯 문단까지를 살펴본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권고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사람들이 하는 단순한 권고와는 차원이 다[르다.]”(116쪽)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개인적인 계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4. 116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18쪽 첫 여섯 문단까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의 간증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스스로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5.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118~119쪽)에서 성신이 우리를 돋는 방법을 묘사한 낱말과 구절을 살펴본다. 여러분 인생에서 더욱 자주 성신을 동반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해지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요한복음 15:26; 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32:5; 모로나이서 10:3~5; 교리와 성약 1:38; 42:61; 76:5~10; 신앙개조 제9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질문을 한 뒤 반원들이 잠시 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신 대답하지 말고, 반원들이 대답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 때는 반원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질문을 다시 말해 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9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37, 50–53.
2. Conference Report, Apr. 1946, 4.
3. Conference Report, Apr. 1917, 37.
4. “Some Points of ‘Peculiarity’”, *Improvement Era*, Mar. 1949, 137.
5. *Proceedings at the Dedication of the Joseph Smith Memorial Monument*, 55.
6. “Message to Sunday School Teachers”, *Instructor*, Nov. 1946, 501.
7. Conference Report, Oct. 1930, 66.
8. Conference Report, Oct. 1937, 52–53.
9.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8–19.
10. Conference Report, Oct. 1937, 53.
11. Conference Report, Oct. 1911, 44.
12. Conference Report, Apr. 1946, 124–25.
13. Conference Report, Apr. 1905, 62.
14.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Improvement Era*, Sept. 1949, 557.
15. Conference Report, Oct. 1921, 42.
16. Conference Report, Apr. 1927, 82.
17. “To the Latter-day Saints Everywhere”, *Improvement Era*, Dec. 1947, 797.
18. Conference Report, Apr. 1944, 31.
19.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5–16.
20. Conference Report, Apr. 1939, 124–25.
21. Conference Report, Apr. 1941, 28.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소망입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열렬한 소망

온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회복된 복음이 필요하며,
그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와 가까웠던 한 친구는 이렇게 적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타고난 선교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을 이웃과 나누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밝혀진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딸’, 즉 자신이 형제 자매로 여긴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미스 회장님과 함께 여러 차례 기차여행을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미스 회장님이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가방에서 전도 용 소책자를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승객들 사이로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회장님은 친절하고 기분 좋은 태도로 여행객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는 회장님이 새로 사귄 친구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라든가, 성도들이 나부에서 이동한 이야기, 유타로 가기 위해 평원을 횡단하며 겪은 시련과 곤경, 혹은 몇 가지 복음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승객에서 저 승객으로, 대화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스미스 회장님과 교분을 맺어 온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분이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해 선두에 선 첫 번째 선교사였음을 배웠습니다.”¹

스미스 회장에 대한 이런 글도 있다. “그는 집에 일하러 온 굴뚝 청소부 와도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는 결코 ‘회복된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가장 커다란 친절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다.² [132쪽 제언 1 참조]

스미스 회장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수시로 다룬 주제가 복음을 나누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서는 이 주제를 세 장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그 중 첫 번째인 본 장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며, 제13장은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제14장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충만하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세상은 온통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알려 준 진리가 지상에 있으며, 그 진리, 즉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앓는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³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놓으신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초는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 받는 침례, 성스러운 권세를 소유한 사람에게 안수례로 성신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갔으나 이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모든 병의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좁고 따라가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이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안겨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덕과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승인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의 성직자들은 성스러운 권세가 없습니다.⁵

후기 성도들만이 복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⁶

세상에는 주님 말씀이 없어 겪는 기근이 실제로 존재하며, 많은 정직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고상한 성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 조직에서 성직자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좀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선량하기는 하나 복음과 복음 의식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 대부분을 회중에게 도덕적 교훈이나 시편을 낭송해 주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그들은 덕과 정직 등에 대한 말씀 소재로 특수한 경전 구절들을 선택합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도움이 되고 감화력이 있지만, 모든 영혼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제정하신 복음 의식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설교자는 거의 없습니다.⁷ [132쪽 제언 2 참조]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다.

도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널리 퍼진 악한 영향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예로운 사람들이 진리에 무지합니다. …… 대적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 맞설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⁸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해 왔습니다. 들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주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권고한 말을 기꺼이 행동에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도다.”

그런 다음 빌립이 주님에 대해 설명하자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그이는 어디에서 나셨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나사렛에서 나셨노라.” 그러자 선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요한복음 1:43~46 참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구주께서 그를 일컬어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실 정도의 인물이었으나, 그 잘못된 말에 속아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얻고 “와서 보라”는 제자의 초대를 받아들인 후, 나다나엘은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가 “와서 보십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⁹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지구 여러 곳을 다니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역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아래로 사백만 리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풍토가 다른 여러 지역을 여행했으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대하는 선한 사람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이들이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¹⁰

세상에는 거대한 교회 조직이 많으며 독실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살며, 간절한 기도로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감화되고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¹¹ [132쪽 제언 3 참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나누려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외부 사람이 볼 때 후기 성도들에게는 비상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지 제게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야기 나누는 교회 회



“믿는 이들은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신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원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정원사이든 경찰관이든 간에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이 영광스런 진리를 열의를 다해 이웃과 나누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일까요? 우리 아들들이 선교 임지로 부름 받는 날이 왔을 때나 우리 의무를 접어 두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을 받을 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입고서 이 후기에 받은 권세를 지닌 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해 …… 자진해서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¹²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소망입니다. 스스로를 위하고 재정 면에서 안정된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우리가 이룬 성취로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서는 이를 믿고 그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안겨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믿는 이들은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6]¹³

주님께서 우리 못지 않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나누려 하지 않고 인생을 부주의하고 무심하게 산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부 교회 회원들은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진리를 나누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⁴

이웃이 아프면 기꺼이 보살필 것이며, 이웃이 상을 당하면 위로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우리는 이웃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해치는 길을 걷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며, 마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양 지나쳐 버립니다.¹⁵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인지합니까? 어디에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나타하게 앓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은혜와 더불어 영생에 관한 지식을 얻고서, 이제 축복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¹⁶

사람들을 개심시키려는 거룩한 열의를 발휘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보인 이타적인 관심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토록 감사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¹⁷

아버지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받은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안겨 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이 베풀어 주신 훌륭한 것들을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나누고자 강하고 열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영혼에 깃들며, 그들이 진리를 접할 때, 이를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합니다.¹⁸

이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진리를 더욱 빠르게 전파하고 나라들을 멸망에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저는 수적인 증가보다도 우리가 발산하는 영향력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으며,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인류의 구속주 면전에서 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과 구원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믿기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¹⁹ [133쪽 제언 4 참조]

주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복해 주셨으며, 그 지식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그 지식을 나눌 책임이 따릅니다.²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버리거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생의 것들을 축적하는 데 시간의 대부분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빛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계명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²¹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은 이 소식을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 전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이웃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주위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휘장 저편에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²²

얼마 후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 영의 영향력 안에서 인생을 향유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준 것에 대해 우리에게 고마워하시고 축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²³

복음의 영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승영하는 데 필요한 영화로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인류의 구속주 면전에서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신 권능과 당신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온유와 거짓 없는 사랑과 결의와 친절함으로, 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음 지식을 최대한 알려 주려 했습니다.”²⁴ [133쪽 제언 5 참조]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나눈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불멸의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연구해 보라고 북돋아 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지식을 가슴속에 심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를 받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이 이보다 더 가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²⁵

몇 안 되는 우리 가족만 구원하려고 이기적으로 애쓰는 대신에 우리가 영향을 주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수십, 수백 명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았다고 느끼며 그들의 사랑과 감사를 영원토록 만끽할 것입니다.²⁶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노력한 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연락하고 기꺼이 복음을 나누려 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받아들이며, 해의 왕국의 시민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가 휘장 저편에서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하신 심판자 면전에 서서 짧은 필멸의 삶에 대해 보고할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인 이들이 우리 곁에서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사람이 제게 처음으로 당신의 영화로운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어 아버지를 과거보다 더욱 열렬하게 찾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해 준 장본인입니다. 바



“복음의 영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 이 사람이 저에게 그 같이 훌륭한 일을 해 준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어 참으로 오랜 기간인 영원이란 시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덕분에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 모든 남녀와 아이들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얼마 되는 돈을 벌거나 양떼와 소떼, 주택과 토지를 획득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쪽 세상으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데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생에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 줄 감사와 사랑은 영원토록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불로 청결하고 정결해져서 해의 왕국이 되고, 청결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이 쓸려 없어졌을 때, 필멸의 기간 동안 섬겨 온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된다

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즐거운 기회이지 않습니까?²⁷ [132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123~124쪽)를 되돌아본다. 여러분은 왜 스미스 회장이 선교 사업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교회를 위해 선두에 선 첫 번째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회복된 복음은 대부분의 종교가 제공하는 “도덕적 교훈” 외에 세상에 무엇을 제공하는가?(몇 가지 예를 보려면 124~125쪽을 참조한다.)
3. 125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26쪽 첫 일곱 문단까지 읽는다.(또한 교리와 성약 123:12 참조)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교회에 대한 오해를 극복한 사람을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 그러한 초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128쪽 세 번째 문단을 읽는다.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가 이웃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27~129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망설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5. 129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30쪽 첫 두 문단까지 읽으며,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6.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130~132쪽)을 다시 살펴보며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소개해 준 사람을 생각해 본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관련 성구: 아모스 8:11~12; 모사이야서 28:1~3; 앤마서 26:28~30; 교리와 성약 4:4; 18:10~16

교사를 위한 도움말: “몇 가지 훌륭한 생각을 택하여 유익한 토론을 하고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황하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 교실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려면 절대로 서두르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제프리 알 훌런드,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9쪽)

주

1. Preston Nibley,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Improvement Era*, Apr. 1950, 270.
2. Merlo J. Pusey, *Builders of the Kingdom* (1981), 240.
3. Conference Report, June 1919, 43.
4. Conference Report, Apr. 1922, 54–55.
5. Conference Report, Apr. 1922, 53.
6. Conference Report, Apr. 1916, 47.
7. Conference Report, Oct. 1921, 38.
8. Conference Report, Apr. 1922, 53.
9. Conference Report, Oct. 1949, 5.
10. Conference Report, Oct. 1945, 120.
11. Conference Report, Apr. 1935, 43–44.
12. Conference Report, Oct. 1927, 46–47.
13. *Proceedings at the Dedication of the Joseph Smith Memorial Monument*, 55.
14. Conference Report, Apr. 1934, 28.
15. Conference Report, Oct. 1916, 50.
16. Conference Report, Apr. 1935, 46.
17. “Greeting”, *Millennial Star*, July 10, 1919, 441.
18. Conference Report, Oct. 1927, 49.
19. Conference Report, Oct. 1922, 98.
20. Conference Report, Apr. 1922, 53.
21. Conference Report, Oct. 1916, 50.
22. Conference Report, Apr. 1916, 48.
23. Conference Report, Oct. 1948, 7–8.
24. *Deseret News*, Aug. 20, 1921, Church section, 7.
25. Conference Report, Oct. 1916, 50.
26. Conference Report, Oct. 1941, 102.
27.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214–16;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많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총 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48년에 가까운 기간 외에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2년간 수행한 유럽 선교부 회장직을 비롯하여 교회 전임 선교사로 세 번에 걸쳐 봉사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부름이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공식적인 선교사 부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평생을 선교사로 봉사했고, 교회 회원들에게 이웃 및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수시로 상기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라고 독려했다.

스미스 회장이 유럽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한 시기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전쟁 때문에 유럽 선교부 선교사 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선교사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서 그 숫자를 늘리는 일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후기 성도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들을 퍼뜨려 생긴 편견을 극복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회장은 충실했던 후기 성도들이 보인 모범에 힘입어 이 사업은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미스 회장은 교회가 더욱 널리 알려질수록 “회원들이 그들의 미덕으로 존경을 받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고 말씀했다. “일상에서 후기 성도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평소 품어 왔던 근거 없는 편견은 빠르게 불식되었습니다. …… 그런 후 그들은 각기 관찰한, 우리가 맷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력은 없습니다.”¹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스미스 회장은 유럽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을 도와야 할 책임을 일깨워 주는 글을 썼다.

“합당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을 복음으로 향하게 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한 뜻이 되어 주어진 기회를 이용합시다. 현세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영국과 유럽 선교부 산하 여러 나라에 사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²

몇 달 후에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썼다. “모든 교회 회원은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매일같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소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화시킨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³

1921년에 유럽에서 돌아온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과거에 존재하던 우리에 대한 편견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성도들에게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라고 권면했다. “우리의 과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⁴ [144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모든 교회 회원은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된 특권과, 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속한 많은 친구들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을 나누어 줄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⁵

우리는 이 후기에 알려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우리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아들딸인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며, 우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알고 있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일회장단은 그들이 받은 권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낮 시간은 물론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수시로 일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형제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여행하고 후기 성도들을 가르치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와드 감독과 그 보좌들 또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틀림없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이웃을 위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할 일을 다하고 있습니까?⁶

교회 초기 시절에 받은 계시 중 하나로서 ……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보라,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려 하는 도다. ……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4:1, 3]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선교 임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쌓고 의로운 본을 보여 사랑이 샘솟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흙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교리와 성약 4:4]⁷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책임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⁸

우리 모두는 훌륭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개별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지 보고 놀랄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광과 축복에 눈을 뜨게 해 준 것을 고마워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세세 영원토록 사랑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받지 못한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기쁜 진리를 최대한 많은 영혼과 나누려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⁹

우리 각자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소심해지지 맙시다.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교회 회원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려는 것임을 일깨워 줍시다.¹⁰ [145쪽 제언 2 참조]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영향으로 복음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정 임무에 따로 부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각자가 평화와 사랑과 행복의 영을 발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우리 안으로 모여들게 만들 기회가 늘 있습니다.¹¹

불과 며칠 전에 동부 지역을 방문하던 한 자매님은 어떤 신사 한 분과 대화하는 동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같은 믿음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본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과 신실한 신앙인에게 따르는 화평과 행복을 보고 감탄하게 되며, 자신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목격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제 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차이를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각자가 평화와 사랑과 행복의 영을 발할 기회가 늘 있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발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느끼던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때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대부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¹³

대적은 복음 진리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지와 형제애, 신앙을 발휘하여 대적이 아버지 자녀들 마음속에 뿌려 놓은 편견을 이겨내고, 때로는 선량한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존재하는 그릇된 인상을 무너뜨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¹⁴

저는 우리가 속한 이 위대한 조직이 모범을 보여서 비회원인 이웃들이 우리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범을 보이는 문제에 관한 제 심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범을 보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며, 그들은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기회를 우리에게 줄지도 모릅니다.¹⁵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응당 해야 하듯이 진리를 소중하게 받들며, 우리 삶이 진리에 담긴 아름다움과 일치하여 우리 행위를 본 이웃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훌륭한 선교 사업을 한 것입니다.¹⁶ [145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장차 선교사가 될 이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선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사명뿐 아니라, 때가 되어 우리 아들딸들이 교회 성역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대적의 유혹에 끊임없이 대항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순수하고 유덕하고 의롭게 생활해야 하며, 그래야만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청결하지 않은 장막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은 자신을 청결하고 유순하게 지키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딸들을 하나님 영의 영향력 안에서 양육합시다.¹⁷

자녀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우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배우기 위해 선교 임지로 보내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55년 전, 아니면 60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남부에서 선교 사로 봉사하는데, 대가족에서 자란 한 남성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져가서 창세기를 읽어 주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세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남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 후기 성도 가정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바뀌었습니다. 연구와 기도를 통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었고 복음이 지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들 앞에

홀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기탄없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¹⁸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소년이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수시로 주시는 선교 사업 부름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을 배워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이 자신의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부모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교 임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 합당한 열두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할 백 사람보다도 유용합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 마음속에 신앙이 자리잡도록 노력하여 그들이 어떤 부름을 받든 기쁘게 응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게 만듭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¹⁹ [145쪽 제언 4 참조]

아들딸들을 선교 임지에 보내자고 …… 간청드렸습니다. …… 저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모를 보면 기쁩니다. 몇 주 전, 한 젊은이가 선교 임지로 떠났는데, 이 선교사의 두 누이 는 그가 선교 사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쪼개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그 집에서 이 젊은이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 사업을 떠난 첫 번째 주자입니다. …… 저는 가족이 선교 임지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이 번 돈을 보내 주는 신앙이 있는, 이 훌륭한 두 자매 가슴속에 기쁨이 임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직접 봉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때 오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²⁰

저는 이 나라 여러 지역과 외국에 흩어져 선교 임지에서 일하는 우리 대표자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편지를 쓰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²¹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할 준비를 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참여한다.

머지않아 교회에는 지금까지 선교 사업을 허용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진리를 가르칠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들과 그분 왕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 삶에서 이기심을 버립시다. 선교 사업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기회가 왔을 때 세상에 나아가 진리를 전파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에 담긴 아름다움을 가르쳐 그들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손에 든 도구가 됩시다.²²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친구 중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과 많은 사치품을 소유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언질을 받았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사업을 팽개치고 갈 수는 없어. 가진 것을 놓아 두고 떠난다면 살길이 막막해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그들 손을 떠났습니다.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그들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한 성역에 부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세상에 사는 훌륭한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권세가 없는 사람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여러분이 향유하는 성스러운 권세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중 일부는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인생에 안락함을 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오는 행복을 느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의무를 망각합니다. 아직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가운데 세상에 선을 행하기 위해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교회에는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있고, 선교 임지에서 의무를 행함으로써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중년을 넘어섰으며, 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임지에서 봉사할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려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제 말씀은 세상에 그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²³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할 별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 이 교회에는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있고, 선교 임지에서 의무를 행함으로써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²⁴

이제 복음 전파를 가로막던 빗장이 내려지고 장애물이 뒤엎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의 종을 통해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여 복음

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음성 소리가 들려오면 요나처럼 숨으려 하거나 의무로부터 달아나려 하지 마십시오.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어리석은 것들을 세워 두어 대업에 대한 신앙과 헌신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 질서를 세우게 합시다.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이 스스로 질서를 세우게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부터 세상에 나아가 진리를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라고 요구하신 바대로 경고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 큰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삼켜지고 말,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뒤로 숨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요나 1:1~17 참조]²⁵

선교 사업은 쉽지 않은 일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은 유쾌한 부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충실히, 요구받은 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와 행복을 안겨 줄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어 인생살이를 마치고 창조주 면전에 섰을 때 창조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²⁶

저는 주님의 영이 교회에 널리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청지기로서 빌린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은사이자 특권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²⁷ [145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생애에서”(135~136쪽)에 있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유럽 지역 선교 사업을 그토록 낙관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족이나 친구가 복음을 공부해 보라는 여러분의 초대를 거절할 때, 스미스 회장이 보인 모범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앞부분(136~138쪽)을 다시 살펴본다. 이웃과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려 노력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
3. 138쪽의 소제목 아래부터 140쪽 첫 두 문단까지 읽으면서 교회 회원이 모범을 보여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된 경우를 떠올려 본다. 교회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이 선교 사업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4. 140~141쪽에서 예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본다.(또한 교리와 성약 4편 참조) 부모는 아들딸들이 준비하는 것을 돋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5.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142~145쪽)을 다시 살펴 본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나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로한 선교사들이 봉사하여 받는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마태복음 5:14~16; 마가복음 16:15~16; 디모데전서 4:12; 앤마서 17:2~3; 교리와 성약 31:1~8; 38:40~41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할 때, 반원들은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수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면 원리가 더 분명하고 재미있어지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데 도움이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89쪽)

주

1. “New Year’s Greeting”, *Millennial Star*, Jan. 6, 1921, 2.
2. “Greeting”, *Millennial Star*, July 10, 1919, 441.
3. “New Year’s Greeting”, *Millennial Star*, Jan. 1, 1920, 2.
4. Conference Report, Oct. 1921, 37 – 38.
5. Conference Report, Oct. 1950, 159.
6. Conference Report, Apr. 1916, 46.
7. Conference Report, Oct. 1916, 50 – 51.
8. Conference Report, Oct. 1929, 23.
9. *Deseret News*, June 25, 1950, Church section, 2.
10.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2.
11. Conference Report, Apr. 1950, 170.
12.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3.
13. Conference Report, Apr. 1922, 49.
14. “The Importance of Preparing”, *Improvement Era*, Mar. 1948, 139.
15. Conference Report, Apr. 1941, 26.

16. Conference Report, Oct. 1916, 49.
17. Conference Report, Oct. 1932, 25.
18.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6.
19. "The Importance of Preparing", 139.
20. Conference Report, Apr. 1935, 45.
21. Conference Report, Oct. 1941, 98.
22. Conference Report, Oct. 1916, 51.
23. Conference Report, Oct. 1933, 27 – 28.
24. Conference Report, Apr. 1946, 125.
25. Conference Report, June 1919, 44.
26. Conference Report, Apr. 1922, 53.
27. Conference Report, Oct. 1916, 51.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성신을 동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하면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자신이 작성한 개인 신조를 따랐다. “나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 이상에 끼워 맞춰 살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겠다.”¹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미덕을 찾아본 다음, 담대하면서도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담긴 진리를 추가하여 나누고 싶다고 제안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경험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주 쾌활하고 멋진 장로교회 목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눌 기회가 생기자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단체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덕분에 저는 그에게 말하고자 했던, 우리가 믿는 몇 가지를 설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슬픔이나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 후기에
밝혀 주신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돋고 싶습니다.”

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도 후기 성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교회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며,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목사님을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배우고 경전에서 터득한 모든 영광스러운 진리를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진리를 지키고, 여러 교육기관에서 받은 모든 훌륭한 훈련과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진리를 간직하며, …… 단란한 가정에서 함양한 모든 선한 성품, 아름답고 멋진 땅에서 사는 동안 가슴속에 자리잡은 모든 사랑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아직 여러분 삶 속에 짓들지는 않았으나 우리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 다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들어 보시고 마음에 들면 마음껏 받아들이 시라는 것입니다. ……’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입장입니다.”² [155쪽 제언 1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선교 사업은 강압이나 비판이 아닌 사랑과 친절로 행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 우리를 내몰거나 강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 그분의 대표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이며, 우리가 베푸는 성역이 바로 이것입니다.³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분 상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는 대신 애정 어린 친절과 도움을 주려는 바람으로 대표자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민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⁴

어느 교회에나 선한 남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선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여러 종파에 속한 많은 가정을 방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슬람교도도 만나고, 유교에 속한 사람들도 만났으며, 기타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화나게 한다든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 대표자인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께서 보내신 대리인으로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자기중심적이며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개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그들을 불행하게 놓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성

스러운 교회 회원으로서 누린 놀라운 기회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⁵

우리의 성역은 사랑과 인내의 성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 후기에 밝혀 주신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돋고 싶습니다.⁶

꾸짖거나 결점을 찾으면서 이 젊은이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사랑으로 선도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사랑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힘입니다.⁷

진리를 알고 간증이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나아가,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거짓 없는 친절로 다가가며,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길로 인도할 방법을 찾읍시다.⁸

저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인류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아끼고,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인내하며, 친절과 사랑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담긴 단순한 원리를 가르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영혼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⁹ [155쪽 제언 2 참조]

참되다고 아는 것을 나눌 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열의를 쏟아서 복음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¹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바와 같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능[로마서 1:16 참조]입니다. 복음은 구속주의 사업입니다. 복음은 인류의 구주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계획하신 가장 높은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사실을 제 본위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자애로써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전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¹¹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까닭은 없으며, 그 진리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복음이라면 특별히 그렇습니다.¹²

진리를 한다면, 그 진리를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뽑내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저는 이것을 알며 당신도 원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를 알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며, 알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수천 명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 몫이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¹³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복음이 이 땅에 있음을 압니다. 저는 어떤 영혼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손을 뻗을 권능과 지혜와 힘을 발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알게 합시다.¹⁴ [155쪽 제언 3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과 선을 더해 주고자 한다.

“당신이 속한 조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 조직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처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¹⁵

수천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줄을 지어 ……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과 친절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듯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무언가를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이어 온 선교 사업의 역사입니다.¹⁶

어떤 사람과 얼마간 대화를 나눈 뒤에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당신이 속한 교회도 다른 교회만큼이나 훌륭하군요.” 그는 자신이 우리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의 자녀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서 제 의무를 소홀히 한 셈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닌 진리와 덕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결점을 찾거나 당신을 비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 당신에게 있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간직하는 가운데 당신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훌륭한 것을 더 많이 가져다드리게 해 주십시오.”[155쪽 제언 4 참조]

…… 구주께서 지상에 계시던 절정의 시기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교파와 종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에 있던 거대한 회당은 자신에게 신권 권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의 일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전과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재하신다는 것을 간증한 선지자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여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 그들 가운데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남녀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의로움이 많았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런 훌륭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은 꾸짖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며, 그들이 지닌 모든 진리를 지키라고 북돋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배도했음을 인간 가족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믿도록 인도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멈추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를 알기 위해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¹⁷

인류에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시켜서 우리에게는 그들의 기회를 제약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사랑과 친절로 손을 내밀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을 그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¹⁸

**성신을 동반하여 가르친다면 성신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해 줄 것이다.**

이 교회는 세상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보내 왔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중 대다수가 세상에 있는 명문 대학에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교육이라고는 대부분 실제 인생에서 겪은 경험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가족을 고취시키는 데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성신과 함께합니다.¹⁹

저는 선교 임지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동안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는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목격합니다. 또한 그들이 봉사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전파하는 은사 말입니다.²⁰

여러분과 여러분 선조 중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을 들었습니다. …… 때때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바를 길에서 가르치는 겸손한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언가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선교 임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무리가 서서 어느 평범해 보이는 선교사가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고 말을 걸며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전해 주는 예가 없어.”²¹



“매일매일 노력하여 아버지께 축복을 받읍시다. 그분의 거룩한 영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 영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고,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에 관계 없이 가슴에 와 닿고,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확신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영입니다.²²

이 사업은 주님의 일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내지는 못합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우리처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여러분이 지닌 지식을 여러분 영혼에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노력을 축복해 주십니다.²³

매일매일 노력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분의 거룩한 영과 함께한다면 그 영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 영을 느끼고, 그 분위기에 참예할 것입니다.²⁴

이 후기에 밝혀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그 분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자녀는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 주고, 사람을 확신시키는 영이 진리를 증거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²⁵ [아래에 있는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마지막 두 문단(147~149쪽)을 공부 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생각해 본다. 그 사람이 지닌 성품 중 닮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이미 믿고 있는 복음 진리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복음 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앞부분(149~150쪽)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보여 준 사랑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때를 생각해 본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일을 피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3. 150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51쪽 첫 네 문단까지 읽는다. ‘열의’를 쓸어 복음을 나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뽐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
4. “이곳에서 제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의 자녀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서 제 의무를 소홀히 한 셈입니다.”(152쪽) 스미스 회장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각 사람들의 생활에 행복을 더해 주기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가?
5.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마지막 부분(153~155쪽)을 읽으며,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면서 경험한 일을 생각해 본다. 무엇이 그 경

힘을 성공으로 이끌었는가? 복음을 나누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3:34~35; 디모데후서 1:7~8; 니파이후서 33:1; 앤마서 20:26~27; 교리와 성약 50:13~22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을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된 조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각 조마다 지도자를 한 명 지명한다. 각 조마다 다른 부분을 할당한다. 반원들에게 맡은 부분을 조별로 읽고, 이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해당 질문을 토론하게 한다. 그런 다음 반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조에서 배운 점을 모든 반원과 나누게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1쪽 참조)

주

1.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s Creed", *Improvement Era*, Apr. 1950, 262.
2.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199 – 201;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3. Conference Report, Oct. 1930, 67 – 68.
4. Conference Report, Oct. 1931, 120.
5. Conference Report, Oct. 1945, 168.
6. Conference Report, Oct. 1927, 47.
7. Conference Report, Apr. 1950, 187.
8. Conference Report, Apr. 1934, 30.
9. Conference Report, Oct. 1928, 94.
10. Conference Report, Apr. 1916, 47.
11. Conference Report, Oct. 1927, 48.
12. "At This Season", *Improvement Era*, Dec. 1949, 801, 831.
13.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Improvement Era*, Sept. 1949, 557, 603 – 4.
14. Conference Report, Oct. 1930, 69.
15. Conference Report, Oct. 1948, 7.
16. Conference Report, Oct. 1946, 5.
17. *Deseret News*, Aug. 20, 1921, Church section, 7.
18. Conference Report, Oct. 1904, 66.
19. Conference Report, Apr. 1940, 85.
20. Conference Report, Apr. 1935, 45.
21. Conference Report, Oct. 1949, 7.
22. Conference Report, Oct. 1904, 66.
23. Conference Report, Oct. 1929, 25.
24. Conference Report, Oct. 1906, 50 – 51.
25. *Deseret News*, Jan. 12, 1907, 31.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사업을 인도하시며,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모든 교회 회원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1903년,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 회원은 30만 명 남짓이었으나 그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말년 무렵에는 교회 회원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한 성장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뜻하기에 스미스 회장은 이를 기뻐했다. 1950년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조직이 숫자 면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삶의 방법을 배우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께서 마련하신 조직에 합류하고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¹

1903년부터 스미스 회장이 서거한 1951년 사이에 교회는 전 세계로 뻔어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과 대공황(널리 확산된 경제 위기) 같은 사건으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여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는]”(다니엘 2:35) 운명이 실현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최고조에 이른 1917년,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이 진리가 더욱 빨리 전파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서 우리 시대에 지상에 회복하신 복음이 전파될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²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발전된 기술을 의로움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들 사이에 주님 사업을 진척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참으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20세기 전반부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스미스 회장은 이 기술로 주님의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믿었다. 스미스 회장은 항공산업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이 산업을 통해 총관리 역원으로서 여행하는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예견했다. 또한 스미스 회장은 더 많은 청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취하도록 교회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것을 응호했으며 이와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이 [발명품]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을 확대시킵니다. 이 발명품을 의로움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들 사이에 주님 사업을 진척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참으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많은 발명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듯이, 우리는 이 발명품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인류를 밝히고 축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³

1946년 연차 대회 말씀에서 스미스 회장은 이러한 기술 이용에 관해 예언했다. “머지않아 주님의 종들은 방문하기 힘들 만큼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단상이나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살아서 그날을 볼 것입니다.”⁴ [166쪽 제언 1과 4 참조]

스미스 회장은 교회 사업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에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 회원 각자에게 베풀시는 축복이라고 가르쳤다. 교회 회장으로 성별된 후 첫 번째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제 어깨에 올려진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속한 이 조직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압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신앙에 따라 살며 세상에 본보기가 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것이며 더 큰 행복이 넘쳐흐를 것입니다.”⁵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회원 각자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풍부하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은 [교회 회장]이나 그 보좌, 또는 십이사도 정원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종에게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모든 사람에게도 맡겨졌습니다. …… 우리는 마음대로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셨으며,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그 짐을 짊어지고 날라야만 합니다.⁶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성실함을 신뢰합니다. …… 여러분을 감리하는 역원들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 앞에] 이 사업을 촉진할 책임을 [집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대열에 서서 제 몫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짐을 날라야만 합니다. 만일 제가 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박탈당할 것입니다.⁷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다리는 좋은 계으른 종입니다.[교리와 성약 58:26~27 참조]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⁸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십이사도 정원회나 제일회장단 일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리는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일 뿐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충실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분들의 시간과 재능은 교회 곳곳에 필요합니다. …… 교회의 모든 곳에 이웃을 축복하고 주님 사업을 진척 시킬 기회가 풍부하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⁹

신권을 소유하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중 일부는 성찬식과 기타 중요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어떤 특별한 부름에만 국한시켜서 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역원이나 교사로서 주일학교에 관한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청남이나 청녀], 초등회, 가족 역사, 복지 관련 봉사자 또는 다른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자신이 맡은 직

책에 관한 책무만 수행하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훌륭한 봉사에 대해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교리와 성약 84:44 참조] 상기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모임이 일반 교회 모임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책무나 임무를 떠나 우리는 넓은 의미의 후기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를 매일매일 행해야 합니다. 곤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교회 회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봉사에서도 자신을 예외로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아는 모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처럼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의구심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성공하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의무를 계을리하고 성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영을 잃고 시온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무를 다할 때마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듯이 이 사업이 아버지의 일이며 승리로 완결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¹⁰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다수가 단합할 때 주님 말씀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강제되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전파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¹¹ [166쪽 제언 2참조]

**이 사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은 교회가 전진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불과 회원 여섯 명으로 출발한 교회는 대적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힘센 의의 팔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미 오래 전에 달걀 깨질마냥 부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교회 모든 곳에 이웃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킬 기회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¹²

교회는 대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유식한 이들과 종교 교사들이 퍼붓는 반대를 무릅쓰고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영위한 훌륭한 영들을 여기저기서 꾸준히 모아 왔습니다.¹³

저는 제 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의 일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 어릴 때는 고통스러웠고 어릴 때는 기적과 같았던 그분의 경험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파송된 할아버지는 선교사 부름을 받은 다른 이들과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동료 선교사들에 대해 거짓 고소를 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충실히 옳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쓴 혐의를 벗겨 주셨

으며 사람들 눈에 그들이 더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사업이 신성하다는 간증을 주셨는데, 그 간증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39년에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국으로 파송된 대열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대적은 그곳에서 온갖 수단으로 선교사들을 낙심시키려 했습니다. 당시에 쓰인 일지에는, 그들이 사악한 사람들에게 모략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주님께서 지켜 주셨으며,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중 여덟 명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가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교통 수단을 이용할 돈이 없는데도 걸어서 무작정 집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오랜 병마로 몹시 쇠약했고, 역마차를 타기 위해 3킬로미터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만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역마차에 오른 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으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았기에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이 영감을 받아 그들에게 돈을 주었고, 대양을 건널 뱃삯도 치러 주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메시지를 전했으며 그 성역의 결과로 신앙심 깊은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¹⁴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인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세상의 방해 앞에 전진하거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종언을 고하는 날이 왔다고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위엄 있는 권능으로 교회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나라에서 나라로 전진했습니다.¹⁵

저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다니엘과 히브리 소년 세 명을 파멸에서 구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트레이크밸리]에 들어온 우리 선조들을 지켜 주시고 이곳에서 자리 잡게 하신 후 축복을 내리사 사람들이 빙곤 속에서도 이 위대한 [솔트레이크] 성전 및 다른 위대한 성전들을 갖도록 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바로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줄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¹⁶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굴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이 계속 굴러 나아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륜의 시기에도 우리와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거 경륜의 시대에는 복음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는 복음이 지상에서 거두어지거나 다른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손에 쟁기를 들고 계신 여러분께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¹⁷

시온이 전진하는 것을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훌륭하고 오래된 배는 당당하게 항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참된 이들은 무사히 하나님의 항구에 내려서 영광과 불멸과 영생이라는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지키신 연로한 분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청소년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수시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등을 돌린 후,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아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후기 성도들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¹⁸

주님의 일은 진척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는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래, 해가 바뀔 때마다 교회는 전년보다 더욱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성장에 대한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 관한 진실과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빛이 대중 사이에 전해지면서 무지가 만든 편견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면 반대 세력이 이미 오래 전에 승리했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업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립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로마서 1:16 참조]이기 때문입니다.¹⁹ [166쪽 제언 3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지상 여진을 조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대에 그분의 종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새롭게 하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후기에 부름 받은 그분의 종들에게 지시하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지상 여건을 조정하시며 사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들을 자세를 갖출 때까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르치라고 명하신 진리이며, 그 진리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²⁰

주님께서는 몰몬경이 세상에 나올 즈음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분 백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리라는 점을 한 선지자에게 밝히셨습니다.[니파이후서 30:3~8; 제3니파이 21:1~14; 29:1~2 참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를 1830년과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손을 펴시어 사람에게 복음을 알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지상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종들이 권능으로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상 여건을 조정하실 것입니다.²¹

구주께서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조셉 스미스—마태 1:31 참조]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장애물을 치우고 계시며,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²²

시온은 구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몰몬이즘”이 펼치는 일들을 곡해하는 이 세상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람의 자녀들이 “몰몬이즘”을 그들 영혼에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사업이 우리 아버지의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유덕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일이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더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진리를 갈망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온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온 땅에서 가장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²³ [166쪽 제언 4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스미스 회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될 것”(159쪽)이라고 예언했다. 어떤 기술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새로운 기술 또는 과학의 진보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 사업에 기여하는가?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앞부분(160~161쪽)을 읽으면서 현재 여러분이 맡은 교회 부름이나 임무를 생각해 본다. 부름을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사업을 진척”시키게 되는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이 사업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공식 부름이나 임무를 떠나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3. 161~164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주님께서는 그분 교회의 사업을 인도하신다고 간증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 주는가?
4. 159쪽과 164~165쪽에서 스미스 회장이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본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났거나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관련 성구: 다니엘 2:44~45; 요엘 2:27~28; 모사이야서 27:13; 교리와 성약 64:33~34; 65:1~6; 107:99~100; 모세서 1:39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단순하게 말한다. 여러분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거나 반원들에게 해답을 찾아보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음 수업 때 시간을 주어 그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50, 6.
2. Conference Report, Apr. 1917, 37.
3. *Deseret News*, May 10, 1947, Church section, 10.
4. Conference Report, Oct. 1946, 6.
5. Conference Report, Oct. 1945, 173.
6. Conference Report, Apr. 1904, 64.
7. Conference Report, Oct. 1911, 44.
8. Conference Report, Apr. 1934, 30.
9. Conference Report, June 1919, 42–43.
10. “Our Full Duty”, *Improvement Era*, Mar. 1946, 141.
11. Conference Report, Apr. 1930, 68.
12. Conference Report, Oct. 1945, 170–71.
13. Conference Report, Oct. 1916, 47.
14. Conference Report, Apr. 1931, 32–33.
15. Conference Report, Oct. 1931, 122–23.
16. Conference Report, Oct. 1945, 174.
17. *Deseret News*, Aug. 20, 1921, Church section, 7.
18. Conference Report, Oct. 1906, 49.
19. “New Year’s Greeting”, *Millennial Star*, Jan. 1, 1920, 3.
20. Conference Report, Apr. 1917, 37.
21. Conference Report, Apr. 1927, 82–83.
22. “New Year’s Greeting”, 2.
23. Conference Report, Apr. 1906, 58.



“안식일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크나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어렸을 적,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를 배웠다. 일요일이면 종종 이웃에 사는 남자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마친 후 함께 야구를 하자고 집으로 찾아왔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 아이들처럼 야구나 다른 놀이를 하면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하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거란다.……’ 저는 그러한 가정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¹ 어머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크나큰 축복이 따른다는 점을 수시로 상기시켰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여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이 성찬을 경건히 대하는 태도를 보고 기뻐했다. “교회 회원들이 주의 만찬이 신성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저는 형제 자매들이 성소에 나와 이 상징물을 …… 합당하게 취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쁩니다.”² [176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계명은 짐이 아닌 축복이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그분의 날로 성별하셨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평일 동안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의 거룩한 날에 그분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행복을 얻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³

우리는 [주의] 날이 주어진 목적을 생각해 보고 예배에서 오는 유익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길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⁴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오락을 즐기는 날, 즉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날로 여깁니다.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류가 많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⁵ [176쪽 제언 2 참조]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영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경고하며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 육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⁶

자라나는 [교회]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지역 사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을 회개하지 않고, 상당수 후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날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⁷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종교 집회에 참석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봉사를 어느 정도 행한 후에는 쾌락을 쫓고 안식일의 영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해도 무방하며, 또 그렇더라도 아버지께서 용인해 주시리라 착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더 잘 이해하는 교회 회원들이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신앙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떠나 버릴 것임을 경고합니다.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안식일을 범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⁹

우리 중 일부가 그러하듯이 [안식일]이 주의 날임을 잊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성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기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크나큰 기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권고와 훈계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¹⁰

교회 참석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안식일에 그분의 거룩한 집에 가서 인류의 구속주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희생을 기억하며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¹¹

[안식일은]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성별하신 날이며, 이 후기에 그분의 거룩한 날에 기도와 금식의 집에 가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라는 계명을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집안에 편히 앉아서 세상적인 음악을 감상하고 대중 연설이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경이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면서도 종교 집회 장소에 참석할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유익하지만 예배의 집에 가득한 영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집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해서, 주의 거룩한 날에 성찬을 취하도록 허락된 주님의 집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기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된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¹² [177쪽 제언 3 참조]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는 일은 성스러운 특권이다.

저는 평화와 고요함 속에 함께 모여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상징물을 함께 취하면서 얼마나 큰 은사를 받는지를 우리 대부분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찬식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순간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부활하여 승영할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신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함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징물을 취할 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신 이 성찬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며 영원도록 축복을 주기 위해 주어졌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¹³

성찬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이 상징물을 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와 자신을 위해 집행된 다른 복음 의식들은 필수적이라고 여기나, 정작 주의 만찬인 성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찬을 정규적으로 취하도록 권고하실 만큼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 저자 세 명은 성찬에 대해 기록했으며[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9~20 참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몸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경전 속 여러 구절에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권고나 계명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양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가르침을 주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안식일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부활하신 구속주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취해야 합니다. ……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하신 이 성찬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며 영원토록 축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구시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미대록] 백성에
제도 성찬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3니파이 18장에 다음
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임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모든 자
에게 주게 하리라.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
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
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

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제3니파이 18:5~7]

이 말씀에 덧붙여 주님께서 이 주제에 관해 우리 시대에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는 이 부분에 관해 주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나옵니다. 75절부터 시작되는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으니라.

그리고 장로나 제사가 이를 베풀어야 하나니,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그는 교회와 더불어 무릎을 끓고 …… 엄숙한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름다운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5~77]

물을 축복하는 기도도 이와 유사합니다.[교리와 성약 20:78~79 참조]

이 성찬 기도에 담긴 의미는 얼마나 성스럽고 심오합니까? 형제 여러분, 성찬을 축복할 때, 계시로 주어진 이 축복문을 …… 정확하게 되풀이하는 동안 주님의 영을 동반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되뇌면서, 우리는 축복문에 담긴 정서를 느껴야 합니다.¹⁴

때때로 성찬식에 응당 있어야 할 엄숙한 분위기가 없는 가운데 성찬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성찬은 매우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 성찬을 취하는 사람은 축복문에 나오는 의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¹⁵ [177쪽 제언 4 참조]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영적인 힘이 새로워진다.

우리는 육신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밥이나 물 같은 물질적인 음식을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을 취해야 합니다. 해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잃고 축복받은 기회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영을 동반할 때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린도전서 11:23~30]

저는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을 취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순결해야 하며 우리 손은 깨끗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한 모든 증오심을 버려야 하며 이웃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온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분께

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찬을 취하는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맷는 성약을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약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지 살펴 봅시다. 신앙심 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에 감사하며 축복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우리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여 책임을 받아 아버지의 영을 동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합시다.¹⁶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여 축복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¹⁷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계속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한다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¹⁸ [177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69쪽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 만약 교회 회장이 여러분의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다면, 어떤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과 성찬에 대해 더욱 경건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2. 170쪽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음미해 본다. 더욱 많은 사람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떤 유익을 받겠는가? 가족과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도록 도울 적절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일요일에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때, 집에 남아 복음 공부를 할 때에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171~172쪽 다른 사례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4. 172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174쪽까지 읽으며, 어떻게 하면 성찬식이 여러분 생활에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어린이들이 잘 준비하여 성찬을 취하고 성찬을 경건하게 여기도록 도울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5. 본 장에 실린 마지막 네 문단(175~176쪽)을 읽으면서 스미스 회장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본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영적인 힘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관련 성구: 출애굽기 20:8~11; 이사야 58:13~14; 마태복음 18:20; 제3니파이 18:1~12; 20:8~9; 모로나이서 6:5~6

교사를 위한 도움말: “숙련된 교사는 ‘오늘 나는 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찾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1쪽)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48, 188.
2. Conference Report, Apr. 1908, 34 – 35.
3. Conference Report, Oct. 1937, 50.
4. “A Faith Founded upon Truth”, *Deseret News*, June 17, 1944, Church section, 4.
5. Conference Report, Oct. 1935, 120.
6. Conference Report, Apr. 1948, 13 – 14.
7. “Tribute to Richard Ballantyne”, *Instructor*, Nov. 1946, 505.
8. “Faith—and Life”, *Improvement Era*, Apr. 1949, 252.
9. Conference Report, Oct. 1948, 188.
10. Conference Report, Oct. 1932, 23.
11. Conference Report, Oct. 1932, 23.
12. *Deseret News*, Jan. 31, 1925, section 3, page 4.
13. “The Sacredness of the Sacrament”, *Improvement Era*, Apr. 1946, 206.
14. Conference Report, Apr. 1908, 35 – 37.
15. “The Sacredness of the Sacrament”, 206.
16. Conference Report, Apr. 1908, 34 – 35, 37.
17. Conference Report, Apr. 1908, 36.
18. Conference Report, Apr. 1908, 37.



강건하게 만드는 신앙의 힘

신앙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며, 의인은 신앙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힘을 얻는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십 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던 1919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다. 스미스 회장은 도착 직후 현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자리에서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입은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유럽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새롭고 긴장된 상황을 맞았으며, 사람의 자녀들은 도처에 만연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제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스미스 회장은 시련 속에서도 회원과 선교사들이 들이는 노고는 성공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저는 선하고 유능한 선교부 동역자들과 선교 임지에 계시는 충실한 분들이 기울여 주시는 도움을 통해 정직한 영혼들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으리라는 즐거운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¹

선교부 회장으로서 스미스 회장이 받은 가장 긴급한 임무 중 하나는 유럽 내 선교사 수를 늘리는 일이었다. 전쟁 기간 중에 교회에서 유럽에 파견한 선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 시달리던 유럽 정부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스미스 회장은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당국 관리들을 설득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받았다. 딸 에밀리에게 쓴 편지에서 스미스 회장은 이 임무를 위해 런던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전은 신앙의 힘에 대한 증거로 가득합니다. …… 선지자 엘리야는 신앙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미 대사는 친절하게도 영국 노동부장관인 로버트 혼 경과 면담을 주선해 주었지. 로버트 혼 경 사무실에 가서 비서에게 대사가 준 서신을 건네자, 비서는 장관께서 3주 일정으로 스코틀랜드로 곧 떠나셔야 하기에 만남을 당분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물더구나. 나는 비서에게 우리는 런던에 살지도 않고 또 사안이 긴급하니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했지. 비서는 로버트 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곧 돌아와 스미스 경이 일정을 연기했으며 우리를 그날 4시에 만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 그날 아침에 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었지. 우리를 만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단다.”

약속 시간이 되자 스미스 회장과 동반자들은 로버트 혼 경의 집무실로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요구 사항을 말하고 영국에는 우리가 요청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려 애썼단다. 한 시간 반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교회 역사와 믿음 등에 대해 아주 관심있는 태도로 귀 기울여 들었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무엇을 원하냐고 다시 물었단다. 전쟁 전처럼 2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교사를 파견할 특권을 바란다고 말했더니, 로버트 경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수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하겠다고 기분 좋게 대답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짓누르던 큰 짐을 훌가분하게 해 준 그 약속을 안고 기쁘게 사무실을 나왔단다.

영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하나를 친구로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를 찾아갈 생각이란다.”²

스미스 회장이 [감리한 선교부] 선교사 중 한 사람이자, 로버트 혼 경과 만나는 데 동석한 제임스 건 맥케이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해내신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선교부에는] 불과 몇 안 되는 장로들 밖에 없었으며, 저희가 가는 길은 장벽으로 가로막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회장님께서 관리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신뢰를 얻으셨으며, 마침내 바라던 특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대업을 진척하고 그분 사업을 수행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으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우리가 얻게 하셨습니다.”³ 맥케이 장로는 스미스 회장이 “신앙과 헌신, 그가 교분을 맺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애”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기

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이 그렇듯 회장님의 신앙과 충성심이 심오하다는 것을 압니다.”⁴ [188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신앙의 힘은 경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신앙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히브리서 11:6 참조] 신앙은 모든 행동을 야기하며 경전은 신앙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신앙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으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홍수에 묻혀 버렸습니다.[창세기 6:13~22; 7:1~24 참조]

하늘에서 내린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사를 때 롯과 그 가족은 신앙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신앙이 없는 주민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창세기 19:12~25 참조]⁵

모세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마치 육지를 걷듯 홍해를 건넜으나 뒤를 쫓던 애굽 군사들은 홍해를 건너려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바위를 치매 물이 솟아나 갈증을 면했고,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출애굽기 14:21~31; 16:14~15; 17:5~6 참조]⁶

다니엘은 적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작성한 금령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져 밤새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알았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왕이 사자 굴로 가 보니,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으로 야수들도 그를 해할 수 없었으며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얻게 되었습니다.[다니엘 6:4~28 참조]

세 히브리 소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을 섬기기를 거부하여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다니엘 3:8~28 참조]



“모세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마치 육지를 걷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신앙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웠으며, 그 것을 본 왕과 백성들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바로 참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열왕기상 18:36~40 참조]

야렛의 형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탑 시절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을 때 조상들이 쓰던 언어를 신앙으로 유지했으며, 마침내 이 서반구에 이르렀습니다.[이더서 1:33~43 참조] …… 이와 비슷한 신앙으로 리하이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다른 어느 땅보다도 빼어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신앙으로 참아 내며 유대인들의 적대를 무릅쓰고 구주께서 주신 복음을 세웠습니다.⁷

세상의 구속주와 그분의 동역자들이 만든 기적은 모두 신앙으로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습니다.⁸ [188쪽 제언 2 참조]

이 경륜의 시대에 의로운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의 힘을 명백히 볼 수 있다.

후기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던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숲으로 들어가 무릎 끓고 기도하여 위대한 첫번째 시현을 보았으며, 그 일로 신회의 본질이 다시금 인류에게 알려졌습니다. 조셉은 신앙으로 쿠모라 산에 갔고 천사의 손에서 전네받은 성스러운 기록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했습니다. 조셉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키틀랜드에서 미주리 땅으로, 다시 일리노이로 인도했습니다. 약탈이 되풀이되고 집에서 내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신앙은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인도에 따라 신앙으로 위대한 나부 시가 건설되었으며, 조셉은 신앙으로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받았습니다.

브리검 영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 서부 땅[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했으며, 산 정상에 이르러 계곡을 내려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곳이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릴 장소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 사람들은 연약하고 빈곤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 위대한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시어 이 건축물을 완성할 방편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귀뚜라미 폐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데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을 때에도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추수할 작물을 보호하여 기아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

이 사업을 인도한 분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기 위해 신앙으로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우리를 교화하며, 보혜사는 이해력을 자극하고, 과거 일을 생각나게 하며, 앞으로 닥칠 일을 알려 줌으로써 계시의 영을 증거합니다.⁹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였음을 간증하기 위해 신앙으로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세상의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도 신앙 덕분입니다. 이 백성에게 임한 기적에 대한



“브리검 영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솔트레이크밸리]로 인도했습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 신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가 되고, 세상 어느 시대와도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희망을 주는 원리입니다. 혼란에 빠지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에 가로막힐 때, 우리는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신앙을 지닌 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응답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¹⁰ [188쪽 제언 3 참조]

가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부모들이 복음을 위해 감내한 어려움과 궁핍과 시련을 기꺼이 겪으려고 할까요? 신앙을 위해서 안락한 집을 떠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아갈까요?

그들 마음에 우리가 아는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지식이 심어졌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이 생겼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

며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선지자임을 알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면, 네!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해낸 그 일을 할 것이며, 후기 이스라엘의 반열에서 자신이 받은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궁핍해지든, 질병과 고통을 겪든, 집에서 내쫓기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아는 수많은 아들딸들은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간증을 인봉할 것입니다.¹¹ [188쪽 제언 2 참조]

우리가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요청하신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거리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어느 도시로 가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그날이 생각납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말을 기억하게. 도움을 청하게. 주님께 기회를 드리게. 그분께 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게.”

그 젊은 선교사는 그 도시로 가서 시장실로 들어가 면담을 청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시장은 출타 중이었습니다. 시장실에서 나와 복도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복도 끝에 있는 문에 “경찰국장실”이라고 쓰인 팻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게.” 선교사는 경찰국장실로 들어가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경찰국장이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거리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장님만큼 이 도시를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적합하지 않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는 바라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좋은 장소를 찾도록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경찰국장에게 복음을 전파할 장소를 골라달라고 부탁하는 선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경찰국장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지요.”

15분도 안 되어 선교사들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얻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전부터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던 그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게 할 방편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가능한 길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니파이전서 3:7]

주께서 요구하시거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벼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¹²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고 그분께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교회 회원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¹³ [188쪽 제언 4 참조]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신앙을 은사로서 주신다.

신앙은 의로운 삶에 좌우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면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신앙이 생기며, 의로움이 커짐에 따라 신앙도 함께 자라고 커질 것입니다.¹⁴

우리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아버지 사업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알며, 이 지식은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 결과로 얻게 되었습니다.¹⁵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압니다. 신앙은 의로운 생활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 결과로 옵니다. 신앙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왔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렇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회개합시다. …… 주님께서 신앙을 키워 주시며, 우리가 신앙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¹⁶

이 놀라운 신앙이라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¹⁷ [188~189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179~181쪽 일화에서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신앙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아본다. 스미스 회장의 선교사 중 한 명은 그가 이룬 성취 덕분에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다.]”(181쪽)고 말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지닌 신앙에 어떤 영향을 받아 왔는가?
2. 182~186쪽 신앙의 사례를 복습한다. 여러분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신앙의 사례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앙을 행사하고 있으나 아직 바라는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을 돋기 위해 이 사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3.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희망”이 되었는가? 신앙은 어떻게 두려움이나 다른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185쪽)
4. 186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읽고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생애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 이 이야기들과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주님께 기회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5. 스미스 회장은 “신앙이 하나님의 은사”이며 “우리가 명해서 오는 것 이 아니[라고]”(188쪽) 가르쳤다. 이 원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

을 고취시키려 애쓰는 여러분의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신앙의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앨마서 32:35~43 참조)

관련 성구: 히브리서 11:1~11, 17~34; 야고보서 2:17~24; 앤마서 32:26~43; 이더서 12:6~22; 모로나이서 7:27~39; 교리와 성약 136:42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말해 주고 해당 내용을 읽거나 제시한다. …… 예를 들면 ‘제가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잘 듣고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로운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든가 ‘이 성구를 읽는 동안 주님께서 신앙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유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9쪽)

주

1. “Greeting”, *Millennial Star*, July 10, 1919, 440–41.
2. Glenn R. Stubbs, “A Biography of George Albert Smith, 1870 to 1951” (PhD diss., Brigham Young University, 1974), 142–43.
3. James Gunn McKay, in Conference Report, Oct. 1921, 156.
4. James Gunn McKay, in “A Biography of George Albert Smith”, 160.
5. Conference Report, Apr. 1923, 75–76.
6.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2.
7. Conference Report, Apr. 1923, 75–76.
8.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2.
9.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2–3.
10.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2–3.
11. “As to This Generation”, *Improvement Era*, Feb. 1949, 73.
12. “Give the Lord a Chance”, *Improvement Era*, July 1946, 427.
13. Conference Report, Apr. 1947, 164.
14. Conference Report, Oct. 1950, 6.
15. Conference Report, Oct. 1915, 27–28.
16. Conference Report, Oct. 1913, 103.
17. Conference Report, Apr. 1923, 77.



“주님께서 주신 조언과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쪽 선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악에 대항하고 행복을 찾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조부인 조지 에이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 일회장단에서 브리검 영 회장 보좌로 오랫동안 봉사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조부가 가족에게 준 권고를 종종 그대로 언급하곤 했다. “주님의 영 역과 악마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주님 쪽 선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려는 욕망을 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선을 1센티미터라도 넘어 악마 쪽 선 안으로 넘어간다면 유혹하는 자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입니다. 악마가 성공하면 주님의 영을 잊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고하거나 사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온 생애 동안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늘 이 권고를 기준으로 삼았다. “어떤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면 저는 이렇게 자문 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느 쪽 선 안에 서 있는가?’ 안전한 편, 즉 주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면 저는 늘 옳은 일만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닥칠 때 여러분이 겪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영향력 아래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편 선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¹ [199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주님 쪽 선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모든 안전과 의로움과 행복은 주님 쪽 선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고마움을 느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십계명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계명들을 열거하다 보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며,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쪽 선 안에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에서 결점을 찾는 행위는 주님 쪽 선 안에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² [199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 왜 털끝만큼도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저버리지 않을 때 받는 축복을 잊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³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어. 몇 가지 계명만 지킨다 해도 주님께서 그리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악마 쪽 선 안으로 들어선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교리와 성약 130:2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칩니다.⁴



“주님께서 이 시대 및 예전에 주신 계시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감미로운 음악소리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도록 계명을 주신다.**

자녀들의 태도를 보고 인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경우에 따라 종종 다른 계명들도 주시는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행복을 찾을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⁵

어린 시절, 저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저를 인도하기 위한 그분의 율법이자 규율이라고 이해 혹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율법에 불순종하면 형벌이 뒤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로서 저는 주님께서 세상만

사를 그렇게 마련하고 정하셨다고 생각했으며, 특정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 응보가 따른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으며, 이제는 주님의 율법이라 불리는 거룩한 경전에 나오는 권고와 이 시대 및 예전에 주어진 계시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감미로운 음악소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부모님보다 우리의 복리를 더 많이 염려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권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한때는 엄격한 율법으로 와 닿던 것이 이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상함이 담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이 최선임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⁶

저와 제 가족이 받은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공경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쓴 결과입니다.⁷

주님께서 주신 조언과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쉽거나 편한 길은 아닐지 모르나 종국에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서 끝이 날 것이며, 영광과 불멸과 영생은 우리 뜻이 될 것입니다.⁸ [199쪽 제언 3 참조]

대적은 교묘한 속임수로 길을 잊게 만들려고 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발산하고 인품을 함양하게 하는 건설적인 영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악마에게 향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낙담하게 하는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두 영향력 모두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며, 다른 하나는 인류라는 가족을 파괴하려 기를 쓰는, 태초부터 있어 온 악의 근원으로부터 옵니다.⁹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받습니다. 대적은 속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도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신성한 권세를 지닌 다른 많은 사람도 속이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약점을 파고들어 그 사람이 충실했다면 받았을 크나큰 축복을 잊게 만듭니다.¹⁰

어떤 곳에 갔었을 때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가 마귀에 씌었다고 하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자신이 마귀에 씌었으면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마가 쓰는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악마는 여러분을 수중에 넣되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점이 참으로 어렵습니다.¹¹

수백 년 전 선지자 니파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툴 것이며, 성신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예지와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니파이가 한 말을 읽어 봅시다.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토록 교활한 대적은 사람이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게 만들면, 그만큼 그들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자기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그러하니 거짓말도 조금하고 어떤 이를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후서 28:8]

오늘날 악마가 사람의 자녀에게 하는 말은 여기에 적힌 말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작은 죄를 범하라,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거짓말도 조금 하라,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주님은 용서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며,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악마가 지혜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 한 모금만 마셔 봐, 그런다고 해가 되진 않을 테니. 담배 한 모금만 피워 봐, 문제될 건 없을 테니. 술 한 잔 마신다고 해가 될 건

없잖아.”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악마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항상 한 번에 조금씩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 서서히 들려오는 대수롭지 않은 이 속삭임은 인간을 배반하고 우리를 악마의 영향력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

니파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이제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니파이후서 28:21] 이것이 악마가 쓰는 방법입니다. 악마는 여러분 몸 전체를 와락 붙잡고 자신의 영역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조금 악한 이 일을 해 봐.” 하고 속삭이며, 여기에 성공하면 또 다른 조금 악한 일을 해보라며, 경전에 표현된 대로 “그들의 영혼을 속[입니다.]” 이것이 악마가 쓰는 방법입니다. 악마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을 때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계명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나 내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독특한 암시는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악마가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로 끌려 다니면서 계속되는 그 속삭임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영이 미치지 않는 악마의 영역에 머물며, 악마의 영향력에 사로잡힙니다.

니파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님 - 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님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니파이후서 28:22]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파이가 지금 이곳에 있었더라도 그처럼 명확하게 묘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적이 활개 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의 그러한 가르침과 믿음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세상에 보내어 신성한 권세를 부여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어 다시금 사람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으며, 그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인도 받도록 하셨습니다.¹²

우리는 격정을 다스리고 사악한 성향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 온 까닭입니다. 그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내도록 돋기 위해 지상에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그 복음을 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신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하는 힘이 있듯이 그에 비례하는, 유혹에 대항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유혹에 대항할 힘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데서 오는 또 다른 대항력도 있습니다.¹³ [199~200쪽 제언 4 참조]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악에 대항할 수 있다.

수년 전에 미국 보편 구원론자 교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직하시던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두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흥미롭게 [어린이들]의 수업을 참관하셨습니다. 마침내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어 주일학교 회장이 그분에게 “[수업에] 참관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지요.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이 작은 …… 교실에서 느꼈던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200쪽 제언 5 참조]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공간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주의하게도 악에 대항할 힘을 파괴시키는 부도덕한 영향력 아래 몸을 맡깁니다. 그리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 주님 영향력 아래 있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도록 이끌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자주 기도하며, 매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 권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을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지상 생활을 경험하는 내내 풍요로운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¹⁴

우리가 머물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으며 그 의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악마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제게 그 행위를 할 의지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합당하게 생활하여 주님 편선 안에 머문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다른 누군가가 한 일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¹⁵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의 영광을 얻을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합니다.¹⁶

반석 위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배우고, 그러한 바람을 아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순결한 생활을 하여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십시오. 순결하고 유덕하며 곧게 선다면 사악한 자는 여러분을 파괴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¹⁷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어느 쪽 선 안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면, 그곳에 머무릅시다. 지상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미끄러졌다면, 부주의했다면, 유혹하는 자가 하는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멎음직하다고 여기지만 주님께서 해롭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취하려고 선을 넘어갔다면, 재빨리 반대편으로 돌아옵시다. 주님께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삽시다.¹⁸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생애에서”(191쪽)와 모로나이서 7장 10~19절을 읽는다. 여러분이 “주님 쪽 선 안”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주님 쪽 선 안에 머물도록 돋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 192쪽 첫째 문단에서 스미스 회장은 주님 쪽 선 안에 머무르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계명을 언급했다. 주님 쪽 선 안에 머무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다른 표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193쪽부터 194쪽의 첫 세 문단까지 읽으며, 계명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을 돋기 위해 스미스 회장이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4. 194~197쪽을 복습하면서 스미스 회장이 묘사한 사탄의 책략을 살펴보고 이 책략의 증거를 보았던 때를 생각해 본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책략을 깨닫고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자신이 존재하

는 목적을 아는 [것]”(197쪽)은 유혹에 대항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5. 어떻게 197쪽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릇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장소나 환경에는 어떤 것 이 있는가? 가정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 을까? 직장, 지역 사회, 개인 생활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 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관련 성구: 마태복음 4:1~11 (주석에 있는 조셉 스미스 역 발췌 부분 포함); 야고보서 4:7; 요한1서 5:3~4; 앤마서 13:27~28; 힐라맨서 5:12; 교리와 성 약 82:8~10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 전에 칠판에 질문을 적어 두면 반원들이 수업 전에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 름, 93쪽)

주

1. “A Faith Founded upon Truth”, *Deseret News*, June 17, 1944, Church section, 9.
2.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8.
3.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 198; address given Nov. 4, 1945, in Washington, D.C.
4.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Improvement Era*, Oct. 1947, 690.
5. Conference Report, Apr. 1941, 25.
6. Conference Report, Oct. 1911, 43 – 44.
7. Conference Report, Apr. 1949, 87.
8. Conference Report, Apr. 1937, 36.
9. “A Faith Founded upon Truth”, 9.
10.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7.
11. Conference Report, Apr. 1948, 179.
12. Conference Report, Apr. 1918, 39 – 41.
13. Conference Report, Oct. 1926, 102.
14. Conference Report, Oct. 1929, 23.
15. Conference Report, Oct. 1932, 27.
16. In Conference Report, Oct. 1926, 103.
17. Conference Report, Oct. 1906, 48.
18.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691.



지혜의 말씀이 주는 현세적 축복과 영적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영생에 이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어린 시절,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장티푸스를 앓았다. 의사는 진찰 후 어머니에게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며, 커피도 조금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훗날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커피는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서 커피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세 자녀를 낳으셨는데 두 아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특히 저를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어린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그 대신 신권 축복을 부탁했으며 가정 복음 교사에게 축복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의사 선생님은 놓시 놀라셨습니다. 진찰을 해 보니 열도 없고 아픈 곳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 주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¹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체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스미스 회장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스미스 회장은 다니엘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율법에
순종하여 “전능자의 숨결”에 합당했다고 가르쳤다.

먹고 마셔야 할 상황에 처했던 구약 시대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 이 말씀을 새겨들으셨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동료들과 함께 그들이 취해야 할 음식과 음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지켰고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다니엘 1:3~16 참조]”

계속해서 스미스 회장은 다니엘이 그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윤법에 순종하여 목숨을 부지했을 뿐 아니라 크나큰 영적 축복인 “전능자의 숨결”도 얻었다고 설명했다.² [209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담긴 권고다.**

1833년 2월 27일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커틀랜드에 모인 대제사 평의회와 교회 그리고 또한 시온에 있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라 –

인사로 보내는 것이니, 계명이나 강제로 함이 아니요 계시와 지혜의 말씀으로써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보이시는 것이라 –”

여기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리로 주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9:1~3 참조]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알려 주시며 사용해도 좋은 음식 종류를 설명해 주셨고, 가장 이롭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들에 관해 경고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9:5~17 참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대해 주의와 권고와 경고를 주십니다.³

저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시기에 주시는 친절한 권고라고 여깁니다. …… 저는 그것을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들아, 이것들은 네게 좋지 않단다. 이것들을 멀리 한다면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과 함께하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종국에는 영생을 줄 거란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삼가도록 권고하셨음을 알면서도 금지된 것들을 취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현세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과 권고를 주어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신성한 권고를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지혜의 말씀은 이를 지킨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높이 들어올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육신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영혼이 머무는 장막입니다. 우리가 세상 관습과 풍습에 무너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리와 성약 89:4) ……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들을 피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⁵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율법을 지킬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⁶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명이나 제약이 아닌 권고와 조언으로 주신 것이지만, 이것

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을 현세적으로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한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⁷ [209쪽 제언 2 참조]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정신과 신체가 건강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저는 주님께서 “성도로서 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이 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우리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고 싶은 모든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의 말씀은 인생을 감미롭게 하고 흡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이마시는 독기를 거두어 갑니다. 씹는 담배가 유발하는 메스꺼움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차나 커피에 함유된 [성분을] 섭취할 때 야기되는 질환과 음주에서 빚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뿐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곡물과 건강에 좋은 모든 채소와 넝쿨 열매 등은 사람에게 좋으며, 짐승과 하늘의 새의 고기와 그 밖에 언급하신 것들은 신중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⁸

우리는 건강의 윤법을 따를 때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윤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정신과 몸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계시에 언급된 특정 물질이 이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에게 지상에 거할 기회를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자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윤법을 따르면 지혜와 건강과 힘을 받고, 멀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자녀에게 한 것같이 우리를 지나치고 해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⁹ [209쪽 제언 3 참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과 영성이 강화된다.

저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확신합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뿐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려 주십니다.”

니다. 지혜의 말씀은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간증을 키워서 지상 생활을 마감할 때 주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더 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시온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이 위대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¹⁰

어떤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제가 보기에 흡연은 영적인 삶을 해치고 아버지의 영을 동반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흡연 때문에 선한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자녀들에게도 무시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하고 말할 것입니다!¹¹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그분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에 삽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부지런히 그분을 섬기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특정한 규

율과 규칙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주심을 암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지혜로운 권고를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약속을 얻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이 특별한 율법[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후기 성도들은 더욱 큰 신앙을 향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더 나아가 물론은 신앙이 없다면 “사람의 상태가 참담하리[라]”[모로나이서 7:37~38 참조]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뜻을 저버린다면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되어 우리 신앙은 자연히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

저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시들어버린 이유는 분명히 이 단순한 요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지킬 때 후기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커지고 그 결과, 더 큰 지식이 흘러들어 올 것이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다른 율법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겨나 각 계명을 준수할 때 받는 축복까지도 누릴 것입니다.¹² [209쪽 제언 3과 4 참조]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준비한다.

저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승영을 위해, 즉 현세적 축복뿐 아니라 영적인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음을 후기 성도들이 깨닫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리와 성약 93:36 참조]라는 가르침을 배웠으며, 현명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를 놓고, 이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사용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스스로 상실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총기를 잃고 마땅히 꿈꾸어야 할,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합니다.¹³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머무는 성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성전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금하신 물질을 취하는 일이 영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임을 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할 때 미래에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주님께서 충실한 이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끊어 버린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십니까?¹⁴

가장 약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축복을 쌓을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도,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단순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도 이를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한 요구조차 따르지 못하면서 더 높은 율법을 지켜 위대한 승영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¹⁵ [209쪽 제언 3 참조]

**가족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 없는 미덕과 힘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깃들며,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소망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 담배가 어린이 두뇌에 가장 해롭고 기억력을 해치며 감각을 둔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알코올 또한 젊은이들 두뇌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명예롭고 강직한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무너뜨리고 비행과 범죄로 인도합니다. ……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권고를 따를 때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촉구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율법을 준행할 때 받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시오.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증명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율법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루 종일 가르친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목

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⁶

간절하게 부탁드리건대, 지혜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탐구하십시오. 단순히 읽지만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살 날이 길어지고 행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혜의 말씀을 읽고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시온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¹⁷

[209~210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02~203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한 다니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니엘 1장을 읽고,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 물질을 취해야 할 상황에 처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본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의 첫 부분(203~205쪽)을 복습한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돋기 위해 이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3. 스미스 회장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몇 가지 축복을 다룬 205~208쪽을 잠깐 다시 훑어본다.(또한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이 약속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 율법에 따라 살면서 받은 또 다른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207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긴다고 약속했다. 여러분에게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5.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209쪽) 스미스 회장이 제안한 대로 교리와 성약 89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지혜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6:19~20; 앨마서 34:36; 교리와 성약 29:34; 130:20~21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반월들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 생활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영의 속삭임을 들도록 돋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46쪽)

주

1. “Boyhood Experiences”, *Instructor*, Feb. 1943, 73.
2. Conference Report, Oct. 1943, 44.
3. “Saints Blessed”, *Deseret News*, Nov. 12, 1932, Church section, 5.
4. Conference Report, Apr. 1907, 19–21.
5.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Improvement Era*, Oct. 1947, 688.
6. Conference Report, Oct. 1935, 121.
7. Conference Report, Apr. 1907, 21.
8. Conference Report, Oct. 1923, 72–73.
9. Conference Report, Apr. 1907, 19.
10. Conference Report, Apr. 1907, 19.
11. Conference Report, Apr. 1918, 40.
12. Conference Report, Oct. 1908, 83–84.
13. Conference Report, Apr. 1907, 19.
14. Conference Report, Apr. 1905, 62.
15. Conference Report, Oct. 1908, 84.
16. Conference Report, Apr. 1907, 21.
17. Conference Report, Apr. 1949, 191.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현세적 구원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따르면, 현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도울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 교회 회장이 되었다. 전쟁 때문에 많은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했다.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회장은 사람들이 처한 곤경을 묘사하며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구제하는 일을 돋도록 촉구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지원과 종교적 가르침뿐 아니라 식량과 의복, 침구와 각종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로 보낸 편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도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내쫓긴 사람들은 갑자기 벼름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¹

교회는 오랫동안 식량 비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45년 말경,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스미스 회장은 미국 대통령이던 해리 에스 트루먼과 함께 유럽에 식량과 의복을 보낼 준비를 하고자 수도인 워싱턴으로 갔다. 면담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물자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통령은 스미스 회장의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저희는 창고를 지어 곡식을 채워 두고 양 떼와 소 떼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감독의 창고를 방문하고 있는 조지 엘버트 스미스. 교회는 식량 비축을 해 왔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를 늘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 처한 유럽 사람들에게 보낼 상당량의 식량과 의복과 침구를 수송할 차량과 선박입니다. 저희 교회에 [상호부조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미 2천 장이 넘는 이불을 집에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물자를 선적한 후에 일어난 결과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많은 사람이 따뜻한 의복과 침구와 식량을 지체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차량과 선박이 준비되는 대로 유럽으로 보낼 물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²

약 15년 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던 스미스 장로는 궁핍함이 절정에 달했던 또 다른 시기인 대공황 동안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스미스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돋는 데는 현세적 도움뿐 아니라 진심 어린 친절과 자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친절이 절실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영혼은 시험 받고 있으며 가슴은 괴로움에 찢어질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 가운데는 후기 성도도 있습니다. ……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전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 지금 우리는 구주께서 마땅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과연 우리 가슴속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³ [221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힘든 시기에 대비할 수 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의 인도하시던 초기 개척자들은 누구든지 농사를 망치더라도 다음 수확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1년 치 식량을 비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절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풍년을 맞고 또 7년 동안 흉년을 맞았던 바로 왕 시대를 떠올려볼 때, 우리도 그들처럼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습니다.[창세기 41장 참조] 그런 상황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초기에

교회 제일회장단과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을 비축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은 잘 압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곳에 완벽하게 정착하여 농작물을 거두기 시작하고 양 떼와 소 떼가 증가한 이래로 식량 때문에 실제로 고통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⁴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전은 성취되고 있으며, 이 시대는 할 수만 있다면 선택된 이들마저 속임을 당하는 특별한 시기인 듯합니다. 세상에서 금전적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 관하여 주신 분명한 가르침을 내팽개칠 평계를 쉽사리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뜻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힘과 재물을 절약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세우신 분들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입 내에서 생활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순식간에 써 버리고, 돈이 수중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써 버리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허영에 빠져 세상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에 눈이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서는 그분의 영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⁵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쓰고 필요하지 않은 데다 돈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때가 닥치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먹이가 있을 때 모아서 저장해 둡니다. 그 결과 개미의 창고는 가득 채워집니다. 개미보다 훨씬 큰 곤충인 메뚜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비축해 두는 일이 없으며, 필요한 것은 그저 하늘에 맡깁니다. 그 결과 메뚜기 대부분이 굶어 죽고 맙니다.

저는 메뚜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그들이 개미에게서 배운다면, 필요한 식량을 비축해 두어 바닥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⁶ [221쪽 제언 2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절이 닥치더라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계를 위해 일하라고 명하셨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지기수인 현실 때문에 젊은이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며 정직한 노동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정직과 근면으로 생계를 꾸리는 데 실패한 사람 중에 쇠락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게으름 속에서 자란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⁷

우리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 아주 오래 전에 시온에 게으른 자가 있다고 하시며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

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2:42] 저는 하나님께서 직업을 찾을 수 없거나 정당하게 자신을 돌보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웃에 의존하는 습성에 젖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계를 의지해도 된다고 여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 생활을 돌봐 줘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예지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열두 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느꼈으며, 오십 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벌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세상에서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명예롭지 않은 어떤 특정 부류 직업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근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3:19 참조]⁹ [221쪽 제언 3 참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부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너희의 부가 너희의 영혼을 썩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것이 징벌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너희의 애통이 되리니, 이르기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하리라.”(교리와 성약 56:16)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도 심각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상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 심령은 통회하지 아니하며, 또 그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또 그 손은 다른 사람의 물건 움켜쥐기를 마지아니하며, 그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화 있도다.”(교리와 성약 56:17) ……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며, 그 심령이 통회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임이라. 무릇 땅의 기름진 것이 그들 것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6:18)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는 없지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지혜가 있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조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가난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생필품 때문에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이 부유하다 하여 씁쓸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일 부유하다면, 자기만 생각하여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의 어려움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부유하다면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 이 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조직을 세상에 만들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나쁜 습성에 빠져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다시 살펴보면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 ……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6:24 참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종이 되어 그분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 주는 한 우리 생각과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합니다.¹⁰ [221쪽 제언 4 참조]

십일조와 기타 헌물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교회 사업을 돋고 궁핍한 사람을 축복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수입 중 십 분의 일을 바칠 특권을 주셨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일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배당금으로 돌아올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기시며, 십 분의 구는 우리가 갖고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십 분의 일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이롭게 쓰일 곳에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아침 [연차 대회 모임에서] 이 위대한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는 동안 저는 재정 보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제일회장단 중 한 분이 이곳에 서서 세상이 환란과 곤경에 빠진 와중에도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다방면으로 운영되는 이처럼 방대한 조직인 교회에 부채가 전무하다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입니다. 여러 나라와 사람들 대부분이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교회는 빚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지지합시다. 실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따릅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생활합시다.¹¹

여러분이 정직한 십일조를 바쳤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바친 사람에게 남은 십 분의 구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이 가진 100 퍼센트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푸신 모든 관대함과 헌물과 선교 사업,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 평범한 사람으로서 베푸신 모든 일 등 여러분이 남기신 것들이 오늘 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평화, 더 큰 위안과 영생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준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¹²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수입 중 십 분의 일을 바칠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음식, 의복, 침구든 친절이든 궁핍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겸손하고 충실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¹³ [221쪽 제언 5 참조]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다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어렵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돋기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쓰고도 남을 만큼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를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부

를 얻었다면 재산은 그 사람 소유이며, 그 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¹⁴

세상에 둘러 싸여 지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궁핍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¹⁵

직장을 잃은 남성이나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만큼 사랑하시는 곤경에 처한 수많은 아버지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운이 좋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너그럽지 않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격려와 도움이 되는 말도 건네지 않고 여러분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서 우리 각자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통이 닥칠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기회는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성품을 발전시키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우리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 두기 위한[마태복음 6:20 참조]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이것이 길이니, 그 길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감독님이나 상호부조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극빈자처럼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는 것이 마치 그들 것인 양 느끼도록 줍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축적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음식, 의복, 보금자리, 가정과 기회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왕국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받은 것입니다. 만일 …… 우리가 가진 물질을 과부의 동전 한 닢처럼 나눈다면, 지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축복을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께서 주실 것이며, 세상을 떠나는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¹⁶

주님 왕국인 해의 왕국을 얻고 싶다면, 거짓 없는 사랑과 부지런함과 겸 약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늘 받아야 한다고 느끼기보다는 나누고자 하며 힘이 미치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소망으로 준비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사도행전 20:35]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조직에 속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¹⁷ [221쪽 제언 6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대공황 시절에 조지 앤더슨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전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213쪽)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궁핍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발전”하는가?
2.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첫 번째 부분(213~214쪽)을 복습하면서 식량이나 다른 자원을 비축하기 시작하거나 증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대비해야 할 비상사태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회원들이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돋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 215쪽의 소제목 아래에서부터 216쪽 첫 두 문단까지를 복습하고 교리와 성약 68편 31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왜 생계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자녀에게 일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216~217쪽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미스 회장이 준 경고를 읽는다. 마음을 부에 둘 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 218쪽에서 219쪽 첫 문단까지에서 스미스 회장이 십일조와 기타 현물을 바칠 때 받는 축복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읽는다. 젊은이나 새로운 회원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6. 본 장 마지막 부분(219~221쪽)을 공부하면서 와드와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려는 감독과 와드 지도자를 도울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관련 성구: 에베소서 4:28; 야고보서 1:27; 니파이후서 5:17; 야고보서 2:17~19; 모사이야서 4:22~25; 교리와 성약 104:13~18

교사를 위한 도움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을 시작할 때 각 반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함으로써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 또한 반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때 개인적으로 다가가게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35쪽)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48, 181.
2. Conference Report, Oct. 1947, 6.
3.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6.
4. Conference Report, Apr. 1947, 162, 165.
5. Conference Report, Apr. 1929, 30.
6. *Improvement Era*, Aug. 1946, 521.
7. “Some Warning Signs”, *Improvement Era*, July 1948, 425.
8. Conference Report, Oct. 1949, 171.
9. Conference Report, Oct. 1934, 49 – 50.
10. Conference Report, Oct. 1949, 170 – 72.
11. Conference Report, Apr. 1941, 25, 28.
12.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 – 17.
13. Conference Report, Apr. 1947, 162.
14. Conference Report, Oct. 1949, 169, 171.
15. Conference Report, Apr. 1948, 181.
16. “Saints Blessed”, *Deseret News*, Nov. 12, 1932, Church section, 8.
17. Conference Report, Oct. 1934, 52.



친절의 힘

친절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이 의롭게 살도록 복돋울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친절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절의 정신으로 문제에 대처하라.”¹ 고 가르쳤다. 스미스 회장의 손녀는 그가 어떻게 친절과 배려를 통해 긴장된 상황을 화평하게 만들었는지 들려주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할아버지 집 근처 도로 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나온 일부 몇 사람이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뜨거웠고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어서 곡괭이와 삽으로 도로를 손보던 일부들의 얼굴과 등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위낙 말을 함부로 해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인지 욕설과 폭언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이라도 불어와 열기를 식혀 줄까 기대하며 창문을 열고 있던 여러 이웃들은 일부들이 하는 말소리를 듣고 금세 불쾌해졌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밖으로 나가 일부들에게 거북한 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스 형제님이 이곳에 살고 계시니 예의를 갖추어 조금 조용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들 입에서는 또 다른 상스러운 말이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자코 레몬주스를 준비하여 쟁반에 주전자와 유리컵 몇 개를 담아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일부들에게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덥고 지쳐 보이시네요. 와서 저희 집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하시는 게 어때요?’ 일부들의 분노는 사그라졌습니다. 그들은 온화한 태도로 친절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



“할아버지는 잠자코 레몬주스를 준비하여 쟁반에 주전자와 유리컵 몇 개를 담아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가져가셨습니다.”

분 좋게 짧은 휴식을 마친 인부들은 다시 일하러 가서 세심하고도 조용히 일을 마쳤습니다.”² [231쪽 제언 1 참조]

스미스 회장이 그처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선 천적으로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미스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었던 매튜 카울리 장로가 병원에 문병을 왔다. 카울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그분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시더니 꽉 움켜쥐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이, 평생 이 점을 기억하게. 자네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선함을 찾을 수 있다네.’”

이어서 카울리 장로는 스미스 회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스미스 회장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는 추호도 쳐다보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요한1서 4:16 참조] 사람의 영혼을 회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죄인은 성도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존경으로 오해한 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존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³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주님의 영은 신랄함이나 비판이 아닌 친절의 정신이다.

저는 교회 회원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친절한 말을 하면 서글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영감이 임하는 곳에서는 불친절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은 친절의 정신이자 인내하고 자애와 사랑, 관용과 오래 참는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함께할 때 얻는 이 모든 미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⁴

화평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루시퍼는 인간 가족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

개치며,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쓰는 모든 방법을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사탄이 세상이 시작된 아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하여 그 사람의 명성을 무너뜨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⁵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흄을 찾는 일은 너무나도 쉽고, 우리는 때로 이웃과 친구에 대해 신랄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마태복음 7:1~4]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불친절하거나,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 신랄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자행되는 비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을 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은 눈에 들보가 있어서 매사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서도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⁶ [231쪽 제언 2 참조]

이웃의 한계나 약점을 찾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과 상반됩니다. 항상 건설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결점을 찾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에 영향을 받아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 행하는 일을 유익하고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적이지 못한 태도로 잘못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지적하는 정신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동반한 결과가 아니며,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⁷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덕을 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야 한다.

오늘 밤, 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던] 프란시스 앤 라이먼 장로님입니다. 이 위대한 분은 아기와 같이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온유하며, 사람들을 돋고 북돋아 주려는 아름다운 소망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장로님이 그들을 치하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한 사람, 확신에 찬 간증을 전한 사람, 그 밖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등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라이먼 장로님이 팔로 그들을 감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형제님과 형제님이 하신 멋진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본받을만한 생활 방식이 아닙니까?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시기하는 대신, 동료들의 미덕과 역량을 보고 감사하며 칭찬한다면, [다른 사람]의 선한 역량을 주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경우가 생겨도 꿀 먹은 병어리처럼 있는 분위기 속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 …… 마땅히 해야 할 말조차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동료들의 미덕을 살피고 관찰하며,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줍시다.⁸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서로에게 너그러울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참을성 있게 대합시다. 이웃과 친구들의 미덕을 살펴 그들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결점을 찾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것이며,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⁹ [231쪽 제언 3 참조]

친절에는 사람들을 잘못으로부터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범하는 잘못으로부터 이끌어

낼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름을 받아 누군가를 판단할 권세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에게는 잘못을 범했거나 범하는 사람을 판단할 특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가능하다면 그들을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길로 돌이킬 특권은 있습니다.¹⁰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친구와 이웃에게 불평하지 맙시다. 대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도록 사랑해 줍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신뢰나 사랑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¹¹

친절을 베푼다면 이웃과 친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과 만족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친절이라는 낱말을 굵게 써서 공중에 장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절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¹² [231쪽 제언 4 참조]

가정에서 베푸는 사랑과 친절은 자녀들이 우리 권고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우리의 의무, 더 정확히 말해 우리가 받은 의무이자 특권은 충분히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보호막으로 둘러싸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아 자녀들이 우리의 조언과 권고를 기꺼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¹³

사랑과 친절이 깃든 생활을 하여 화평과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저녁 때 모자를 걸어 두고 식사를 한 뒤 어디론가 후다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지 말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¹⁴

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은 사랑과 친절과 도움과 인내와 관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영이 가정에 임하게 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가 바라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¹⁵



“사랑과 친절이 깃든 생활을 하여 화평과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몇 년 전, 북쪽으로 가던 기차에 탔던 일이 기억납니다. 객차 일반석에 제가 아는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 제가 객실 통로를 지날 때 부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부인이 말을 걸자 저는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은 “[오리건 주] 포틀랜드로 가는 중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며, 이 부인이 아들이 여럿인 대가족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포틀랜드에 가십니까?” 하고 물자 부인은 “아들 하나가 그곳 병원에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자녀 중 누군가가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막내아들이 몇 주 전에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세상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포틀랜드 머시 병원에서 보낸 전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아들의 소재를 처음 알게 되었지요. 소식을 듣고 물론 깜짝 놀랐지만, 돈을 모아서 곧장 아들에게 가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부인은 아들의 막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밤낮으로 이어진 그 오랜 기차 여행 내내 눈도 붙이지 않고 오로지 그가 자기 아들이며 자신이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아이를 주셨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들에게 다가올 기회에 대비시키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나긴 밤 동안, 이 착한 부인은 가만히 앉아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부인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기차는 부인의 마음 만큼 빨리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하자, 부인은 재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곳이 병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기 위해 직접 가보았습니다.

다정한 어머니는 아들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폐렴에 걸린 소년은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에게 엄마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꾸짖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무심함과 부주의함에 분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세상에 데려온 아들을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게 하는 데에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열여섯 살 가량 되어 보였지만 부인에게는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이 회복하면 얻게 될 여러 기회들을 알려주며, 아들을 기쁘고 흡족하게 하는 말로 북돋아 주려고 애썼습니다. 병실은 부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괴로움뿐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번에는 그토록 먼 길을 달려와 곁에서 간호하여 낫게 하려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 본 순간, 아들의 표정에는 완전한 빛과 화평과 행복이 퍼져 나갔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어머니들이 그런 일을 당한 자녀들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를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하시기 전에 소년은 다시는 어머니에게 불성실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신 것에 무심하지 않으며,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이 명예롭게 받은 이름을 명예롭게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¹⁶ [231쪽 제언 5 참조]

저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에 불타올라 삶이 풍요로워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더욱 친절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 친절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 친절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친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¹⁷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지친 인부들에게 레몬주스를 타 준 이야기를 읽는다.(223~225쪽)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본 경험을 떠올려 본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절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스미스 회장은 신랄한 비판을 피하는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226쪽)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랄한 비판이나 결점 찾기가 왜 그렇게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3. 227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프란시스 엠 라이먼 장로가 형제들을 칭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칭찬해야 할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
4. 스미스 회장은 “친절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가르쳤다.(228쪽) 이 원리를 입증할 만한 경전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를 들어, 마태복음 9:10~13; 앤마서 20:1~27 참조)
5.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아들을 찾아간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229~230쪽)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행동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친절과 인내의 정신이 여러분과 가족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잠언 15:1; 마태복음 18:15; 요한복음 8:2~11; 에베소서 4:29~32; 제3니파이 12:22~24; 교리와 성약 121:41~46

교사를 위한 도움말: 소단위 그룹 토론은 “많은 수의 사람이 공과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않을 의견을 소단위 그룹에서 나눌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6쪽)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41, 28.
2. Martha Stewart Hatch, in Susan Arrington Madsen, *The Lord Needed a Prophet* (1990), 130 – 31.
3. Matthew Cowl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66 – 67.
4. Conference Report, Apr. 1937, 34.
5.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4.
6. Conference Report, Oct. 1949, 168 – 69.
7. Conference Report, Oct. 1934, 50.
8. “To the Relief Society”, 707.
9. Conference Report, Oct. 1934, 50.
10. Conference Report, Apr. 1937, 34.
11. Conference Report, Oct. 1945, 174.
12. “To the Relief Society”, 709.
13. Conference Report, Apr. 1929, 33.
14. Conference Report, Apr. 1948, 183.
15. Conference Report, Oct. 1950, 9.
16. *Deseret News*, May 15, 1926, section four, 6.
17. Conference Report, Oct. 1948, 167.



빛과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말씀과 모범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책임을 주셨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은 생애를 마칠 무렵, 자신이 받은 가정 교육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회고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 부모님께서는 매우 초라한 환경에서 사셨지만 저를 그분들의 가정으로 보내 주신 창조주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덟 살 때 시티 크릭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17와드 금식 간증 모임에서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년 시절에 이 사업이 주님의 일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 영감을 향유하기에 합당하도록 살아온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

세상을 통틀어 저보다 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타고난 권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생애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집에서 어머니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대가족을 꾸려 나가려면 꽤 많은 인내가 필요하셨을 터이지만 어머니께서는 항상 인내하며 저희를 대하셨습니다. 집안에는 늘 온정과 친절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¹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부인 루시와 딸 에디스(왼쪽)와 에밀리(오른쪽).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신 부모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애썼다. 스미스 회장의 딸인 에디스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 늘 조언해 주셨으며, 정직하고 공정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전차 승무원이 제 요금을 걷는 것을 깜박한 적이 있습니다. …… 웬일인지 그냥 저를 지나쳐 가길래 저는 손에 요금을 준 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공짜로 차를 타고 와서 솔직히 짜릿했습니다. ……

저는 신나게 아버지께 달려가 운이 좋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가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을 승무원이 알지 못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승무원이 모른다 하더라도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니.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직도 세 사람이나 있는 거란다.’”

에디스는 정류장으로 돌아갔고, 전차가 되돌아왔을 때 요금을 치렀다. 훗날 에디스는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그와 같이 대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저는 제 잘못을 친절하게 지적해 주신 지혜로운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눈감아주셨다면 저는 아버지께서 용인하셨다고 생각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²
[243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책임은 제일 먼저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풍요로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이 후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선택된 영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서 올 것입니다. …… 자녀를 훈련하는 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훈련하는 일을 초등회나 주일학교나 [교회 청소년 조직]에 떠맡기지 마십시오. 그런 조직은 여러분을 돋고 훌륭

하게 기여할 것입니다만 자녀들이 여덟 살 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가 부모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깨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친절하고 사랑에 찬 권고입니다.³

시온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제가 몹시 염려하며 말씀드리는 다음 내용을 마음속에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훌륭한 교육기관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과학이 많은 기여를 했으며, 교회가 자녀들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들이 보조 조직에서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데려오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어떤 조직에도 전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조언할 뿐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년 소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훈련하여 금단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⁵

가족을 여러분에게로 불러 모으십시오. 과거에는 그들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해하도록 돋지 못했다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드리건대, 바로 지금 가족들에게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⁶ [243~244쪽 제언 2 참조]

**다른 관심사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사람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히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누가복음 8:14 참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로 영성이 막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대적은 그들을 향락이라는 쉬운 길로 인도하며, 그들은 부모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흥분과 인생이 주는 모든 향락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소년 소녀들에 대한 우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⁷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 인디애나 주에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모두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소년들이 일하는 농장은 서로 8 내지 1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매일같이 소젖을 짜는 일과 같은 잡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서너 살이 되자 한 소년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시에 가 보고 싶어요.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제 일을 끝내 놓고, 저녁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을 다 끝낼 수 없을 테니 안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면 문제없어요. 그다지 멀지 않으니, 한두 시간 있다가 일찍 집에 올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 일만 다한다면 가도 좋다.” 아버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십시오. 소년은 어둑해진 무렵에야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상점과 은행 문은 닫혀 있었고, 대신 수많은 내기 당 구장과 도박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집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온갖 불량배들만 거리와 유해업소에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들어선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이들은 소년이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소년은 그 경험에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소년도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시에 가 보고 싶어요.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언가를 보려면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할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도시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단다. 그

리고 아빠와 동행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날을 잡으면 네 일을 도와 주마. 그러면 일찍 가서 아빠가 아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농장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같은 동네에 있었습니 다. 일주일 안에 아들은 날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농장 일을 마치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은행이 문을 닫기 전인 네 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정하게 차려 입은 아들을 은행으로 데려가 은행원에게 소개했습니다. 은행원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 오거든 우릴 찾아오렴. 언제나 환영이야.”

아버지는 사업차 왕래하던 회사 사무실로 아들을 데려갔고 그곳 사람들 은 아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전시회 한 곳을 둘러본 뒤 집에 왔을 때에는 아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몇몇 훌륭한 사람들과 안면을 튼 뒤였습니다. 그 결과, 장성하여 도시에 갔을 때, 아들은 훌륭한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⁸ [244쪽 제언 3 참조]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활용하는 방법 중 아들 딸을 훈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유익 한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⁹

부모가 보이는 모범은 자녀를 안전과 의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가족 기도를 하고, 음식 축복을 합시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 줍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편과 아내로서 모든 면에서 사랑과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서로를 축복합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들과 딸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침시다. …… 가정을 화평과 희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안식처로 만듭시다.¹⁰

며칠 전, 인생 중 절반 가량을 사신 것으로 보이는 분이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부친께 보낸 편지에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 배려와 제게 주신 가르침과 모범은 제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르면서 저는 안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이자 축복받은 아버지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활용하는 방법 중 아들 땀을 훈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다. …… 이 편지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임을 보였듯이, 아버지의 행실 덕분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보인 모범 덕분에 오늘날 아들은 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고무되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정에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얻는 일에만 연연하여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재물을 끌어안고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섰으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날 아들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세상에 떠도는 수천 마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자란 가정에서 본 부모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세상에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중에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군중이 믿는 일,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을 무턱대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보여 주는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파괴할 것입니다.¹¹

이 사업이 아버지의 일이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더욱 신앙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하는 대화뿐 아니라 일상 행동에서도 증명해냅시다.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자신을 향해 대적이 쏘아대는 화살을 피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죄에 따른 고통으로 사람의 자녀들이 괴로워 하던 곳에도 위안과 화평과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그리고 …… 인생에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성품을 지닌 남녀는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¹²

[244쪽 제언 4 참조]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악에서 보호할 수 있다.**

후기 성도 여러분, 자녀가 도덕률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랑의 팔로 그들을 감싸서 도처에 만연한 어떤 악의 유혹에도 빠지고 싶지 않도록 하십시오. ……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그분의 영의 자녀들인 티없는 아들 딸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지내는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어린 시절에 인생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채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하고, 더욱 사려 깊고, 더욱 인내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세대를 대적이 그들 발 밑에 파놓은 함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 책 중 상당수가 부적절합니다. …… 우리가 건전한 가르침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젊은이들에게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배울 때 얻는 유익을 전해 주며, 선지자들이 지닌 미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어 이런 영향들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자녀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칩니다. 아들에게 누이와 여자 친구의 순결을 지켜 주도록 가르치십시오. 남자 친구의 순결을 지켜 주도록 딸을 가르치십시오. ……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을 하나님 영의 영향력 밑에서 양육하는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 대직이 그들을 탈선시킬 힘을 갖지 못하게 합시다.¹³ [244쪽 제언 5와 6 참조]

**가족이 함께 복음을 공부하면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온 가족을 불러모아 가정 안에서 서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강화하고 지지하며, 거룩한 경전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일은 우리가 받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모든 경륜의 시대에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몫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경전을 읽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일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예전보다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지켜봅시다. 우리 가정에 가족을 불러 모으는 원리와 실천 사항을 지키겠다고 다짐 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대로 가정에서 복음을 읽고 가르치라는 나의 의무를 이행했는가? 나는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며 가정을 즐겁고 경건하고 사랑과 이해와 혼신이 깃든 장소로 만들었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소홀했던 점을 회개하고, 가족을 불러모아 진리를 가르칩니다. ……

“나는 가정에 질서를 세웠는가?”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웃이 그렇게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을 했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¹⁴

자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자녀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가정에서 되도록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적어도 하루 저녁을 정하여 온 가족이 모여 우정을 나누고, 가족 노변의 모임을 통해 소박한 기쁨을 누리며 위대하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서로 상의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1915년에 제일회장단은 “시온의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과 부모”에게 이 문제에 관한 서한을 보냈는데, 당시 제일회장단이 보낸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가정의 밤’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가정에 불러 모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시다. …… 이 ‘가정의 밤’은 전적으로 기도, 찬송, 노래, 악기 연주, 경전 읽기, 가족 문제 토의, 복음 원리나 인생에서 겪는 도덕 문제, 더 나아가 부모와 가정,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녀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요구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런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를 따른다면, 위대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에워싼 약한 영향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원리와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¹⁵

후기 성도 사이에 가정의 밤을 실제로 시행하여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특히 가르치라고 명하신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들만의 노변의 모임을 연다면 슬픔과 다툼과 괴로움이 많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

세상과 집 밖에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기도와 감사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마련하신 풍성한 진리를 아들 딸에게 전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고에서 벗어났다면, 돌이키십시오. 자녀들을 우리 주변으로 모으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합시다. 우리 뜻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다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확신할 것입니다.¹⁶ [244쪽 제언 7 참조]



“후기 성도 사이에 가정의 밤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 얼마나 많은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33~235쪽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조지 앤더슨 스미스가 딸 에디스를 그토록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가르침을 주신 때를 떠올려 본다. 그 교훈은 왜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는가?
2. 조지 앤더슨 스미스의 가르침 첫 부분(235~236쪽)과 교리와 성약 93 편 37~40절을 공부한다. 주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책임을 다른 조직이 아닌 부모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임에 관하여 교회 조직은 어떻게 부모를 도울 수 있는가? 확대 가족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자녀가 없다면, 교회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본다.

3. 237~238쪽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자녀는 어떻게 유익을 얻는가? 가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생의 염려와 …… 향락”(236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4. 238쪽의 소제목 아래부터 240쪽 두 번째 문단까지 읽는다. “세상 풍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녀에게 우리 믿음에 대해 특별하고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일상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유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0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청소년들이 유혹을 이기도록 돋기 위해 부모와 조부모와 그 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6. 스미스 회장은 자녀를 영의 영향력 아래 양육하는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241쪽 참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녀를 의로움으로 양육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7. 242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여는 가족이 받은 약속들을 살펴보았다. 이 약속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가정의 밤을 해 본 적은 없으나 시작해 보고 싶어 하는 가족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은가?

관련 성구: 잠언 22:6; 이사야 54:13; 이노스서 1:1~3; 모사이야서 4:14~15; 앨마서 56:45~48; 교리와 성약 68:25~31;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를 모두 가르치기 위해 훌륭한 토론을 너무 일찍 끝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반원들이 영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돋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며,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고, 계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After Eighty Years”, *Improvement Era*, Apr. 1950, 263.
2. Edith Smith Elliott, “No Wonder We Love Him”, *Relief Society Magazine*, June 1953, 367.
3. “To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Dec. 1932, 708–9.
4. Conference Report, Apr. 1926, 145.
5. Conference Report, Apr. 1933, 72.
6. Conference Report, Apr. 1937, 36.
7. Conference Report, Apr. 1926, 146–47.
8. “President Smith Gives Scouting Address”, *Deseret News*, Feb. 22, 1947, Church section, 8.
9. Conference Report, Oct. 1948, 181.
10. Conference Report, Oct. 1941, 101.
11. Conference Report, Apr. 1937, 35.
12. Conference Report, Apr. 1913, 29.
13. Conference Report, Oct. 1932, 24–25.
14. “The Family Hour”, *Improvement Era*, Apr. 1948, 248.
15. “The Family Hour”, 201.
16. Conference Report, Apr. 1926, 145–46.



“잔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성하신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에게는 ……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증오의 짐을
벗어버리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1897년, 당시 젊은이였던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유타 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동료들이 보내는 격려에 힘입어 그는 방위군의 한 선출직에 출마했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한 상대 후보 대원이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스미스 병장은 자신이 승리하리라고 믿었던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한때 그의 친구였다는 점이었다.

그 일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가슴에 쓰라림과 화가 치밀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갔으나 성찬을 취하는 것이 웃지 않게 느껴졌다.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는 분한 마음을 품은 점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기로 결심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곧장 친구 사무실로 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제여, 지난 몇 주 동안 자네를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 주게.”

친구는 곧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스미스 형제, 자넨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그들은 악수를 했고, 그 뒤로 좋은 친구로 남았다.¹ [253쪽 제언 1 참조]

몇 년 후, 조지 앤버트 스미스는 개인 신조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평생토록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나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친절을 베풀어 친구가 되도록 힘쓰겠다.”²

스미스 회장과 가깝게 지낸 한 친구는 용서하는 능력이 그를 규정하는 진정한 성품임을 깨달았다. “참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평생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스미스 회장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그가 용서하는 동시에 잊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실로 범상치 않은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³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서로가 범한 잘못을 용서하는 성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정신은 미덕이며, 용서하는 정신 없이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결코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⁴

세상 사람들은 구주의 영혼이 고뇌에 잠겼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사람들을 벌하거나 멸하지 마시도록 소리 높여 간청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며, 저는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 가슴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 화평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식을 알려 주셨으며,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밝혀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지식에 따라 책임을 물으시며, 우리와 달리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차원 높고 이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용서하는 정신은 후기 성도 사이에서 더욱 널리 드러내 보여야 할, 유익한 성품입니다. ……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⁶ [253쪽 제언 2 참조]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까지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1~22]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두 남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돈을 빚진 한 남자가 주인에게 가서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이 남자는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동료 종에게 곧장 가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동료가 빚을 탕감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용서하기는커녕 주인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종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용서했던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고 빚을 다 갚게 했습니다. 그 종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이해할 만큼 영혼이 성숙하지 못했고, 자애롭지 못한 탓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마태복음 18:23~35 참조]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는 형제나 자매가 한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마음속으로 부풀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주님께서 준수하라고 하신 율법에 따라 항상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잊어버립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마태복음 6:12 참조] 저는 우리가 이 점에 관해 더욱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⁷ [253쪽 제언 3 참조]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모든 불친절한 감정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악의로 이용하고 우리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태복음 5:44 참조] ……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악한 말을 해도 동정심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잔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신성하신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⁸

때로는 권세를 지닌 형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회원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 난 아버지의 자녀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형제에게 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상냥하게 말해 주어 그 형제가 “기분을 상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할 기회를 주는 대신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곱씹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부추기는 분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⁹ [253쪽 제언 4 참조]

우리는 어떤 이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며, 그럴 만한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오해한다든지 우리 말을 잘못 전달하거나 박해할 경우, 우리는 그들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할 때 ……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든 불친절한 감정을 몰아냅시다.¹⁰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해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대적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생활을 합시다.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거나 이웃과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문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하여 때가 왔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손이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십시오.¹¹



“이웃과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문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용서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64편에 있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옛날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는 구절입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 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여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4:7~11]

이웃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간청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저와 형제 사이를 판단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그에 대해 화난 감정이 없음을 아십니다. 저희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의견 차이는 줄어들고 큰 기쁨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상생활의 평정을 잃게 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고,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감정을 마음에 담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행해지고 자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 가족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만일 사람들이 너희나 너희 가족을 한 번 쳤는데 너희가 그것을 끈기 있게 참고 그들에게 욕하거나 복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끈기 있게 그것을 참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공정한 분량으로 너희에게 해아려 준 바 된 것으로 간주되리라.”[교리와 성약 98:23~24]

이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힘 안에서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는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생애 동안 보인 강직함과 고결함으로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며,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율법도 무심코 주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으며, 모든 율법은 그것을 지키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세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 중 가장 어린 사람이나 강한 사람도 단순한 방법으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을 영광으로 들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인내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에 대한 모든 중오를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너희 원수가 두 번째 너희를 쳤는데 너희가 너희 원수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참으면, 너희 상은 백 배가 되리라.

그리고 또, 만일 그가 너희를 세 번째 쳤는데 너희가 그것을 끈기 있게 참으면, 너희 상은 사 배로 배가되리라.”[교리와 성약 98:25~26] ……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행한다면 주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과 가정에 깃들 것입니다.¹² [254쪽 제언 5 참조]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247쪽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제3니파이 12장 22~24절을 읽는다. 왜 주님께서는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를 바라실까 생각해 본다.
2. 248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248쪽)하게 되는가?
3. 248쪽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는 용서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250쪽 두 번째 문단 전체를 읽는다.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화나게 만든 교회 지도자나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5. 본 장 마지막 부분(250~253쪽)을 복습한다.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은 해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5:23~24, 38~48; 6:12, 14~15; 7:1~5; 18:15; 니파이전서 7:16~21; 교리와 성약 42:88

교사를 위한 도움말: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그 해답을 여러분이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4쪽)

주

1. Merlo J. Pusey, “The Inner Strength of a Leader”, *Instructor*, June 1965, 232 참조.
2. “President George Albert Smith’s Creed”, *Improvement Era*, Apr. 1950, 262.
3. Matthew Cowley, Conference Report, Apr. 1951, 167.
4. “The Spirit of Forgiveness”, *Improvement Era*, Aug. 1945, 443.
5. Conference Report, Oct. 1945, 169.
6. Conference Report, Oct. 1905, 27.
7. Conference Report, Oct. 1905, 27.
8. Conference Report, Oct. 1904, 65 – 66.
9. Conference Report, Oct. 1905, 27.
10. Conference Report, Oct. 1906, 50.
11. Address given at Mexican mission conference, May 26, 1946, George Albert Smith Family Papers, University of Utah, box 121, page 288.
12. Conference Report, Oct. 1905, 27 – 2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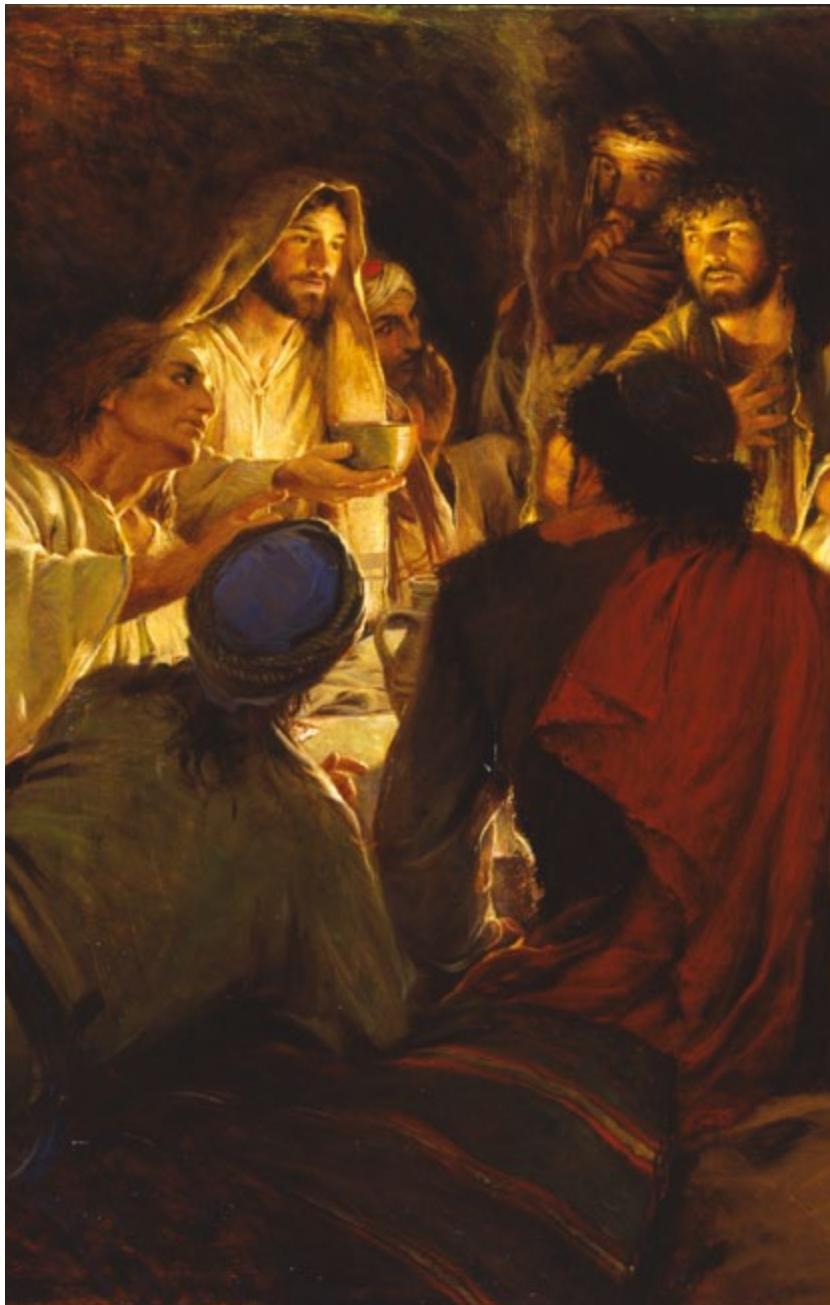
위험한 시기에도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충실히 생활할 때, 시대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시기는 대부분 20세기 전반부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세상에는 대공황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포함한 참혹하고 떠들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스미스 회장은 이러한 재앙과 사회 전반에서 도덕성이 저하되는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했다. “이 세상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¹ 스미스 회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보았으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 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²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는 동안 스미스 회장은 많은 사람이 실의에 빠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특별히 [미합중국] 여러 지역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이는 현실 때문에 깊은 비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³ 전쟁과 자연 재해, 영적 위험이 후기에 겪는 삶의 일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에게 복음대로 살고 유혹을 물리친다면 이런 위험한 시기에 닥쳐오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스미스 회장은 또한 의로운 후기 성도들이 주변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희망을 찾았다. 그는 성도들에게 세상 환경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계속 활발하게 생활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라고 가르쳤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행복한 장소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벨 에스 스파포드 자매는 스미스 회장에게서 이 원리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회장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스파포드 자매는 전국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가 뉴욕 시티에서 모임을 개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상호부조회는 오랫동안 이 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왔으나 그 무렵에 몇몇 위원회 회원들이 교회에 적개심을 품고 모임 도중에 후기 성도 대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스파포드 자매와 보좌들은 상호부조회가 이 위원회를 탈퇴해야 한다고 느꼈고 견해를 적은 건의서를 작성했다. 끝날 스파포드 자매는 이렇게 회상했다.

“약속이 있던 날 아침, 저는 건의서를 작성한 이유들을 적은 목록과 함께 건의서를 들고 홀로 조지 앤버트 스미스 회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타자로 기록한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매님들이 이 조직에 가입한 것은 세기가 바뀌기 전이지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매님들이 이제 그곳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휘둥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파포드 자매님, 자매님은 항상 무엇을 얻는가라는 견지에서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견지에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자매들이 세상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어야 할 무언가가 있으며, 그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퇴하기보다는 가장 유능한 임원들을 데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은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⁵

스�파포드 자매는 이 권고를 따랐고, 훗날 전국여성위원회 지도자 직책에 임명되었으며, 마침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264쪽 제언 1 참조]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

후기에 있을 극심한 어려움은 이미 예언되어 왔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 우리는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와 그 전에 받은 경전,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받은 경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는 교리와 성약에 나옵니다. 이런 계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겪는 경험이 예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일간 신문은 폭풍우가 거세지는 바다와 그곳에서 생긴 인명 손실, 지진, 거대한 토네이도 등 도처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한 소식을 보도합니다. 그러한 소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리라고 들어온 일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경전을 읽어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으며[조셉 스미스—마태 1:38~39 참조]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여름이 가까웠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⁶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대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후기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특히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⁷ [264쪽 제언 2 참조]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보편화된 고통을 해쳐나갈 유일한 치료제이자 병든 세상을 고칠 만 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경전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된, 생명과 자유의 온전한 울법입니다.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것은 평강의 왕께서 충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안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평화와 행복이라는 축복과 두려움 없는 마음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없습니다. 얻으려고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여러 차례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바로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면 의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간사한 유혹으로 부추겨서 인류 대다수가 행복을 보장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꾀어왔으며, 아직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의 원수는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께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에 만연한 미움과 불친절은 사라질 것입니다.⁹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줄지 모르는 새로운 계획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부만큼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의무를 행하는 길 위에 있을 때 안전한 대로 위에 있다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과 부추김에 개의치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¹⁰

우리는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후기에는 “……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이사야 29:14)라고 말씀하신 경전 구절이 여러 나라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두 모아도 아직까지 평화를 얻는 길은 이것이다 하고 뚜렷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유일하게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길은 고대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행한 지구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¹¹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차고, 여러 하늘이 암흑을 몰아오고, 번쩍이는 번개가 몰아치고, 지진이 중앙에서 사방으로 번져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의롭게 산다면 행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¹² [264쪽 제언 3 참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모든 악한 힘은 그분 백성들을 위해서 통제될 것입니다.¹³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임을 받는다면, 그분께 사랑받는다면, 그분께 축복받기에 합당하다면 세상의 모든 군대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내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전복시키려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산헤립이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너를 도우리라 생각지 말라. 아무리 기도한들, 나는 이미 모든 땅을 취했노라. 너는 가망이 없도다.” 하며 모욕했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 히스기야는 주님께 [직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앗수르 군사들은 대부분 땅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습니다.[열왕기하 19:10~20, 35 참조] 주님께

서는 우리의 힘이시며 ……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자 모든 이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기만 하다면 힐라맨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앨마서 57:24~27 참조]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듯이 [다니엘 6장 참조], 세 히브리 소년을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니엘 3장 참조] 모세가 60만에 이르는 아브라함 자손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여 보호해 주셨듯이 [출애굽기 14:21~30 참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시며,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¹⁴

구름이 몰려오고, 전장의 북소리가 커지고, 세상이 어떤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항상 존중하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¹⁵ [264쪽 제언 4 참조]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은 평화롭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도처에 산재한 고통과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주신,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 것]” [교리와 성약 1:35]이라는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때가 도래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기도와 은혜와 감사가 깃든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려 깊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는 의로운 생활로 자녀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우리 가정은 기도와 감사가 깃든 곳,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¹⁶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의로운 생활로 성결하게 되어, 대적이 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힘을 갖지 못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 가정은 신성한 장소가 되고, 대적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멸의 생이 다할 때까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며 불멸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¹⁷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재앙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주님의 전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대적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의로운 일로 인도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 충실한 사람이 받는 상속, 영원한 삶까지 이르게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¹⁸

저는 우리 마음과 가정에 사랑과 인내, 친절과 자애와 도움의 영이 거하시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며 더 나은 곳이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¹⁹ [264쪽 제언 5 참조]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닻이 되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밝게 비추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처럼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하십시오.²⁰

우리 의무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그분의 조언과 권고에 귀 기울이도록 권고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불타오르도록 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²¹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계명과 권고와 조언을 주셨습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불결한 삶을 정화한 다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따로 성별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남녀노소는 선을 행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64쪽 제언 6 참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시작합시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아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욱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는 우리 태도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영혼으로,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도록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과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밝은 빛과 즐거움이 함께하며, 우리가 꾸려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안다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하는 삶이 되고 그에 따른 축복을 얻게 되기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²²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vii쪽을 참조한다.

1. 벨 에스 스파포드 자매가 스미스 회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이야기 (257~258쪽)를 읽는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2. 본 장 앞부분(258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재림 전에 발생하리라고 예언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또한 디모데후서 3:1~7; 교리와 성약 45:26~35 참조) 이런 어려움이 경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258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주었는가?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다른 사람과 맷는 관계에 평화를 가져왔는가?
4. 260~261쪽에서 스미스 회장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예를 경전 안에서 들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 주셨는가? 순종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5. 오늘날 우리 가정의 영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정을 “대적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조언을 얻으려면 261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되돌아본다.)
6. 263쪽 첫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을 읽는다. 충실한 후기 성도는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불결한 삶을 [정화]”할 때 “선을 행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불결한 부분을 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이사야 54:13~17; 마태복음 5:13~16; 요한복음 16:33; 니파이 후서 14:5~6; 교리와 성약 87:6~8; 97:24~25; 조셉 스미스—마태 1:22~23, 29~30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조지 앤버트 스미스의 가르침”에 있는 표 제들을 읽고 그들과 그들 가족에게 의미있는 부분을 고르게 해 볼지 고려해 본다. 반원들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든 관련 질문을 공부하라고 한다. 그런 다음 반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주

1. Conference Report, Apr. 1948, 162.
2. Conference Report, Apr. 1918, 41.
3. Conference Report, Apr. 1932, 41.
4. “Some Thoughts on War, and Sorrow, and Peace”, *Improvement Era*, Sept. 1945, 501.
5. Belle S. Spafford, *A Woman's Reach* (1974), 96–97.
6. Conference Report, Apr. 1932, 42–44.
7. Conference Report, Oct. 1946, 153.
8. “New Year's Greeting”, *Millennial Star*, Jan. 1, 1920, 2.
9. “At This Season”, *Improvement Era*, Dec. 1949, 801.
10. Conference Report, Oct. 1937, 53.
11. Conference Report, Apr. 1946, 4.
12. Conference Report, Oct. 1915, 28.
13. Conference Report, Apr. 1942, 15.
14. Conference Report, Apr. 1943, 92.
15. Conference Report, Apr. 1942, 15.
16. Conference Report, Apr. 1941, 27.
17. Conference Report, Oct. 1946, 8.
18. “New Year's Greeting”, *Millennial Star*, Jan. 6, 1921, 3.
19. Conference Report, Oct. 1946, 7.
20. Conference Report, Oct. 1945, 117–18.
21. Conference Report, Oct. 1947, 166.
22. Conference Report, Apr. 1932, 43–45.



시각 자료 목록

- 표지: 조지 앤더스 스미스, 리 그린 리차즈,
© IRI.
- 4쪽: 산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에 있는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 12쪽: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텔 파슨,
© 1983 IRI.
- 20쪽: 그리스도의 모습,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 25쪽: 내 손과 발을 보고, 해리 앤더슨,
© IRI.
- 27쪽: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로버트 티
배렛, © 1996 IRI.
- 37쪽: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 1988
Greg K. Olsen, 복사 금지.
- 40쪽: 조셉 스미스,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Community of Christ 기록 보관소
제공.
- 49쪽: 멜기세덱 신권 회복, 윌터 레인,
© 2010 IRI.
- 56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제공.
- 62쪽: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조셉 브리키,
© 2010 IRI.
- 65쪽 사진 촬영: © 2000 Steve Bunderson.
- 68쪽 사진 촬영: © 2006 Robert Casey.
- 75쪽: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윌리엄
휘태커, © 1999 IRI.
- 127쪽: 그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해리 앤더슨, © IRI.
- 154쪽 사진 촬영: © 2000 Steve Bunderson.
- 180쪽: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맞서는
엘리야, 제리 하스톤, © 1978 IRI.
- 183쪽: 홍해를 가르는 모세, 로버트 배렛,
© 1983 IRI.
- 185쪽: 브리검 영의 도착, © 1986 VaLoy
Eaton, Zions Bank 제공, 복사 금지.
- 190쪽: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 202쪽: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다니엘, 텔 파슨, © 1983 IRI.
- 224쪽: 무더운 날에 내어준 레몬주스, 마이클
맘, © 2010 IRI.
- 246쪽: 십자가에 달리시어, 해리 앤더슨,
© IRI.
- 256쪽: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2004
Walter Rane,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색인

ㄱ

가정 복음 교사

조지 앤버트 스미스가 -를 회상함,
45~47

가정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음, 261~262
또한 가족 참조

가정의 밤, 242~243

가족 역사

주님께서는 -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심,
88~90
또한 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가족

-간에 베푸는 친절, 228~230
경전 공부, 107~109, 241
기도는 -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됨,
100
세상적인 것보다 더욱 가치 있음, 73
또한 부모 참조

간증

개척자, xxix~xxx, xxxiv~xxxvi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을 얻을 수
있음, 28, 116~118

경전

가족과 함께 -을 읽음, 107~109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
105~106
인간의 철학보다 더 가치 있음,
104~105
해의 왕국에 갈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됨, 106~107

계명

-은 우리가 주님 쪽 선 안에 머물게
해줌, 192
-을 지킬 때 안전함, 260~26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을 주심, 193~194

계시

개인적인 -, 114, 116~119
선지자가 받은 -, 113, 114~116
오늘날에 꼭 필요함, 114~115

교회 지도자

-는 주님께서 택하심, 58~59
-를 따를 때 안전함, 60
-를 비판해서는 안 됨, 63~64
주님께서는 -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심, 59~60, 115~116
또한 교회 회장 참조

교회 지도자를 지지함, 57~65

교회 회장

교회 회원들이 지지해 줄 때 힘을
얻음, 64~65
주님께서는 -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심, 115~116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받음, 61~62
또한 교회 지도자 참조

기도

-의 힘, 98~99
가족 기도, 98~100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영감을
받을 수 있음, 97~98
의사들에게 자신을 위해 -해 달라고
한 소년, 95~96

- 정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함, 99
- 기술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음, 159
-
- 노아
-의 경고를 들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함, 60
-의 신앙, 182
- 다니엘
-의 신앙, 182~183
주님께서 그의 시대에 주신 건강의 율법을 지킴, 201~203
- 다른 사람을 용서함
교회 회원들이 지녀야 할 태도임, 248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고마움을 표현함, 249~250
해의 왕국에 갈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됨, 250~253
- 대적
-에 대항할 수 있음, 197~199
-은 우리를 속이려 함, 194~197
-
- 마지막 날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언됨, 258
- 멜기세덱 신권. 신권 참조
- 모범
복음을 나누는 -, 138~140
부모의 - 208~209, 238~240
-
- 우리는 -을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63
- 모세
아론과 홀이 -의 팔을 들어올림, 61
-의 신앙, 182
- 몰몬경
사람들과 -을 나누는 조지 앤더슨 스미스, xxii, xxxiv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25~27
또한 경전 참조
-
- 반대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 162~164
- 배도
-기간에 신권 권세가 거두어짐, 48
절정의 시기에 일어난 -, 4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 일어난 것을 보고 복음을 회복하심, 39
- 복음을 나눔
복음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 140~145
복음을 나눌 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중요함, 138~140
복음을 나눌 때 받는 보상, 130~132
복음을 나눌 때 성신은 중요한 역할을 함, 153~155
복음을 나눌 필요성, 124~126
사람들에게 행복과 선을 더해 줌, 147~149, 151~153
사랑과 친절로 -, 149~150
열정과 열의로 -, 127~129, 150~151
우리의 책임, 29, 128, 129~130, 136~138
- 봉사
-에서 오는 행복, 17~18

-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음, 219~221
 교회에서 – 함, 160~162
 제2차 세계 대전 후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 함, 211
- 부름
 회원들은 – 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160~162
- 부모
 –는 자녀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함, 228~230, 240~241
 –의 모범, 208~209, 238~240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 의
 책임, 235~238
 또한 가족 참조
- 부활, 24~25, 73~74
- 비판
 교회 지도자에 대한 –, 63~64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미덕을
 봄, 226~227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상반됨, 226
- 人**
- 사랑
 –을 표현할 기회, 16
 –하라는 계명, 14~15
 복음을 나누는 데 깃든 –, 149~150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을
 실천함, 15~17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북돋울
 수 있음, 17, 150, 227~228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줌, 17~18
 또한 친절 참조
- 사망
 복음은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67~70, 75~77
- 사탄. 대적 참조
- 생각
 우리는 우리 생각의 산물임, xiv
- 선교 사업. 복음을 나눔 참조
-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24~25
 또한 경전 참조
- 성신
 간증의 근원, 28, 116~118, 153~155
 복음을 나누는 데 필요함, 153~155
 안전과 승영으로 인도함, 118~119
- 성전 및 성전 사업
 –의 목적은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83~88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 현납,
 82~83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성도들이
 바친 희생, 81
- 성찬
 –을 취하기 전에 마음에서 불친절한
 감정을 몰아냄, 250
 구주께서 제정하심, 172~174
 합당하게 –을 취하면 영적인 힘이
 새로워짐, 175~176
- 속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참조
- 순종. 계명 참조
- 스미스, 루시 에밀리 우드럽(아내)
 –와 교제하고 결혼함, xvi~xvii
 –의 죽음, xxvii
 윌포드 우드럽에게 축복을 받음, xix
- 스미스, 사라 파(모친), xiii, 93~94
- 스미스, 조셉
 –의 신앙, 36, 37, 184
 –의 첫번째 시현, 26~27, 33, 34~37
 어리고 미숙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음, 36~38
 영원한 진리를 회복함, 38~40

-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25~27
자신의 간증을 위해 목숨을 바침,
40~42
- 스미스, 조지 앤더트
-가 베푼 친절, xii, xxxvii~xxxix, 2,
11~13, 223~225
-의 개인 신조, 1~2, 147, 247~248
-의 결혼, xvii
-의 시정 활동, xxiv~xxvi
-의 아내가 세상을 떠남, xxviii
-의 어린 시절, xi~xv, 233
-의 자녀들, xviii~xix
-의 죽음, xxxviii, 22
13세 나이에 의류 공장에서 일함, xvi
거리 근로자에게 코트를 벗어 줌, 13
건강상 어려움을 겪음, xxvi~xxviii
교회 역사 유적지에 관심을 보임,
xxx~xxxii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음, 57
교회 회장으로서의 - , xxxii~xxxiii
기도 덕분에 익사를 면함, 94~95
꿈에서 조부를 만남, xxvii
눈에 부상을 입음, xvi
딸에게 정직을 가르침, 233~235
멕시코 대통령을 방문함, xxxiv~xxxv
미국 남부에서의 선교 사업, xvi~xviii
벨 에스 스파포드에게 전국 규모의
단체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라고
조언함, 257~258
복음을 나눔, xxii~xxiii, xxxiv~xxxv,
123~124, 147~149
비행기 기장이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움, 111~113
사도로 부름을 받음, xx~xxii
사도로서의 - , xx~xxii
성탄절 선물로 몰몬경을 줌, xxii
아버지로서의 - , xix~xx, 233~235
어머니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움,
xii~xiii, 93~94
- 유럽 선교부 회장으로서의 - ,
xxvii~xxviii, 135~136, 179~182
유타 남부에서의 선교 사업, xvi
자녀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받은
성탄절 장난감을 나누어 주도록
함, xx
자신을 화나게 만든 친구와 화해함,
247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구호품을
보냄, xxxiv, 211~213
조셉 스미스가 태어난 곳을 방문함,
33
- 집사로 성임됨, 45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함, 81
커피 마시기를 거부함, 201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함, xix
한 남자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권고함, 103~104
- 스미스, 조지 에이(조부)
-가 선교 사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
163
-의 배경, xi~xii
가족들에게 주님 쪽 선 안에
머물라고 권고함, 191
가족이 안전하도록 기도하라는
영감을 받음, 97~98
조지 앤더트 스미스의 꿈에 나타남,
xxvii~xxviii
- 스미스, 존 헨리(부친), xii~xiii, 97~98
스미스, 존(증조부), xiii
- 식량 비축
교회는 -을 함으로써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음, 211~213
힘든 시기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됨,
213~215
- 신권
- 소유자는 합당해야 함, 52~53

- 의식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함, 51
- 회복, 47~50
- 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됨, 52~53
- 봉사할 기회, 45~47
-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음, 50~51
- 주님의 방법으로 부여해야 함, 50
- 청남은 -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함, 45
- 신앙**
 - 경전에 나오는 -의 모범, 182~184
 - 조셉 스미스는 -으로 첫번째 시현을 봄, 36, 37, 184
 - 초기 성도들의 - 184~186
 -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신 은사, 187~188
- 십일조**
 - 를 바침으로써 교회 사업을 도울 수 있음, 218~219
-
- 아론 신권. 신권 참조**
- 아버지 하나님**
 -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의 자녀임, 13~14
 - 사람들에게 말씀하심, 114~115
 - 우리는 -와 같이 될 수 있음, 71
 -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심, 193~194
 - 육신을 지니심, 38~39
- 아버지**
 - 아들이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함, 45
 - 또한 부모 참조
- 악마. 대적 참조**
- 안식일**
 - 에 교회에 참석함, 171~172
 - 을 지키면 행복해짐, 169~171
- 어머니**
 - 의 사랑과 온정, 230
 - 또한 부모 참조
- 엘리야**
 - 의 신앙, 183
 -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열쇠를 회복함, 81, 82
- 영생**
 -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은 -을 준비하는 것임, 70~71
-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의 발전, 42, 157~159, 161~165
 - 신성한 권세가 있음, 50~51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 58~59, 115~116
- 예수 그리스도**
 - 에 대한 우리의 간증, 21~30
 - 의 부활, 24~25
 - 의 침례, 24
 -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심, 25~26
 - 몰몬경에 나오는 -에 대한 간증, 25~26
 - 사도들에게 신권을 주심, 47~48
 - 성경에 나오는 -에 대한 간증, 24~25
 -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용서하심, 248
 - 오늘날에도 살아 계심, 23
 -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심, 26~27
 - 하나님의 아들, 22~24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됨, 7~8

-은 행복을 가져다 줌, 29, 39~40,
75~77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 14~15

세상에는 -이 필요함, 124~125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 259~260

의식

구원에 꼭 필요함, 51

죽은 자를 위한 -, 83~88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This Is the Place]
기념비], xxxv~xxxvi

인생

-은 영원함, 69~70

-의 목적, 70~73

일, 215~216

ㅈ

자애. 사랑 참조

전세 생활, 69, 70~71

준비

비상사태를 -함, 213~215

선교 사업을 -함, 140~141, 142~144

영생을 -함, 5~7, 70~71, 105~107,
250~253

지혜의 말씀

-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담긴

권고임, 203~205

-을 지킬 때 받는 축복, 205~208

가족들에게 -을 가르침, 208~209

ㅊ

첫번째 시현

신앙에 기초를 놓음, 36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증거,
26~27

조셉 스미스의 신앙을 보여 줌,
34~37, 184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줌, 34~37

친절

-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226

가정에서 -을 베풀, 228~230

마음을 부드럽게 한는 힘이 있음,
223, 227~228

주님의 영에서 옴, 225~226//또한
사랑 참조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 24

ㅋ

쿠모라 산, xxx~xxxi

ㅌ

탐욕

-에 대한 경고, 217

ㅍ

파, 로린(외조부), xii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는 -,
259~260

ㅎ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조

혼인 잔치의 비유, 5~6

회복

복음 -, 38~39

신권 -, 47~50